

중국을 사랑하는 이들의 동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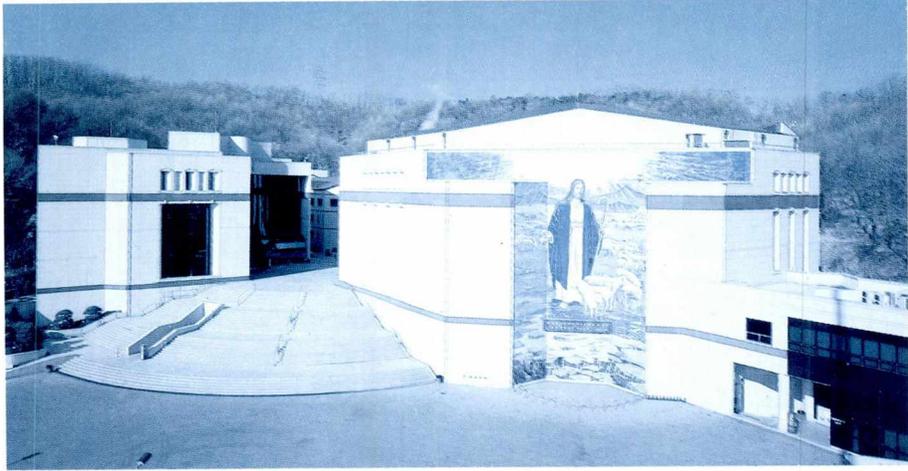
중국을 주께로

1995년 9,10월

특집/ 중국과 문서선교

- “지금은 문서사역이 힘을 발휘할 때”
- S.O.S! 중국에 책이 필요하다
- 효과적인 선교방법, 문서선교
- 문서선교를 통한 한중 교회 협력의 중요성
- 중국 문서사역을 위한 하나됨의 몸짓

햇불선교센터는 AD2000년 이후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햇불연합회

- * 매주 한번씩 모여서 기도하고 성경공부를 하는 모임으로서 목사, 전도사 및 신학생, 일반부부, 목사사모, 미술인, 육·해·공군 현역 및 예비역 부부, 군인가족, 평신도 등 성격별로 모이고 있습니다.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570-7071~7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 각 햇불회가 연합해서 1년에 한번씩 햇불대성회와 매월 햇불 연합성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 대전, 대구, 부산, 전주, 제주에도 햇불지회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선교

- * 세계선교 전략의 흐름에 따라 종족을 단위로 세계복음화에 동참하고 있는 해외선교국은 여러가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미전도 종족복음화를 위해 선교정보를 세계 각국으로부터 수집하고 있으며, 둘째, 유능하고 숙련된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하여 선교사를 훈련하고, 셋째, 미래의 선교사와 지도자를 배출하기 위하여 해외청소년들을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를 지향하는 타 선교단체와도 긴밀한 협력을 도모함으로써 효과적인 복음 전파시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아축구단

- * 한국 축구 발전에 공헌했던 할렐루아 선교축구단이 국내외를 순회하면서 친선경기와 함께 간증을 통한 선교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선교사업 및 장학사업 지원

- * 해외유학생, 국내신학대학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사회사업 시설 수용 고등학생들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하는 동시에 매년 고등학생들을 위한 수련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햇불합창단

- * 신앙이 투철한 성악 전공자들로 구성되어 한국교회 음악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국내외 순회연주 활동으로 복음전도에 앞장 서고 있습니다. 교회 및 연합집회시 요청이 있으면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햇불 성경연구소

- * 본 원의 부설연구소로서 국내외의 선교를 목적으로 삼고, 신학을 목회현장과 연결시키기 위하여 각 분야별로 연구하며, 목회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원서번역 및 성경공부 교재 집필, 세미나 개최, 평이하고 실제적인 성경강해 시리즈 발간, 강사발굴, 목회 현장에 필요한 주제 및 프로젝트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햇불도서관

- * 목회자, 신학교 교수, 신학생, 평신도를 위한 기독교 전문 도서 관으로 소장능력 10만권, 550평의 규모로 많은 이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 신학생과 목회자만을 위한 열람실이 별도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햇불기독교백화점

- * 국내 최대의 주차장 시설을 구비하여 각종 기독교 서적 및 용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방송선교, 기독교 종합유선방송사업

- * 전파를 통하여 북방선교활동을 하고 있는 극동방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995년 국내 유선방송시작과 관련, 21세기 선교매체의 총아인 TV를 통한 시청각 선교를 하기위해 기독교 종합유선방송사업단을 설립하였습니다.

우리의 중국선교, 다시 생각해 봅시다.

이동화

중국 연변에서 선교활동을 하던 순복음교회 소속 안승운(安承運, 50세) 목사가 최근 북한에 납북되었다. 신문 보도에 의하면 안 목사가 지난 7월 9일 연길에서 이사할 아파트를 물색하던 중 정체불명의 세 사람에게 의해 강제로 택시에 태워져 실종됐으며, 이 때 안 목사와 함께 있던 조선족 교포가 납치 사실을 중국 공안당국에 신고, 그동안 수사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안 목사는 지난 90년부터 중국선교활동을 해오다가, 93년 6월 정식으로 파송되어 연길에서 조선족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학원을 경영하면서 선교활동을 해왔다고 한다.

이 사건을 계기로 중국에 파견된 선교사들의 수, 활동 및 실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92년 한중수교 이후 우리 선교사들이 여러 가지 신분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중국에 진출하였다. 문화체육부의 집계에 따르면 7월 1일 현재 중국에 파송된 한국인 개신교 선교사는 1백77명에 달한다.

그러나 교회나 교단차원의 파견 외에 개인적으로 중국을 드나드는 종교인 및 유학생, 기업인의 형태를 빌린 전문인선교사 등을 합치면 중국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선교사 수는 실제로는 5- 6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94년 4월 1일 정부추천 없이도 일반관광객의 중국입국이 가능해진 뒤로는 중국선교가 크게 활발해졌다고 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을 주요 선교대상국으로 보는 까닭은 아마도 중국이 우리 나라와 인접해 있고, 그 어느 나라보다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또한 對北선교의 전초기지를 마련할 수 있다는 데 있지 않나 싶다.

중국에 나가있는 한국 선교사 중 300여 명이 연변의 조선족을 목표로 삼아 적극적인 전도활동을 펴고있다. 이들 중에는 북한선교를 위해 중국과 북한을 오가는 보마리장수들에게 성경과 생필품 등을 주어 보내는가 하면 북한의 지하교인들에게는 선교자금도 전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자유주의 사상의 유입으로 통치권이 약화될 것을 우려한 정부당국에 의해 외국인에 의한 교회설립 등 선교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지난 1994년 1월 31일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국내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과 “종교활동 장소 관리조례”로 외국인의 선교활동 규제가 더욱 강화되자, 선교사들의 활동은 더욱 음성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게 됐다. 그 결과 상당수는 교단이나 교회의 지원을 얻어 양로원, 요양원 등의 사회사업 시설이나 영어강사 등 비종교적인 활동을 하면서 은밀한 선교활동도 병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일부 선교사들은 여전히 드러내 놓고 선교활동을 하고 있어 중국 당국을 긴장 시키며 그들의 비위를 건드리고 있다. 교세확장을 염두에 둔 교파간의 경쟁적인 선교활동과 물질공세도 중국정부의 통제를 강화시키는 데 한몫을 하고 있다.

신문에 보도된 것만으로는 우리는 안 목사가 어떤 선교방법으로 선교를 해 왔는지 잘 알 수가 없다. 또 어떤 일이 계기가 되어 납북이 되었는지도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계기로 문화체육부는 지난 7월 8일 개신교 1백13개, 불교 36개 등 각 단체에 공문을 보내 무분별한 선교활동을 자제해줄 것을 또 다시 요청하였다는 점이다.

안 목사의 납북 사건이 남·북한, 중국 3개국 간의 외교적 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가는 길을 멈추고 우리의 중국선교 방법이 어떠한지를 돌이켜 보아야 한다.

우리가 이 사건을 계기로 어떻게 바람직한 중국선교를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지혜를 모았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할 뿐이다.

중국을 주께로

1995년 9/10월호



특집/ 중국과 문서선교

- 18 “지금은 문서사역이 힘을 발휘할 때” /薛孔奇
- 23 S.O.S! 중국에 책이 필요하다 /陳鍾 외
- 27 효과적인 선교방법, 문서선교 /석은혜
- 31 문서선교를 통한 한중 교회 협력의 중요성 /김성태
- 35 중국 문서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몸짓 /권수영

선교 나침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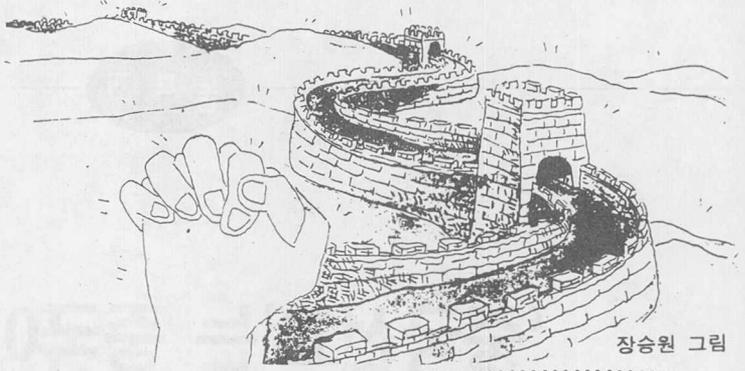
- 1 발행인 칼럼 우리의 중국선교, 다시 생각해 봅시다 /이동화
- 4 돋보기 ‘중국선교’는 중국이해에서 /이병길
- 9 선교일언 들리는 소리 /유소충
- 12 세미나 지상중계 중국선교 효과의 극대화 단기선교 /김성복

선교사의 삶

- 48 목상의 샘 생각도 중국인처럼 /허드슨 테일러
- 78 현지에서 온 소식 외바퀴 자전거 타기 /주성지
- 82 나의 사랑하는 책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김성곤

오늘의 중국

- 40 중국은 지금 전화시대에 돌입한 중국, 그러나...
- 49 중국 교회 현주소 예수님께 나아오는 아이들 /兒童
- 77 시사만평 ‘누구 말을 들어야 하나’[無所適從] /潘文輝
- 84 중국 교회 초점 광시(廣西) 삼자교회에서 일어난 분쟁 /중국어문선교회 연구부
- 88 보도물에 나타난 최근 중국동향 /중국어문선교회 연구부
- 93 개혁개방 시대의 유행어



장승원 그림

간증·인물

- 39 이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밀수꾼 브라더 앤드류**
- 44 대륙성도의 간증 **광야의 만나**
- 56 중국선교의 발자취 **퇴거령(退去令)까지** /방지일
- 65 중국선교사의 간증(8) **윌리엄 번스 목사와의 동역** /허드슨 테일러
- 68 한국교회 중국선교사 인물연구(3)
1913년 중화민국 선교사 사병순 목사(II) /김교철

중국을 알자

- 8 **선교중국어 한마디**
- 53 중국의 문화 **중국요리(I)** /衣建美
- 58 중국의 **성** **조선족의 삶이 어려있는 요녕성·길림성·흑룡강성**
 /중국어문선교회 연구부
- 80 중국영화 감상 **인생(活着)** /석은혜
- 94 중국어로 찬양을 **주는平安(주는 평화)**
- 95 신간 도서 『**중국에는 한국인 밥그릇이 없다**』 외 2권 /중국어문선교회 연구부

기도합주회

- 98 ‘**중국을주께로**’ 기도캘린더

단신·자료실

- 96 선교단신
- 103 자료실 **C.C.L. 중국복음사역부에서 발간하는 문서목록**

표지설명 풍요로운 가을, 붉게 타오르듯 익은 고추처럼 이 시대의 중국에도 거둔 생명의 열매들이 불길처럼 번져가며 맺혀지길 소망한다. (사진은 중국 남서부의 거리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고추상점. 후난성(湖南省), 후베이성(湖北省) 부근 지역 주민들은 매운 양념이 들어있는 음식을 즐겨 먹는다)

‘중국선교’는 중국이해에서

이병길

어떤 연유에서 필자에게 원고청탁을 하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처음에 좀 망설였다. 망설임의 이유는, 필자가 아는 중국 어문선교회는 중국선교 분야의 전문선교단체이고, 게다가 그 주변에는 중국관련 전문가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보다 더 큰 이유는 필자가 아직 ‘중국선교’에 관해 일가견(一家見)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탁을 거절할 수 없었던 것은 ‘중국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지난 10년 간 그 땅에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보잘 것은 없지만 중국을 알리는 데 나름대로 노력해 왔고, 그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최근 한국 교회의 ‘중국선교 열기’는 정말 대단하다. 필자 주변에서 중국선교를 말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이야기는 자신이 ‘중국을 위해 무엇을 했다’는 것이다. 교회를 몇 십 개 세웠고, 돈을 얼마 썼으며, 중국을 몇 번 다녀왔다는 등 참으로 필자가 감히 하지 못한 그런 훌륭한 일들을 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진심으로 존경스럽게 여겨지기까지 한다. 그러면서도 이 지면을 빌려 하고 싶은 한 마디 말은, 중국에 가서 무엇을 하기에 앞서 먼저 ‘중국을 이해하자’는 것이다.

중국의 기독교 접촉 역사배경 이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병서(兵書)로 알려진

『손자병법(孫子兵法)』에 있는 ‘자기를 알고 남을 알면 백전백승(知己知彼 百戰百勝)’이라는 말이 기억난다.

중국은 지리적으로 우리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며, 문화역사적으로도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중국에 대하여 혹은 중국에 관하여 아는 것 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지 않나 여겨진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약 반세기 동안 서로 각기 다른 체제하에서 불가피했던 단절의 역사가 하나의 요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도 우리를 돌아볼 때, 우리는 남을 이해하고, 남을 배려하는 데 약하지 않나 반성해 본다. 즉 남의 형편을 알고, 그 사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말이다.

그러던 중 1990년 이래 급속한 변화의 양상을 보이기 시작한 세계질서 속에서 우리와 중국과의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었고, 급기야는 한-중 양국의 여객기가 1,140km의 서울과 북경, 북경과 서울로 날게 되면서부터 양국은 이제 더 가까운 거리에서 호흡을 하게 되었다. 북경의 음식점, 호텔에서 한국인을 만나는 것은 남대문 시장에서 우리 이웃을 만나는 것보다 더 쉬운 정도가 되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한-중 양국인은 상대방을 너무 모르고 있지 않나 싶다. 중국 동북삼성(東北三省)에서 부단히 발생되고 있는 한국인들의 불미스러운 일들, 중국인들의 한국에서의 부적응(不適應) 등이 그 단적인 예다.



최초의 개신교 중국선교사 로버트 모리슨의 성경번역 장면
(영국화가 George Chinnery의 그림을 W. 홀이 판화처리한 것)

특히 한국 교회가 “중국선교”라는 미명하에 빛고 있는 어떤 일들은 안타깝기까지 하다. 그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열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여기서는 중국 교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평범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한국 교회의 중국 접근은 무엇보다 중국의 기독교 접촉 역사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중국의 기독교(개신교)와의 접촉은, 1807년 영국런던선교회(London Missionary Society 1795년 창립) 선교사 로버트 모리슨(Robert Morrison, 1782~1834)이 중국 남동해안의 마카오(Macao, 포르투갈령)에 상륙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모리슨은 중국 정부의 감시를 피해, 당시 광주에 있던 영국 동인도회사(East India Company, 1600년 창립)에서 25년 간 통역원으로 신분을 위장하고 성경을 중국어로 번역하는 한편, 말레이시아의 말라카(Malacca)에 영화서원(The Anglo-Chinese College)을 설

립, 화교(華僑)를 중심으로 중국 사역자를 키워 나갔다. 그 후 아편전쟁(鴉片戰爭, 1839~1842)때까지 영국 런던선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는 모두 21명, 그 중 모리슨만이 중국 내에서 활동하고, 나머지는 동남아 일대에서 활동했다.

런던선교회에 이어 두 번째로 중국선교에 참여한 선교단체는 네델란드선교회(The Netherlands Missionary Society, 1797년 창립)였다. 네델란드선교회는 런던선교회보다 20년 늦은 1826년 독일 루터교의 구츨라프(K. F. A. Gutzlaff, 1803~1851)를 파송했다. 그 후 구츨라프는 네델란드선교회를 탈퇴하고 독자적으로 중국선교에 참여했다. 구츨라프의 주요 활동은 연안(沿岸) 지역을 순회하면서 모리슨이 출판한 성경과 선교 문서를 보급하는 것이었다.

그 후 1830년 미국 교회에 의해 브리즈맨(E. C. Bridgman, 1801~1861)과 아벨(D. Abel, 1804~1845)이 파송되었다.

이상이 중국의 기독교와의 대체적인 접촉

배경이다. 중, 영(中英) 아편전쟁이 일어나기 까지 중국선교에 참여한 기독교 선교사 수는 모두 59명, 그 중 실제적으로 중국에서 활동한 선교사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았다. 모리슨과 구츨라프는 중국이 비교적 일찍이 접촉한 기독교(개신교) 선교사였다. 모리슨으로 말하자면, 그가 25년 간 몸담고 있었던 동인도회사는 실제 아편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회사였다. 그런 연유로 모리슨은 여러 차례 동인도회사를 떠나고 싶어했다. 게다가 중영 양국간의 정치적 회담에서 수차례 영국 측 통역을 맡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구츨라프는 선교를 목적으로 동인도회사 소속의 아편밀수선을 타고 중국 동해안 일대를 순회하면서 때때로 아편 판매와 관련된 통역을 맡기도 했다. 그것이 비록 고의적인 것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구츨라프의 활동은 충분히 의구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일이다. 당시 중국의 상황하에서 기독교와 아편은 다같이 서방에서 몰래 전래된 것이다. 결국 아편의 시비로 전쟁을 초래했고, 선교사는 식민주의의 앞잡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물론 아편전쟁에 대한 시각의 차이는 있지만, 당시 중국의 역사적 상황에서 볼 때, 기독교 선교할

동을 하는 선교사들이 지나치게 자국(自國)의 국력에 의존하였다는 선교방법상의 문제는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 필자의 입장이다.

필자가 오래 전부터 교체해 온 중국인 목사님의 “한국 교회의 선교 열심은 높이 평가하지만, 중국에서 한국 교회를 세우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는 말이 기억난다. 최근 어떤 신문에 난 「○○○성에 최초의 한국 신학교 세운다」는 기사를 보고, 한국 교회의 ‘중국선교’ 수준을 짐작했다.

만에 하나, 중국의 기독교와의 접촉 배경을 어느 정도 이해한다면, 오해된 역사를 다시 되풀이하는 어리석음은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

중국의 자존심 존중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온 얘기가기는 하지만, 중국인들은 매우 자존심(自尊心)이 강한 민족이라 생각된다. 그들의 오랜 역사, 찬란한 문화와 전통은 정말 자랑할 만하다. 중국 문화는 외부에서 이식(移植)되지 않은 자생(自生)문화다. 그리고 군사 경제, 정치 어느 것에도 편중되지 않는 도덕적이고, 추구력(追究力)과 보수성을 갖춘 종합적이고도 융화적(融和的)인 문화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중국 문화를 가히 동양 정신문화의 집대성이라고 한다.

중국문화를 한 마디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요(堯), 순(舜)에서 공자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사상은 ‘도통(道通)’이다. ‘도(道)’는 곧 중국민족 생활의 기본문화이고 ‘도통’은 전통 문화이다. 민족 생활에 있어서 도(道)의 주요 개념은 천도(天道)를 기본으로 한 ‘효(孝)’의 실천윤리이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사람되게 하는 인도(人道)를 중시(重視)한 고도의 실천 윤리다.

그런 실천윤리는 인간관계에서 쉽게 느낄 수 있다. 대개의 중국인은 다른 사람과의 만남에서 상대방에 대하여 수용적(收容的) 미덕을 가진다. 자기의 주장을 강하게 표현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준다. 그런 경우를 만날때 마다 우리는 단선적(單線的)이고, 조금은 독단적(獨斷的)이지 않나 싶다.



대개의 중국인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데 인내를 가지고 있으며, 자기의 주장을 강하게 표현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준다. 이런 중국인의 자존심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중국인들은 상대방을 이해하는 데 참을성이 있다. 그것이 56개 민족이 각각 고유한 풍속과 언어를 가지고도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었던 민족적 저력이 아닌가 싶다.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적응하려는 자세를 갖고 있다. 그 적응하는 태도는 굴종(屈從)이 아닌 당당함이다. 그것은 곧 조화(調和)에 필요한 미덕이라 여겨진다. 그런 미덕은 오랜 역사를 통하여 체질화되지 않고는 어렵다고 본다. 그런 중국인의 자존심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19세기 기독교의 중국 선교가 중국 근대화 촉진에 어느 정도 이바지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하면 당시 서방에서 온 기독교 선교사들은 대부분이 그들의 문화적 우월감을 가지고 중국인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 서구 선교사들은 선교라는 미명하에 자기들의 문화를 보급하기에 급급했다. 그것은 곧 '문화적 침투'였으며, 중국의 자존심을 손상시킨 일이다.

서구의 문화가 본격적으로 중국에 보급된 것은 중·영 아편전쟁 이후이다. 아편전쟁을 계기로 당시 동남아 일대에서 사역하던 선교사들이 대거 본토로 이동, 그때부터 중국 연해지역을 기반으로 하여 내지(內地) 선교가 시작되었다. 중국인에게 있어서 아편전쟁은 국가적 치욕이었고, 그 후 체결된 각종 '불평등조약'은 잊을 수 없는 역사적 수모였다. 기독교의 중국선교는 바로 그런 연계선상에서 발전했다.

19세기 서구 교회의 선교는 대체적으로 식민주의에 편승하여 미개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중국은 미개지역이 아니다. 오히려 서구 제국(諸國)이 갖추지 못한 문화를 이미 꽃피우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 선교사들은 자국(自國)에서 많은 선교비를 가지고 와서 미개지역에서 시행했던 선교방법을 그대로 중국에 적용했다.

나중에 평가된 것이지만, 중국이 필요로 했던 것은 병원이나 학교가 아니었고 복음 자체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것에 민감하게 대처한 것이 바로 <내지회(China Inland Mission)>

였다.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이 필요로 하는 것이 돈이 아니라 '복음자체'라는 것을 파악하고, 중국선교의 가닥을 잡아 나갔던 것이다.

어떤 면에서 한국 교회의 '중국선교'는 아직도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오늘의 중국선교는 이미 그곳에 뿌려진 복음의 씨를 중국 교회로 하여금 자기들 토양에 맞게 가꾸도록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이 중국의 자존심을 존중하는 선교방법이라고 생각한다(중국 교회는 '중국선교'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는다).

중국의 개방상황 이해

오늘날 세계선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주시하면, 기독교의 전통적인 선교방법이 먹혀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다시 말하면 선교 대상이 매우 변칙적이고도 유동적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유동적인 대상에 맞게 선교 전략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런 면에서 오늘날의 선교는 '상황선교'라고 할 수도 있다. 기독교 선교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지역에서는 더욱 그렇다.

중국은 1979년 4월 9일, 문화혁명 이후 처음으로 Ningbo(寧波)교회를 개방하고, 1981년 28일 난징(南京)의 금능협화신학교(金陵協和神學院)를 복교하고, 그해 4월에는 선교선 로고스(M.V. Logos) 호가 상하이(上海)에 정박(碇泊), 관계자들이 15일 간 체류하면서 공개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조치했다.

이어서 1982년 12월 4일에는 제5차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공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헌법 제2장) 중 "종교 신앙의 자유"(제36조)를 보장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이런 일련의 개방 분위기가 '중국선교'에 대한 한국 교회 가슴을 설레게 했다. 그 설레임만으로 결국 중국을 파악치 못한 채 시행착오로 이어졌으며, 10년이 지난 오늘에야 그것도 자성(自省)의 소리가 간간히 모아지고 있음은 그래도 다행한 일이라 할 수 있겠지만, 실로 만시지탄을 금할 수 없다.

어떤 사람들은 중국이 사회주의 체제를 벗

어나면 중국선교 양상이 달라질 것이라는 부
 푼 기대감을 갖고 있다. 필자 역시 그렇게 되
 기를 바란다. 그러나 중국이 중국으로 서 이
 역사 세계에 존재하는 한 중국은 역시 중국이
 라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적어
 도 중국선교에 임하는 기본 자세라고 본다.

사회주의 사상이 중국에 정착한 것은 1921
 년 신사조 운동시기이며, 그것이 중국역사에
 구현된 것은 1949년이다. 그 후 약 60년 간의
 시험기를 거쳐 1980년대에 문호개방으로 이
 어졌다. 그러나 그 개방은 정치적 변화이지 중
 국의 변화는 아니라고 본다. 그 목적은 사회주
 의 이상을 찬란하게 꽃피우는 데 있다. 그 이
 상의 실현을 위해 계획경제를 시장경제로 정
 책상의 전환을 한 것이다. 그러나 정책의 변화
 가 중국의 변화는 아니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
 가 이전에 '중국'이다. 앞으로 개방의 폭이 확
 대된다고 할지라도 중국은 고유의 '중국'으로
 남게 될 것이다. 개방이 '중국의 개방'은 아니
 다. '중국의 개방이 아니다'라는 말은 곧 중국
 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 역사가 타국(他國)의
 무력이나 시류(時流)의 격랑(激浪)에 침해되
 거나 변질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중국인은 수용에 있어
 서 매우 관용적이다. 그러나 일단 수용한 것은
 중국화(中國化)한다. 바꾸어 말하면 중국적으
 로 동화(同化)하지 않으면 먹혀들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선교적 변질을
 말할 수 있다. 경교(景教), 불교, 로마 천주교
 등이 중국에 전래되면서 그런 과정을 밟았다.
 그러므로 중국선교를 함에 있어 중국문화에
 적응하는 방법이 부단히 연구, 모색되어야 한
 다. 지금 와서 '바로 이것이다'라고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생각된다.

총괄적으로 말하면 중국을 충분히 이해하
 기 까지는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만일 중국을 바로 이해한다면 지금이 바로 중
 국 교회와 접근할 수 있는 호기(好機)라 생각
 된다.

이병길/ 목사·예장 고신 선교부 총무

선교중국어 한 마디

你參加第幾堂崇拜?

몇 부 예배를 드립니까?

임 자매와 주 집사가 주일 아침에 교회 정문
 에서 우연히 만났다. 서로 몇 부 예배를 드리
 는가를 묻는 대화 장면이다.

周執事: 林姊妹平安! 請問你參加第幾堂崇
 拜?

주 집사: 임 자매 평안하세요. 몇 부 예배를 드립
 니까?

林姊妹: 我參加第一堂, 之後再去成人主日
 學. 你呢?

임 자매: 나는 1부 예배를 참석하고 나서 성서대
 학에 참석합니다. 집사님은요?

周執事: 我是詩班班員, 所以坐第三堂崇拜.
 好多人呢!

주 집사: 나는 성가대 봉사가 있어서 3부 예배를
 드립니다.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林姊妹: 說的也是. 大家都喜歡第三堂.

임 자매: 그게 말이예요, 다들 3부 예배가 좋
 은가봐요.

周執事: 上帝祝福你. 回頭見.

주 집사: 하나님의 축복을 빕니다. 또 만납시다.

林姊妹: 回頭見.

임 자매: 다음에 뵈요.

차이나/ 본지 편집기자

- (1) 平安!이라는 말은 교회에서의 인사말이다.
- (2) 1부 예배를 第1堂崇拜라고 한다.
- (3) 成人主日學는 주일아침에 어른들을 위한 성서대
 학이다.
- (4) 성가대원을 詩班班員이라 칭한다.
- (5) "參加第1堂崇拜와 "坐"第1堂崇拜는 같은 표현이
 다.

들리는 소리

유소충

하나 님께서 세상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을 통하여 창조의 역사를 이루셨고 또한 지금도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음성을 통하여 삶의 원칙을 정해주셨고,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하라고 명하셨다. 그 소리는 “하라” “하지말라” “可” “不可”였으나,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에 상반되는 행동을 하여 타락의 경지에 이르게 되었다. 생명은 이로 인해 상실당하고 에덴에서 축출당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고,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일치된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방주의 구원을 허락하셨고 출애굽의 역사를 허락하셨다. 친히 음성을 통하여 노아에게 방주 건조의 사명을 맡기셨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는 구속의 역사를 명하셨다.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출 3:4~6)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출 3:12)

이렇게 시작된 구속역사의 분부하심과 실제적 행동이 모두다 하나님의 음성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밖에 이스라엘 백성의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 지도해 주셨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곧 말씀의 역사라 할만큼 말씀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모든 역사의 진행을 주관하셨던 것이다.

오늘 우리의 복음선교 사역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음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다음 세 가지 음성을 통하여 음성과 선교의 밀접한 관계를 더듬어보며, 나아가 선교사역의 큰 원동력이 되기를 바란다.

첫째는 하늘의 소리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행 1:8)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선교지 영혼의 부르짖음을 듣는 우리가 어찌 응답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사진은 중국 소수민족 축제에 참가한 한 가족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사6:8)

선교현장에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 땀 흘려 일하는 자들은 하늘에서 부르시는 이 음성을 분명하게 들어야 한다. 그럴 때에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이며, 피곤치 않을 것이고 사명을 잃지 않을 것이다. 지금도 하나님은 높은 보좌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 이 부르는 소리를 우리는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이 소리에 화답하는 헌신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곧 증인의 자세인 것이다. 분명한 소리 아래 비로소 승리의 선교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둘째는 이 땅의 소리이다.

이것은 선교지의 음성이라 할 것이다. 선교 역사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위대한 선교사였던 바울은 하늘의 음성을 듣고 소명의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음성도 분명하게 들었기 때문에 아시아선교에서 유럽선교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인간에게 내재된 하나의 공통된 약점은 자기중심이다. 바울도 아시아선교를 원했으나,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끌어 바울이 원했던 아시아 선교보다 마케도나 선교를 시작하셨던 것을 초대교회 역사를 통해 잘 알 수 있다. 선교는 자기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 자기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자기 필요가 아닌 선교지의 필요에 따라 움직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성령과 함께 하는 선교역사인 것이다. 드로아의 환상은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관건이었다. 바울은 마케도나 사람의 애절한 부르짖음 - 「마케도나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행 16:9)을 무시할 수 없었다.

지금 피선교지에서 계속 이와 같은 부르는 소리가 쉬지 않고 있다. 우리가 어찌 잠잠하여 이에 응답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중국대륙으로부터 들려오는 또 하나의 마케도나의 애절한 부르짖음을 들어야 할 것이다.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도처의 복음의 불모지에서 지금도 들려오는 소리가 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 부르는 소리에 화답하자.

선교지로 향하자. 마음으로, 물질로, 기도로, 몸으로 선교지를 향하여 나아가자. 이것이 삶의 최대의 가치요 축복인 것이다.

셋째는 음부의 소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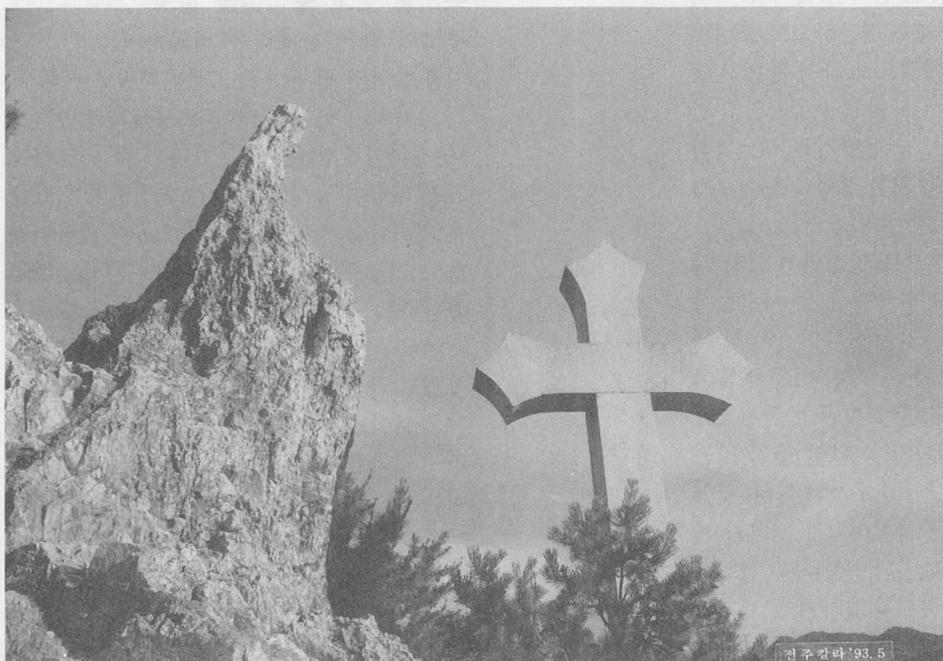
선교사역은 음성을 듣는 자만이 하는 것이다. 드로아의 환상을 본자는 누구도 마게도나의 선교를 외면할 수 없다. 선교에 있어서 또 하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그것은 하늘의 소리도 아니고, 이 땅의 소리도 아닌, 음부의 소리이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눅 16: 23~28).

죽어 멸망하는 영혼들이 애타게 물을 요구하는 소리, 형제 구원을 애절하게 부탁하는 소리, 모두 다 불신자의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멸망하는 영혼들까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짖고 있다. 세상 정욕의 바다로, 죄악의 바다로, 멸망의 바다로 형제들이 지금도 수없이 빠져가고 있으며 하늘에서도, 이 땅에서도, 음부에서도 “가라” “도우라” “전하라” 소리치고 있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유소춘/ 영등포 중화기독교회 담임목사



중국선교 효과의 극대화 단기선교

“제가 방금 중국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최근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비교적 실제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여름에 굉장히 많은 한국의 크리스천들이 중국에 들어온다는 소식을 제가 중국에서 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올 여름 중국 공산당국은 상당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짧막한 저의 경험을 나눔으로써 부디 중국선교에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실수가 줄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중국의 공식 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이다. **중국**이는 중국이 공산당에 의해 다스려지는 사회주의 국가임을 표방하는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의 선교는 매우 신중하고도 조심스럽게, 그러면서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중국에서 사회주의 국가의 인민(人民)을 만나게 된다. 중국 단기선교는 그러한 만남을 통해 그들이 처한 상황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는 것이다.

지금 중국은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외국, 특히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 중국에 유익하지 않은 일을 한다면 상당히 예민하게 신경쓰기 마련이다. 이번 여름에 들어오는 한국의 단기선교팀이 과연 중국선교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인지, 아니면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인지 상당히 우려가 된다. 일반적으로 중국에서는 큰 국제대회가 열리기 전에 상당히 긴장된 국면에서 문단속을 강화하곤 하는데, 올 9월 중국에서 열리게 될 세계여성대회를 앞두고 지금 외국인들, 특히 선교활동으로 온 사람들에게 예민하게 주목하

고 있다.

중국을 알고 중국인을 알고

중국의 숨은 잠재력을 파악하자

지금 중국의 경제는 관리 부패척결로 인해 약간 주춤하고 있는 상태이다. 사회가 전반적으로 자금의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은, 달러를 가진 사람이 공격당할 여건이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달러를 두둑이 소유한 외국인들을 노리는 강도와 도둑이 매우 많다는 것을 유념하고 가기 바란다.

한국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중국인들이 불품없고 가난하다고 해서 무시하는 교만한 태도를 보이는데, 이것은 반드시 버려야 할 태도라고 생각한다. 중국이 어느 정도의 나라인지 아는가? 국방과학기술을 예로 들어보자. 이번 여행에서 한 과학기술 전문가로부터 듣기로, 현재 중국의 미사일 원자로 기술수준은 한국보다 20년 이상 앞서 있고 발사기술은 미국보다 5년 앞선다고 한다. 중국은 절대로 알잡아볼 대상이 아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소득이

그들보다 조금 높다고 해서 우월의식을 나타낸다면 결코 친구관계가 형성될 수 없다. 그들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중국을 사랑하는 크리스천들은 단기선교 여행을 통해 중국의 숨은 잠재력을 읽는 지혜가 필요하다.

마음을 열고 친구가 되기까지

1960년대 이후 문화혁명을 거치면서 지금도 중국인들의 내면 속에는 문혁 당시의 도덕적, 사회적 가치관이 뿌리깊게 박혀 있다. 많은

로 몰기도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그들과 접촉할 때는 아예 철저한 장사꾼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그들로 하여금 신뢰감을 갖게 하며 일하기도 쉬워진다.

너무 드러낸 봉사는 더욱 경계심을 갖게 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마음을 열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한국인들이 잘 알고 단기선교를 가길 바란다. 중요한 것은 그들과 친구가 되는 것이다. 그들이 우리의 호의를 못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들을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들이 자라온 상황과 배경 때문에 그런 가치관을



단기선교는 현지인들과 우정관계를 맺는 기회이다. 인위적인 친절과 봉사보다 우선 마음을 열고 친구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중국 길거리의 노점상과 그 옆에서 편안하게 낮잠을 자는 젊은 여인들.

사람들이 서로를 고발하여 죽이고, 핍박과 죽임을 당하는 가운데 심지어 가족간에도 불신이 형성되어 왔다. 사람이 사람을 섬기고 존중하는 것을 경험해본 적이 없기에 오히려 서로 의심하는 배타적인 태도가 자연스러운 가치관으로 자리잡은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외국인인 우리들이 아무 대가없이 자신들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것을 좋게 받아 들이지 않는다. 고맙다고 여기기보다는 오히려 더 경계하고 마음을 주지 않는다. 그렇게 하는 저의가 도대체 뭐냐며 때로는 사역자들을 간첩으

갖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중국 단기선교의 특수성

단기선교는 짧게는 1주일, 길게는 6개월 정도 선교지에서 현지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 선교지에서 머물면서 선교지를 이해하고 선교활동을 하는 것이다. 특히 중국은, 팀 단독으로 돌아다니기에는 위험하고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이 많은 곳이므로 반드시 현지를 잘 아는 선교사와 미리 긴밀한 협조체계를 갖춰, 함께 지역을 돌아다니고 사람과 접촉하는 것이 실

수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일반적인 단기선교는 찬양, 노방전도, 어린이 전도, 드라마, 의료선교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데 반해, 중국은 그런 방법이 허용되지 않는 곳임을 알아야 한다. 공개적인 사역을 하면 할수록 전체적인 선교가 어려워지는 곳이 바로 중국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가자 바란다.

단기선교의 종류

비전트립(Vision Trip)

정탐꾼의 선교정보 리서치

비전트립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탐꾼을 보내서 리서치를 하는 것이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미리 그 지역을 정탐하고 돌아온 성경의 기사(민 14장)를 보면 비전트립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것인지 알 수 있다.

현지 문화를 몸소 체험하고 현지 선교사와의 교제를 통해 사역의 경험을 들으면서, 현지의 구체적인 정보(Information)를 얻는 것이 비전트립의 핵심이다. 정보는, 항간에 떠돌아다니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내게 필요한 효용가치를 인정받는 내용을 가공(스크랩)한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떠돌아다니는 '척보'만을 얻고 오는 경우가 너무 많다. 한 가지 이야기, 주관적인 이야기만을 듣고 '중국은 다 이렇구나, 선교사들이 다 이렇게 일하는구나'라고 판단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태도이다. 들은 모든 내용을 정보화할 수 있는 스크랩 작업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정보가 정확하고 다양할수록 종족 및 지역을 향한 선교사 발굴, 훈련, 파송에 많은 유익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비전트립은 전도나 선교 활동보다는 선교지 이해나 정탐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어떻게 보면 비전트립은 매우 어렵고 전문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리서치 방법

첫째, 정보를 세분화시켜라.

팀을 이루고 갔을 때 각 사람마다 한 분야를



비전트립의 주요 목표는 정보수집이다. 한 사람씩 한 분야를 맡아 깊이있는 정보와 자료를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국 단기선교를 간 팀들이 지도를 보며 여행일정을 짜고 있다.

맡아 깊이있는 조사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 지역의 문화, 종교, 기독교, 사회, 언어, 종족 등을 한 사람씩 맡아 깊이있게 조사하고 돌아와서 스크랩하여 정보화하는 것이다. 효과적인 정보수집을 위해서, 현지 선교사와 미리 연락을 취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해달라고 요청하는 방법도 있다. 또한 중국에 갔을 때 저녁시간을 이용하여 선교사들이 이미 갖고 있는 경험과 자료들을 생생한 강의를 통해 듣고 정보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둘째, 효과적인 정보습득을 위해서 지역을 한정시켜라.

한 지역이라도 보다 세밀하게 관찰하여 깊이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여행이 효과적인 비전트립이다. 앞에서 말한 전문적인 리서치가 잘 되지 않는 이유는 짧은 시간 동안 너무나 많은 지역을 돌아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단기선교팀들이 계획을 하는 것을 보면,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되도록 여러 지역을 가고 싶어한다. 이왕 가는 것 한번 갈 때 많은 곳을 다녀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깊이있는 정보조사는 거의 불가능해

지고 관광에만 그치지 쉽다. 가능한한 지역을 다양화하지 말고 한정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

셋째, 많은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교통편을 이용하라.

비행기보다는 더 오랜 시간 여행할 수 있는 배, 기차, 버스 등을 이용하는 것이 단기선교에 있어 효과적이다. 가능한 더 많은 중국인과 만나고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라. 구석 구석에 있는 마을과 교회들을 샅샅이 뒤지고 찾는 경험, 그리고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기차역 등에서 함께 덩굴며 잠을 자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이런 기회를 통해 그 지역과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객관화할 수 있다.

넷째, 가기 전에 지역 스터디를 하라.

떠나기 전에 앞서 반드시 갈 지역에 대해 세밀히 연구하고 가라. 1차적인 자료(책, 신문, 선교단체 자료 등)를 통해 알고 가는 것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가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미 알려져 있는 정보를 미리 스터디하고 현지에 가면, 공부한 것과 실제로 보는 것과 비교할 수도 있고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된다.

단기 팀선교 사역

현지 영혼의 마음을 여는 의료선교

중국에서의 단기선교 사역에는 많은 한계가 있지만, 여기서는 본인이 속한 단체에서 경험한 의료 팀선교에 대한 경험을 나누어보고자 한다. 의료팀이 이루어지면 어느 단기 선교팀보다도 사역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의료팀은 진료시 그들의 단련 마음을 열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환자의 손을 잡고 기도해주며 진료 카드는 현지 선교사에게 넘겨주어 계속적인 전도와 양육이 이루어지도록 도울 수 있다. 과거 선교의 초창기에 대부분 의료선교로 문을 열었던 것을 볼 수 있다.

현지 정부 지도자와의 친밀감이 관건

본인이 속한 단체에서 의료팀(의사, 간호사, 약사, 한의사, 침술 등)을 구성하여 중국의 한

소수민족 지역에 들어간 적이 있다(문화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궁벽한 산골에 살고 있는 소수민족들은 불결한 환경과 위생관념의 결여로 많은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우리는 현지 인민병원의 협조를 통해 그들이 발급해 준 비자로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료에 들어가자마자 현지 정부 관계자들이 찾아와 불쾌한 감정을 나타내면서 책임자인 나를 불러갔다. 비록 인민병원의 허가를 받았지만 정부 관계자와 미리 접촉하지 않았던 것이 원인이었던 것이다.

어느 지역이든 중국에서 사역(전도가 아닌 섬김사역 - Serving)을 하기 원한다면 반드시 현지 지방정부 관계자와의 관계를 통해 허가를 받는 것이 유익하다. 허가를 받으면 공인된 삼자교회와 좋은 접촉점을 갖게 되어 사역을 하기에 쉽다. 법치국가라기보다는 인치국가라 할 수 있는 중국에서 공안당국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면 선교적 차원에서 많은 일들을 추진해 나갈 수가 있다. 현지 병원과 자매 결연을 맺는 일, 정부 지도자들과의 절친한 친분관계는 앞으로 현지에서의 원활한 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만약 허가를 받지 못했다면 사역보다는 조용히 비전트립으로 끝내는 것이 유익하다. 팀 사역을 하느라 직접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었다 하더라도 기독교에 대해 긍정적인 가치관을 전해줄 수 있는 책, 찬양 테이프 등을 선물함으로써 좋은 관계를 맺는 방법도 있다.

단기선교의 효과

단기선교란 말이 의미하듯이 짧은 기간에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그러나 비전트립이나 팀사역이 중요한 이유는, 이런 기회를 통해 선교지의 필요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선교의 개념이 바뀌고 있다. 무조건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것을 그들에게 안겨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알고 채워주는 선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비전트립은 첫째, 현지인들의 실제적 필요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는



중국인들이 우리보다 불품없고 가난하다고 해서 무시하는 태도는 버려야 한다. 오히려 그들에게서 배우려는 자세로 단기선교에 임해야 한다. 돈을 벌기 위해 농촌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광저우(廣州)역에 물러있다.

중요한 계기가 된다(불량한 위생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중국 소수민족들에게는 회충약, 비타민 등이 엄청나게 좋은 선물이 된다. 우물파기-우물 하나 당 한화 10만 원 정도가 소요됨-등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 보잘 것 없다고 생각하는 기술이 현지인들의 마음을 움직여 그들과 우리간에 우정관계를 형성하는 좋은 매개체가 될 수 있다. 미용, 이발, 치과기술 등이 그것이다.

둘째, 또한 현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의 입지를 굳건히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비자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불안정한 가운데 외롭게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가 있는 지역에 단기선교팀이 들어가 현지인들과의 관계를 호전시켜 비자기간을 연장받는 경우도 보았다. 이런 점에서 단기선교를 적극 권장하고 싶다.

셋째, 단기선교를 갔다 온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이 장기선교사로 헌신한다는 사실에서 단기선교는 꼭 필요하고 효과적이다. 내가 속한 단체에서 파송된 많은 선교사들의 경우를 보아도 그렇다. 지금 그들은 모두 이전에 자신들이 단기선교 여행을 통해 밟았던 땅에 가 있다.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대로 '네가 밟은 땅을 내게 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나가면 그 땅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것이다.

단기선교에 앞선 우리의 자세

단기선교 여행은 반드시 현지 사역자들의 도움을 받고 협력해야 한다. 현지에 가서 만난 선교사와 그의 사역에 대해 함부로 판단하는 행동은 금물이다. '판단의 영'에 미혹되지 말아야 한다. 짧은 시간 동안에 선교사의 행동이나 사는 모습을 보고서, 잘못되었다고 한다든지 별로 열매가 없다고 쉽게 단정하거나 결론을 내리는 것은 위험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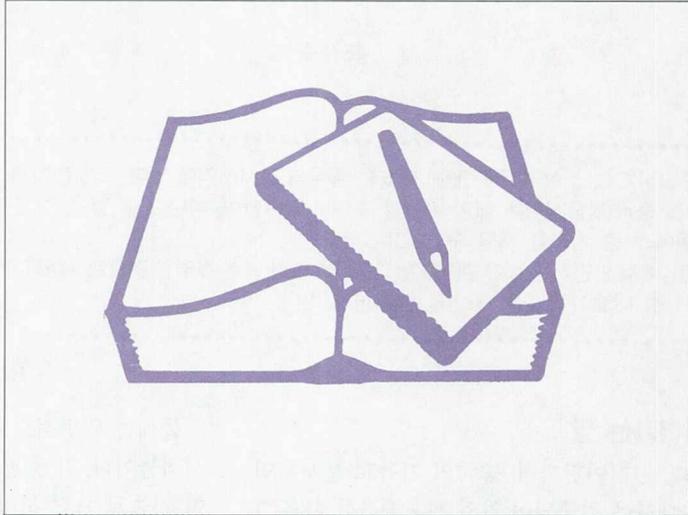
자신의 달란트를 내세우지 말고 겸손히 섬기고 돌아와야 한다. 상대방 나라의 문화를 존중하고 칭찬을 아끼지 말라. 우리가 어떤것을 현지인들에게 주러 가거나 가르치러 간다고 보다는 반드시 배우는 자세로 가야 한다.

다녀온 후에 기록을 남기고 얻은 정보를 나누라. 우리를 먼저 그곳으로 보내신 이유가 가지 못한 사람들과 나누기 위한 하나님의 전투 작업이다. 장기선교뿐 아니라 단기선교에 대한 중북투자도 너무나 많다. 그것은 서로 정보를 나누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지 문화와 현지인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단체들과 개인에게 나누라. 또한 교회에서 선교동기 유발자로, 선교헌신자로 살아가도록 힘쓰고 기도하라.

편집자 주: 이 글은 지난 6월 26일 중국어문선교회가 주관한 중국선교 정기세미나의 내용을 녹취, 정리하여 실은 것이다.

김성복/ 목사·갈릴리세계선교회 팀사역 대표
정리/ 권수영·본지 편집자

특집/ 중국과 문서선교



지금 중국에는 최소한 6천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크리스천이 있다고 한다.

물론 14억 인구의 중국을 놓고 생각해 볼 때
이 숫자는 그리 대단치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14억 인구의 복음화를 위해,
이제 그 6천만은 참으로 대단한 숫자가 아닐 수 없다.
이 대 사역의 주체는, 결국 서양인도 한국인도 아닌
바로 중국인 스스로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현대 중국 교회가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지도자와 성도들의 영적 성장이요, 그것을 도울 성경 및 영적
교재, 그리고 서적들이라는 것이다.

앞으로의 중국 복음화는 바로 여기에 달려 있다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 교회의 응답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

중국의 이곳 저곳에서 간헐적으로 들리던 소리가

이제는 큰 외침으로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다.

이 특집을 통해 중국 교회의 외침이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들려지길 간절히 바라마지 않는다.

“지금은 문서사역이 힘을 발휘할 때”

중국 기독교 문서사역 개관

薛孔奇

홍콩 복음증주협회(C.C.L.) 설공기(薛孔奇) 대표는 중국의 문서사역에 있어 오랜 경험과 뛰어난 감각을 갖고 있다. 그가 가진 중국 복음사역에 대한 비전과 포부로 말미암아, 다년 간에 걸친 C.C.L.의 문서사역은 중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기여를 해올 수 있었다.

이 글은 C.C.L.에서 발간하는 《守望中華》(119기)에 실린 글을 번역한 것으로, 제2회 중국 기독교인 문서사역 세미나에서 설 대표가 발표한 강의를 정리한 것이다. -편집자 주-

들어가는 말

1940년대 이전까지, 중국의 기독교 문서사역은 대륙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공산화 이후 그 근거지는 홍콩과 대만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동시에 지난 40여 년 간 중국에서 이루어지는 문서사역은 극심한 타격과 파괴를 경험했다. 문서사역은 오랜 기간 동안 거의 정지상태에 빠져 있었고, 심지어 성도들이 갖고 있던 성경과 신앙서적까지 모조리 몰수당하고 불태워졌다.

지금도 여전히 중국에서의 기독교서적 출판과 발행은 정부에 의해 엄격한 제한을 받고 있다. 반면 홍콩과 대만에서의 기독교 문서사역은 다양하고 활발하게 발전하여 좋은 결실을 맺고 있다.

중국에서 공개로 출판되는 기독교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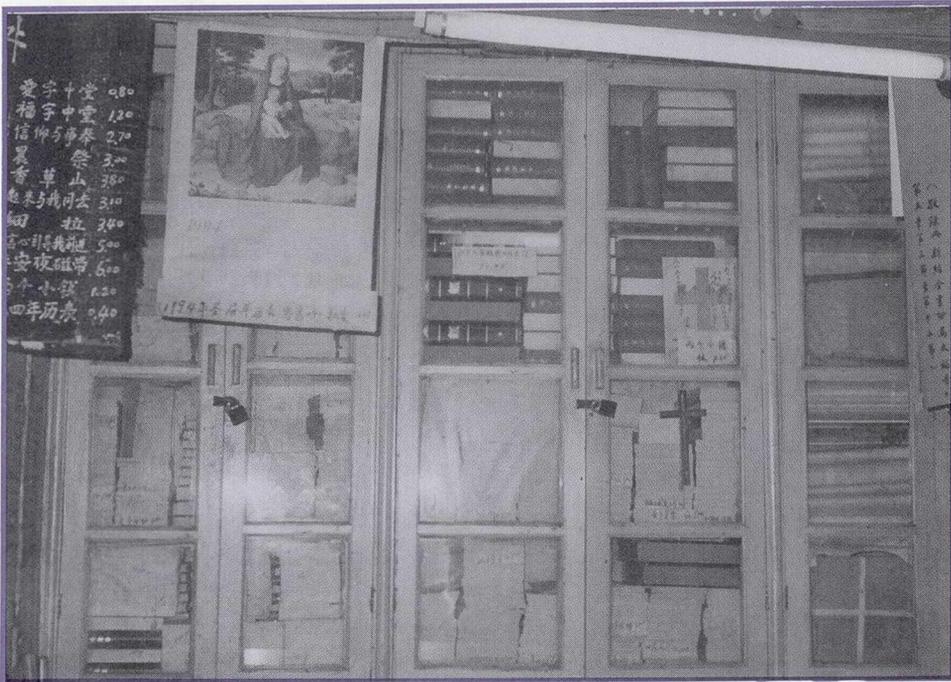
중국에서 출판되는 기독교 서적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기독교 신자들을 위해 전문적으로 출판된 서적들이다. 중국기독교협회와 삼자, 즉 양회(兩會)에서 출판하여 각 교회에서 판매하거나 또는 통신으로 판매하는 책들이다.

둘째는 일반적으로 출판되는 기독교 관련 서적들이다. 각 출판사에서 정부의 허락을 받아 기독교 관련 서적을 출판하여, 전국 각 서점에서 판매한다. 기독교협회와 삼자는 별 차이가 없지만, 후자인 경우 매우 우수한 기독교 서적을 펴내곤 한다. 『천로역정』, 『불의 마차』 등이 좋은 예이다. 내용적인 수준에서는 양회에서 펴 내는 것과 큰 차이를 나타낸다. 그러나 이처럼 공개적으로 서적을 출판하게 될 때 다음과 같은 취약점이 나타난다.

1. 홍보면에서 뒤떨어진다.

일반 서점에서 판매되는 기독교 서적은 상업적인 시각에서 볼 때 독자층이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책이 다 팔려도 재판을 발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또 적극적인 홍보도 잘 안 되는 상황이다. 홍보자료나 매체가 부족하여, 아무리 좋은 책이 시중에 나와도 성도들은 어떤 책이 이미 출판되어 나왔는지조차 몰라 사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무리 좋은 책이 나왔다 하더라도 푸대접을 받는 신세가 되곤 하는 것이다.



삼자측에서도 성경과 서적들을 발간하지만 늘어가는 성도들의 수요를 따라잡기엔 역부족이다. 삼자교회 안에 있는 서적 판매대에 서적들이 자물쇠로 굳게 잠긴 채 책장 안에 들어있다.

2. 정책적인 제한이 가해진다.

양회에서 출판한 서적은 내용면에서 신중하긴 하지만, 수많은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기엔 종류나 양적으로 매우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비단 재정이나 자료, 종이, 인쇄 등 자원의 부족에서 오는 문제일 뿐 아니라, 정부정책에 의해 제한받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

10여 년 간의 개방정책하에서 홍콩, 대만 및 해외 교회들의 아낌없는 지원이 있었으나, 정부의 정책적 제한으로 인해 중국 내에서 발간된 서적은 일백여 종을 넘지 못하고 있다. 성경의 인쇄량도 사전에 정부의 허락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양회에서 성경을 출판할 수 있다. 그리고 성경은 아직까지 서점에서 판매되지 않고 있다. 기독교단체들이 자체적으로 기독교서점을 설립할 수 있는 홍콩, 대만과는 달리, 중국에서 성도들에 의해 운영되는 기독교서점은 존재하지 않는다. 심지어 양회의 관리하에서 자유열람식으로 개방된 서점조차 없

다.

3. 공급량이 부족하다.

과거에 행해진 억압, 그리고 지금도 가해지고 있는 제한 때문에 중국 교회에서 문서를 사용하는 일은 매우 한정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중국에서의 문서사역이 복음사역의 홍보, 전도 및 양육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다.

전도지, 주일학교 교재, 일반 교재, 어린이 신앙서적, 신학교 교재, 제자훈련 교재, 교회 사역자훈련 교재, 크리스천 가정, 시사문제를 다룬 성경적 가치관, 목회자용 참고도서 등의 공급이 매우 한정되어 있다. 절대 부족한 상황이라 말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본다. 깊이있는 기독교 토착화 관련 신학서적을 쓸 사람도, 서적 자체도 너무나 부족하다. 전문적으로 문서사역에 종사하는 사역자가 극히 드물어서 앞으로 중국 내의 문서사역에 적극적인 준비와

기초를 다지기에 미흡한 실정이다.

비공개적으로 출판되는 기독교서적

공개적으로 출판되는 통로 이외에 비공개로 출판되는 통로 역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인쇄제작에는 10여 가지 방식이 있다. 손으로 베껴쓰는 방법, 등사, 프린트, 컴퓨터 입력, 연판(콜로타이프) 방식 등이 있다.

제작하는 문서의 종류도 매우 다양하다. 낱장짜리 전도지 및 소책자를 비롯해서 수백 페이지짜리의 비교적 큰 책도 만들어 낸다.

도서목록도 일일이 그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 정확한 통계를 낼 수가 없다. 그 중에는 중국의 성도들이 직접 제작한 찬송가, 영성서적, 성경공부 교재가 있으며, 해외에서 출판된 책을 번역하여 해적판으로 찍어낸 것도 있다. 무디신학핸드북(慕迪神學手冊)도 그 중의 하나이다.

비공개적인 방법으로 서적들을 출판하는데 있어서도 역시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C.C.L.의 복음사역부에서 보내준 주석성경을 보고 있는 중국의 한 성도.

1. 수많은 장애물이 있다.

이러한 종류의 서적은 중국인 저자들이 쓴 책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중국의 성도가 베껴 쓴 책은 홍콩에서 출판해서 다시 중국 내에서 인쇄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할 때 인쇄량은 대략 10권에서 일만 권까지이다. 이럴 경우 경비는 적게 들지만 발행은 일정한 지역에 국한되게 된다. 대부분 무료로 배부되어 왔지만 최근에 소수의 사람들이 판매 방식을 취하기 시작했다. 전 대륙에 걸쳐 적지 않은 판매 연락망이 조직되었다.

비록 이런 과정 중에서 혹 정부요원의 간섭을 받든가, 압수를 당하거나 벌금을 물기도 하지만, 어쨌든 성경의 진리는 이런 책들로 말미암아 멀리 퍼져간다. 그러나 이런 사역이 자발적인 것이기에 때때로 내용 면에서 부분적인 착오가 생기기도 한다.

2. 옛 것을 계승하여 새 것을 개척하다.

근래 들어 경제개방으로 말미암아 중국사회가 이전보다 활발해졌기 때문에, 앞으로 문서사역의 활동영역은 훨씬 넓어질 것이며 정부의 제한도 이전보다 크게 완화될 것이다. 그러나 그 때 가면 사람들이 황금만능주의의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국내외에서 생겨난 미신, 이단사설에 휩쓸릴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문서사역과 충성된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중국 교회가 진리의 토대 위에 기초를 세우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자.

과거와 현재를 막론하고 중국에서의 문서사역에 큰 공헌을 세운 선배들에게 무한한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 그들의 사역은 비유하자면, 마치 사막에 세워진 포도원 같다고 생각된다. 우리들은 그들의 충성을 본받아야 할 것이다.

해외에서 출판된 기독교서적의 상황

홍콩과 대만의 기독교 단체에서도 많은 기독교 문서들을 발행해왔다. 간체자(簡體字)로 인쇄된 전도지와 소책자, 신앙서적 및 성경참



기쁨으로 찬양하는 중국의 한 가정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10대에서 20대 초반의 여성들이다. 이들의 신앙성장을 위해 해외로부터 신앙서적, 소책자 성경 주석서 등이 전달되고 있다.

고서, 주석 등을 출판해 왔다. 일부는 번체자(繁體字)로 중국 내에 전달되었고 간체자로 된 서적도 2백여 종류나 된다. 성도들이 조금씩 중국에 직접 배달하기도 하고 우편으로 발송하기도 한 것이 점점 중국 전역으로 퍼져나가, 현재 성도들과 목사, 전도사 및 신학생들의 손에 전달되고 있다. 세관에 압수당한 적도 있지만, 다시 되찾아 올 수도 있다.

해외에서 기독교 서적을 출판할 경우에 보이는 세 가지 현상이 있다.

1. 널리 각광을 받고 있다.

이 서적들은 중국의 성도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다. 단지 성도 한 명만 읽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성도에게로 넘겨져 읽히게 되며, 혹은 몇 부분으로 찢어서 서로 교환하여 읽기도 한다. 그리고 다시 손으로 베껴쓰거나 새로 타자를 쳐서 재판하는 경우도 있다. 또는 책을 몇백, 몇천 권으로 복사하여 인쇄, 배포하기도 한다.

중국 성도들의 수요가 폭발적인 상황에서 이런 류의 서적이 전부 공급되기에는 여전히 막대한 양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심각한 부족상태를 조금이나마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성도들의 환영을 받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적 제한, 그리고 대륙 이외의 지역에서 출판된 서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관계로, 일부 목회자와 신학생들은 외국서적에 대해 여전히 경계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들 역시 중국 내의 신앙서적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해외로부터 전달되어 온 서적을 받기 원하지만, 아직도 사용하기를 꺼리는 상황이기도 하다. 실제로 일부 서적의 경우 중국 성도들의 필요에 적합치 않은 것도 있다.

2. 배포의 곤란

해외의 어떤 성도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국의 신앙서적에 쓰이는 인쇄비용을 현금했다. 그러나 서적을 배포하는 경로에 대해 미처 세심하게 신경을 쓰지 못했거나, 각 지역에 사는 성도들에게 연락이 미처 닿지 못했을 때, 또는 문서 발행처에 대해 의심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접촉을 거부함으로써 말미암아 대량의 서적들이 그냥 창고에 쌓이기도 한다. 양회를 통해서 출판할 수만 있다면 이런 문제들은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양회가 정부에게 출판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 간행은 전혀 불가능해진다. 결국 이런 상황들이 간접적으로 비공개적인 문

서사역을 부추긴 원인이 되어버렸다.

3. 판권의 혼란

적지않은 기독교 서적들이 비공개적으로 출판되어 나오기 때문에 판권이 혼란스러워졌다. 과거에 번역자와 간체자의 판권을 분명하게 구분하지 않고 일관성있게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번역자와 간체자의 판권이 각기 다른 단체에 귀속되는 현상이 생겨났다.

전쟁으로 인해 많은 판권 서류들이 분실되었기 때문에, 판권 문제를 처리하기도 곤란한 지경이다.

중국의 출판에 관한 법률이 아직 정착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개선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홍콩과 대만의 출판법규를 어떤 방식으로 잘 처리하여 그 상황에 알맞게 적용해야 할 것인지가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이다.

중국 기독교 문서사역의 전망

앞으로의 중국 기독교 문서사역의 발전을 위해 필자는 아래와 같은 몇 가지의 바람을 가지고 있다.

첫째, 중국, 홍콩, 대만 등의 중국 기독교 문서사역 종사자들간에 솔직한 교류가 더 많아지길 바란다. 서로의 경험과 자원 및 인재의 교류에 더욱 힘쓰고 서로 협력하고 지원해야 한다.

둘째, 앞으로 적극적으로 함께 노력하여 작가, 편집인, 편집디자인, 제작 발행인 및 영업 등 문서사역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특히 경영방면에 있어서는 자원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최대의 효과를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여행 및 사업을 목적으로 중국 현지에 가는 기회를 이용하여, 각 지역의 문서사역자와 연락을 취해 통신망을 구축하여 문서사역이 보다 심도 깊고 넓게 발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문서의 효과를 강조하여 경험있는 목회자들이 그들의 설교를 문서로 남겨두고 전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서 먼 곳에

떨어져 있는 성도들이나 미래의 성도들까지 영적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중국의 성도들을 권면하여 물심양면으로 문서사역을 지원하도록 한다. 전임사역자가 되든지, 헌금으로 후원하든지, 혹은 개인 및 교회들이 함께 중보기도를 하든지 간에 이 모든 일들은 문서사역으로 하여금 더욱 힘있게 복음을 전파하고, 지도자를 양육하고 성도들이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여섯째, 중국에는 농촌교회 및 지식수준이 낮은 교회들이 많다. 따라서 녹음테이프 사역도 매우 중요하므로, 각 지역의 방언으로 테이프를 제작해서 널리 배포해야 한다.

일곱째, 각종 통로를 이용하여 정부가 더욱 개방된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호소하여, 기독교서적의 공개적인 출판과 배포를 늘려야 한다.

여덟째, 홍콩이 1997년 중국에게 반환되는 시간이 가까워지고, 대만과 중국의 관계가 날로 밀접해가는 기회를 포착해서, 홍콩, 대만 두 곳의 문서사역의 기반 및 자원을 사용하여 중국의 문서사역을 잘 협력하고 발전시키길 소망한다. “삼호원칙(三互原則: 서로 존중하고 서로 간섭하지 않고 서로 존속되지 않는다-역자 주)” 원칙하에서도 서로 협조하고 도울 수 있는 여지는 많다.

각 지역의 문서사역자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앞으로의 문서사역을 항상 생각하고 합심 노력하여, 문서의 크나큰 영향력을 발휘하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진리의 간증이 충만한 중국 교회, 기독교 문화가 있는 중국 사회를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바란다. 복음이 중국 대지에 퍼져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자.

편집자주: 이 글은 복음증주협회에서 발간하는 《守望中華》 제119기 1994년 3/4월호 p. 2-5 “大陸基督教文字事工概況”를 번역한 것이다.

번역/ 차이나·본지 편집기자

S.O.S!

중국에 책이 필요하다

다음은 <中國與福音>에 실린 두 편의 글을 발췌, 정리하여 편집한 글이다. 중국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6천만 권의 성경과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600만 권의 성경 주석서에 대해서 대만 중국복음회(中國福音會) 회장 천레이(陳禮)의 글을 발췌하였다. 또한 중국선교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사역자들의 경험담을 <中國與福音>에서 편집한 내용을 실었다. 이 글의 한결같은 논점은 중국의 성도들에게 성경과 신앙서적이 긴급히 필요하다는 것이다.

- 편집자 주 -

6천만 권의 성경이 필요하다

중국에는 현재 6천만 명의 성도들이 있는데 성경은 불과 1천만 권밖에 없다. 이 간단한 숫자 통계로, 우리는 중국의 5천만 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자신의 성경을 갖고 있지 못한 상황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그들은 얼마나 심각한 영적빈곤 상태에 처해 있는 것인가?

이 숫자를 다시 살펴보자. 중국에 6천3백만 명의 크리스천이 있다는 것은 1992년 중국 중앙통계처에서 낸 통계이다. 대다수의 중국선교 사역자들이 이 숫자가 사실일 가능성이 많다고 인정한다. 천만 권의 성경이라는 것은 근래 10년 동안 중국 애덕기금회(愛德基金會)에서 인쇄한 숫자와 해외의 성도들이 갖고 들어간 숫자를 근거로 산출한 것이다.

1949년 이전에 발간된 성경은 그 후 갖은 핍박과 투쟁을 거쳐야만 했다. 특히 10년 간의 문화대혁명을 거쳤기 때문에 지금까지 남아 있는 성경이 있다면 아마 소수의 '골동품'일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삼자교회에서 발간하는 성경은 대부분 삼자 측 교인들만 소유할 것이고, 해외에서 들어간 성경은 아마 대부분 연해(沿海)지방에만 쌓여 있을 것이다. 그러

므로 중국의 광대한 농촌 가정교회, 특히 내륙에 있는 가정교회에 성경이 부족하다는 것은 더이상 말할 나위도 없다.

실제 상황은 어떠한가? 내몽고에 사는 한 사역자에 따르면, 그들은 평균 16명 당 한 권의 성경이 있다고 한다. 동북의 어떤 지역에서는 평균 200명 당 한 권의 성경밖에 없다고 한다. 상당히 큰 가정교회의 경우 그들에게 매년 15만 권의 성경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 안에서 매년 약 30만 명의 사람들이 새로 예수를 믿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우리 사역자들이 어떤 지역을 가든지 항상 듣는 말은 '우리에게 성경이 너무 시급하다'는 것이다.

성경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

중국 장시성(江西省)의 어떤 지역에, 50명의 사역자가 양육훈련을 받으러 올 예정이었다. 그런데 그 중 15명의 사역자들이 늦게 도착하였다. 비록 양육받는 것도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형제자매들을 위해 성경 연구서적을 몇 권 얻어가는 것이었다. 몇 번씩 사람에게 부탁하여 삼자교



중국 전역에서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만큼 성경의 수요도 엄청나다. 이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할 헌신된 용사가 필요하다. 사진은 요녕성의 한 삼자교회 주일예배 광경.



홍콩 C.C.L에서 발간하는 무디신학핸드북 등 성경주석서. 이 책들은 대부분 중국 교회 지도자들에게 전달된다.

회에 성경을 사러 갔지만 매번 거절을 당했다고 한다. 멀리 난징(南京)까지 가서 예약을 해도 구입하려면 3개월이나 걸린다.

후난성(湖南省)의 어떤 지역에 믿음이 아주 좋은 전도인이 있었다. 그는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갖고 있었으며,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믿는 사람이 점점 늘어났다. 믿는 이들이 수천 명 이상이 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읽을 성경이 없었다. 사역자들은 오로지 사복음서로만 설교할 수밖에 없어 바울서신을 소홀히 하는 오류가 생겼다. 이러한 오류가 생긴 배후의 이유는 성경공급의 심각한 부족 때문이다.

안후이성(安徽省)의 한 지역에는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받기를 원하였다. 따라서 성경의 수요도 급증했다. 그러나 삼자교회에 사람을 보내서 사온다 할지라도 그렇게 많은 양은 도저히 살 수가 없었다. 하는 수 없이 돈 1천 원(元)을 모아 직접 난징에 가서 무더기로 사오기로 하였다. 매번 순회전도 때마다 20여

권씩 갖고 가서 필요로 하는 성도에게 팔고 나면 수백 권의 성경은 금방 없어진다.

그러므로 성경을 구입할 기금이 마련되어야 하고, 기꺼이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있는 사람들도 필요하다. 체포당하고 구타당할 위험을 무릅쓰고, 성경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손에 전달할 수 있는 용사들이 필요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삼자교회에서 인쇄한 성경으로는 각 지역의 필요를 다 채울 수 없다. 더욱이 가정교회가 삼자교회와 접촉을 시도할 때는 상당한 위험이 뒤따른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큰 대가를 치루더라도 중국 남부지방에서 성경을 운송해 오거나, 혹은 인편으로 각종 통로를 이용하여 성경을 전 중국에 배포하기를 원한다. 해외에 있는 형제자매들도 힘 닿는 데까지 성경을 무료로 공급해 주고자 하지만, 때때로 미숙한 성경 전달자일 경우 체포되어 구타당하고 심지어 감금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중국 내부의 연결망이 약하다는 것이 지금 최대의 어려움이다.

성경이 중국에서 이미 합법적인 책으로 인정받긴 했지만 정부의 허락없이 자유자재로 인쇄하고 배포할 수 없다. 애德基금회(愛德基金會)에서도 무한정으로 성경을 인쇄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어떤 용감한 성도들은 정부의 허락 없이 신약성경을 자의로 인쇄하기도 한다. 종이질이 나쁘긴 하지만 1만 권 인쇄하는 데 1만원(인민폐, 한화 100만 원) 정도가 소요돼 아주 경제적이다. 그들은 나름대로의 성경전달 통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금세 성경을 다 보낼 수 있다.

믿을만한 사람들과 합작하여 인쇄하며, 인쇄가 완료되면 그것을 다른 현(縣)에 운송한다. 연락장소는 다른 현에 두고, 성경을 전달하는 사람과 연락이 닿으면 다시 딴 장소에서 접촉하기로 한다. 그들은 만난 후 이내 성경을 갖고 가버린다. 이렇게 할 때 안전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해외에서 모금하여 중국 내 지체들에게 성경전달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600만 권의 성경주석서(解經工具書)를 기다리고 있다

성경을 제외하고 중국 교회와 중국 복음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는 바로 전도인(傳道人: 사역자)이다.

6천만의 성도가 있는 중국 교회 안에 몇 개의 집회소(聚會點)가 있을까? 다시 말해서 몇 개의 유형교회가 있는 것일까? 각 집회소마다 약 100명의 성도가 있다고 치면 그것은 바로 60만 개의 집회소가 있다는 의미이다. 또 각 집회소마다 한 명의 전임 사역자나 파트타임 사역자가 있다고 친다면 전 중국 교회에 총 60만 명의 전도인이 있다는 얘기이다. 이 60만 명의 전도인들은 한 사람당 100명의 성도를 목회하는 일 이외에, 대외적인 전도사역이나 먼 지역에 가서 전도하는 일 등을 감당한다. 그들이 이런 사역들을 하려면 적어도 한 권의 성경과 약간의 참고도서가 필요하다. 전도인 한 명당 10권의 기본적인 참고도서가 필요하다고 할 때 총 600만 권의 참고도서가 필요한 것이다.

과거 10년 간 삼자교회에서 출간한 성경 주석서의 양은 많지 않다. 게다가 엄청난 양의 책을 필요로 하는 성도들에 비해 그 공급량은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중국의 많은 전도인들이 필자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 이제는 집을



나서기가 두렵다고 한다. 왜냐 하면 성도들에게 더이상 공급할 영적양식이 없기 때문이다. 성도들은 양육받기를 갈급해 하며, 더욱이 간단한 성경공부 교재와 신앙서적도 필요로 한다. 절실하게 필요한 이 600만 권의 참고도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단지 모를 뿐이다

물론 “6,000만의 성경과 600만권의 참고도서”라는 필요는 너무나 엄청난 숫자여서 단시일 내에 다 공급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과 자주 같이 지내면서 그들을 이해하는 한 형제로서, 필자는 이 절박한 상태를 해외의 지체들에게 알리지 않을 수 없다. 동시에, 같은 해외의 중국사역자의 입장에서 각지의 지체들에게 호소하고자 한다. 이것은 마땅히 우리가 책임져야 할 일이다. 사실 문제는,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그들의 필요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책임을 완수할 것인가? 첫째, “6,000만+600만”의 필요를 책임질 각오를 해야 한다. 둘째, 1996년 이전에 미화 3,000만 달러(1기분)를 모금하여 <대륙문서공급기금회(大陸文字供應基金會)>를 세우는 것이다. 셋째, 성경 및 신앙서적을 계획성 있게 인쇄, 출판하고 전달사역을 빈틈없이 도모하는 것이다.

오늘날은 더 이상 일을 할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 해야만 하는가 아닌가를 물을 때가 아니다. 이제는 일어나서 행동할 때이다.

위 글은 「中國與福音」 4期, pp. 3~4, “6,000萬+600萬 怎麼辦?”과 p. 16 “他們需要書”의 문장을 번역하여 발췌, 정리한 것으로 「中國福音會(CMI)」의 허락을 받은 것이다.

번역/ 차이나·본지 편집기자

선교자료 안내

■ 선교도서

1. 중국교회 얼마나 알고 있나?
(전문인협력기구) /3,000원
2. 중국선교-교회의 대장정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3,500원
3. 중국선교핸드북(두란노서원) /4,800원
4. 사회주의 중국에서의 교회와 국가
/1,500원
5. 중국어성경 번역소사 /1,500원
6. 神愛世人(中文) /2,000원
7. 만남 /2,000원
8. 전도중국어(漢語傳福音) /1,500원

■ 교재

1. 使徒信經, 主禱文 외 /2,000원
(Tape:1,000원)
2. 經文背誦 /1,500원
(Tape:1,000원)
3. 我的第一本聖經 /2,500원
(Tape:1,000원)
4. 사복음서 낭독 tape(12개) /12,000원
5. 信仰讀本 /7,000원
(Tape:1,600원)
6. 中國語신약성경 /10,000원
(tape:25개 한어병음 20,000)
7. 중한 주제별성경암송카드 / 700원
(60구절;네비게이트도 출판사)

위에 소개되지 않은 다른 교재들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방법: 중국어문선교회 사무실에 직접 오셔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지방인 경우 우편발송이 가능하오니 전화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여 주십시오(우편으로 신청하실 때는 전화번호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우편요금은 신청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담당: 김바울 간사
(전화: 594-8038, 535-4255)

효과적인 선교방법, 문서선교

석은혜

들어가는 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 선교는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 방법 중의 하나가 문서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문서선교이다. 문서를 통한 선교가 매우 효과적인 선교방법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아직까지 한국 교회는 이 사역의 중요성에 대해 크게 눈을 돌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최근들어 비디오, 오디오 등 매체의 발달로 인해 문서선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문화선교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문맹률이 높은 지역이나 어린이선교 등 사역의 대상에 따라서는 이런 매체들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최근 들어 부쩍 시청각자료를 활용하는 선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전통적인 의미의 문서선교는 결코 그 의의가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특별히 공산권이나 이슬람권 등 창의적 접근지역을 겨냥한 문서선교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선교방법 중의 하나이다.

이 글에서는 중국선교에 있어서 문서선교 상황을 알아보고 한국 교회가 어떻게 이 사역에 구체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중국선교에 있어서의 문서선교

중국은 문화대혁명(1966~1976) 기간에 모든 종교를 폄박했다. 중국 교회는 문이 단혔고,

성경책과 모든 기독교 문서는 몰수당하여 불태워졌다. 1979년 이후 중국이 개혁개방 정책을 시행하면서 중국 삼자교회가 문이 열리고, 가정교회들도 하나둘씩 집회를 가지기 시작했다.

최근 중국 내에서도 삼자 측에서 운영하는 애덕기금회를 통해 성경책이 계속해서 인쇄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성경책이 부족하다. 왜냐하면 인쇄되는 수가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의 증가를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어렵잡아 중국 기독교인 7,8명당 1권의 성경이 할당될 정도이다. 해외에서 비공식 통로를 통해 수백만 권의 성경이 들어갔지만 여전히 많은 성도가 성경책을 필요로 하고 있다.

또한 중국에서는 성경 이외에도 일반성도들이 읽을 수 있는 기독교 신앙서적이 많이 필요하다. 성경과 신앙서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국성도들은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단들에게 쉽게 넘어가고 있다. 게다가 중국 교회의 헌신된 젊은 일꾼들을 지도자로 훈련시키는 데 필요한, 그들에게 맞는 훈련교재도 심히 부족한 상태이다. 최근 어떤 지역에서는 각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활발히 세워지고 있는데, 그에 따라 주일학교 공과와 주일학교 교사용 참고서적이 요구되고 있기도 하다.

중국을 한두 번 다녀오신 분이 이 글을 읽는다면 의아하게 생각할 분도 있을 것이다. 왜냐

하면 자신이 다녀온 지역에서는 쉽게 성경책을 구할 수 있었고, 성경책이 부족하다고 듣지 못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 그분들이 다녀온 지역은 대부분 중국의 대도시이거나 관광지이기에 그런 곳에서는 성경책을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농촌지역에서는 아직도 성경책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이다. 어떤 사람은 성경책 한 권을 구하기 위해 몇 년을 기다려야 했고, 때로는 성경책을 구하기 위해 40여 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시내로 나와서 어렵게 구해가기도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중국성도들이 필요로 하는 문서를 어떻게 지혜롭게 공급할 수 있을까?

효과적인 사역을 위한 실제적인 제안

문서전달사역을 통해

중국에서 필요로 하는 중국어로 된 전도지와 기초성경공부 교재, 지도자 훈련 교재를 확보하여, 전달하는 일로 문서선교를 할 수 있다. 중국에 가보면 선교사들이 무엇보다도 필요로 하는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중국어 전도지와 중국어로 된 기초성경공부 교재를 포함한 여러 신앙서적들이다. 실제로 많은 선교사들이 이러한 문서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지만 현지에서 제작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기에 손으로 쓰거나 타자기로 쳐서 복사하여 임시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국에 단기 선교여행을 가거나 비즈니스 차 중국에 들어갈 때, 혹은 한국에 나와있는 중국인이나 조선족 교포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때 그들 편에 중국성도들이 필요로 하는 문서를 전달함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 줄 수 있고, 문서전달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 또한 해외에 나가 있는 중국 유학생이나 또는 중국 노동자들이 많이 있는 지역으로 중국 성경책과 신앙서적을 보내줄 수 있다.

중국에서 지도자 양육을 하고 있는 현지인 지도자가 마땅한 교재가 없어서 필자가 속해 있는 선교단체에 요청한 적이 있다. 그 책들은 중국어로 된 것으로 한국에서는 구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결국 대만과 홍콩 등지에서 200여만 원어치를 구입하여 전달사역을 전문으로 하는 선교단체의 힘을 빌어 전달한 적이 있다.

그후 중국 여행길에 우리 스태프들이 그 지도자를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는 그 책을 무사히 전달받았다면서 매우 감사해 했다. 그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문서를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가 요구한 책을 구입하려면 매회 200여만 원의 비용이 필요한데 이러한 책들을 구입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이 문서사역에 참여할 수 있다. 물론 이 사역은 전문 선교단체와 협력해야만 가능하다.

국제협력력을 통해

한국 교회는 중국 교회에 필요한 문서를 선정하여 번역, 출판해서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실정으로는 번역상의 어려움과 간체자로 인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한국어를 중국어로 번역할 수 있는 헌신된 고급인력은 극히 부족하다. 또한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간체자 컴퓨터 프로그램이 널리 보급되어 있지 않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한국 교회가 중국 교회에서 필요로 하는 문서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대만과 홍콩 등의 선교단체와 협력해야 한다. 현재 홍콩의 C.C.L. (福音證主協會)은 문서사역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단체로 간체자로 된 양질의 복음서적, 지도자 훈련용 서적들을 인쇄, 발행하고 있다. 특히 주일학교 교육을 위해 좋은 주일학교 교재를 만들어 공급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선교에 있어서 문서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C.C.L.과 협력하여 사역할 수 있다.

북경, 상해, 천진, 심양에 한중 직항노선이 생기기 전까지는 한국인들이 중국을 방문하려면 중국의 관문인 홍콩을 통해 들어가곤 했다. 선교하는 분들도 예외는 아니었는데 이들



중국어문선교회에서 발간하는 <중국을주께로>. 한국 교회의 올바른 중국선교를 위해 잡지형식을 띤 전문지로 발간되고 있다.

은 홍콩의 선교단체들을 통해, 특히 C.C.L.을 통해 필요한 문서들을 받아 중국에 전달하곤 하였다.

중국어문선교회는 금년 5월부터 C.C.L.과 협력하여 사실상 한국지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 홍콩에서 C.C.L.을 거쳐 중국으로 가져가던 책을 이제는 한국에서도 받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 C.C.L.에서 발간하는 책은 소책자로 된 전도지를 비롯하여 아주 두꺼운 중국어 성구 사전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본호 103쪽 자료실 참조).

C.C.L.에서 발간한 책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나 단기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중국에 도서를 전달하고자 하는 분들은 중국어문선교회에서 이를 공급받을 수 있다.

국내 협력을 통해

중국선교를 하려면 먼저 중국과 중국의 교회 상황을 알아야 한다. 선교상황을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한다면 선교에 앞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와 어떤 기도가 필요한지 더 확실해질 것이다. 따라서 선교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문서의 출판이 활발해져야 한다. 대체적으로 서증에 중국에 대한 일반서적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반해 중국 선교에 관한 서적은 너무나

적다.

중국선교에 관련된 잡지 형식의 전문지로는 격월간 『중국을 주께로』가 발행되고 있으며(중국어문선교회에서 현재 34호까지 발간), 중국복음선교회는 곧 『중국 교회와 선교』라는 전문연구지를 발간할 예정이다.

중국선교에 관련된 단행본은 『중국선교핸드북』을 비롯하여 겨우 10여 권에 불과하다. 중국어문선교회와 중국복음선교회는 서로 협력하여 도서출판 두란노를 통해 중국선교총서를 발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중국선교총서의 제1권으로 “대륙성도 간증집”의 원고가 이미 도서출판 두란노에 넘겨진 상태이다.

이러한 책자들을 통하여 중국과 중국 교회 상황을 한국 교회와 선교 지망자들에게 신속하고 바르게 전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중국을 주께로』를 발행하고 있는 중국어문선교회는 많은 재정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6년째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 한국 교회는 이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재정적으로 지원해 줌으로써 문서사역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이다.

문서사역자의 발굴과 육성을 통해

현재 우리 나라에는 문서선교를 위해 일하는

문서 전문사역자가 부족한 상태이다. 중국 선교를 위해 일하는 문서사역자는 더더욱 부족하다.

한국 교회는 문서선교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헌신된 일꾼이면서도 자질과 능력을 갖춘 문서사역자를 발굴하고 육성해야 한다. 글을 쓰는 작가, 편집인, 디자이너, 제작 발행인 등 전문인재를 길러내야 한다. 중국 현지에서 직접 필요한 문서들을 출판하기 위해 한국 유학생들이나 조선족들로 이루어진 번역팀, 편집팀, 출판팀을 육성해야 한다.

한국 교회는 현지 교회를 세우거나 현지에 가서 말씀사역을 하는 선교사들에 대해서는 비교적 높은 평가와 후원을 해 주고 있는 반면, 전문인 사역자나 국내사역자에 대한 후원에는 다소 인색한 편이다. 문서사역자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풀타임으로 사역을 하면서 문서발간을 위해 주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후원이 안 되고 있다.

문서선교는 단번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며 그 효과가 눈으로 보여지는 것도 아니기에 오랜 인내가 필요하다. 때문에 문서사역자를 육성하기 위해서도 오랜 인내를 가지고 육성하는 것이 요청된다.

현지에서의 직접 인쇄를 통해

중국 교회가 필요로 하는 문서를 지혜롭게 전달하여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이 전달사역에는 위험부담과 함께 과중한 경비부담, 지역편중 등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중국 현지에서 직접 출판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중국은 인쇄장비가 비교적 낙후되어 있고 지질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인쇄상태가 좋지 않다. 그러므로 좋은 인쇄장비를 중국으로 가져가서 그곳에서 인쇄, 출판하여 그들의 필요를 도울 수 있다.

현지에서 직접 인쇄가 가능하다면 홍콩에서 현재 발행되고 있는 책들 중에서 선별하여 홍콩의 관계기관의 판권을 얻어 인쇄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중국에서는 대학교 출판사나 일반 공공 인쇄소에서도 복음적인 도서들이 많이 출판되어 나오고 있다. ‘돈을 향해 달리고 있는’ 중국인들은 돈벌이만 되면 그것이 무엇이든 지 간에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중국에서 필요로 하는 책들이 현지에서 발간되어 그들의 필요가 채워지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맺는 말

우리는 앞서서 문서선교가 중국의 현 상황에 매우 절실하고도 효과적인 선교방법임을 살펴보면서 실제적인 몇 가지 제안을 하였다.

이 문서사역을 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교회가 이 사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제로 활발하게 이 문서출판에 참여하느냐 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여러 국내외 단체들과의 협력 또한 필수적이다.

우선 가장 현실적인 방법의 하나는 개교회마다 각기 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어려우므로 이미 국내외에서 이 문서사역을 심도있게 수행해 오는 단체들과 접촉하여 서로간에 관계점을 찾는 일이 아닐까 한다.

그런 연후에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확인하고 기도를 공유하며, 보다 지속적이고도 장기적인 선교계획에 한국 교회가 동참할 수 있게 된다면, 문서선교는 보다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한국 교회가 1990년 이후 앞다투어 개교회나 개교단별로 중국선교에 나서왔지만, 문서선교 방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데는 소홀하지 않았나 싶다. 이제라도 우리는 문서선교에 관심을 기울이고 거교회적으로 협력하여 재정적 투자와 인력육성에 힘써간다면, 중국선교는 이전보다 훨씬 활성화되고 보다 내실있는 열매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문서선교를 통한 한중교회 협력의 중요성

김성태

문서선교의 성경적 의의

초대교회의 선교사역에 있어서 문서선교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사도 바울은 선교 현지에 세워진 교회를 돌보고 교인들을 말씀으로 훈련시키는 데 있어서 문서매체를 사용하였고, 13권의 성경으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관적으로 섭리하시고 성령의 보호하심과 감동하시는 역사 가운데서 완성케 하셨다.

초대교회는 바울의 전통을 본받아서 교인들의 신앙과 간증을 문서로 표현하였으며, 복음의 대적자와 훼방자에게 문서로 신앙을 변증하는 등 선교의 중요한 도구로 사용하였다.

문서선교의 역사적 의의

로마가 기독교를 AD 375년에 국교로 받아들인 이후에, 교회는 급속하게 제도주의 과정을 걸어갔고 영적인 생명력을 많이 상실하였다. 중세시대에 하나님은 교회갱신의 도구로써 초기 수도원을 일으키셨다. 수도원은 성경을 연구하고 번역하며 경건한 신앙서적들을 문서로 발간함으로써 당대의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에 역할을 다 하였다. 수도원이 로마교회의 정치적인 옹호세력으로 전락하고 주관적 신비주의의 온상이 되어갈 때, 하나님은 개혁가들을 불러일으켜서 성경을 민족의 언어로 번역하여 보급하며, 경건한 신앙서적을 발간

케 하셨다. 특히 종교개혁가들의 개혁의 동기와 의지가 문서로 표현되어 전 구라파에 보급이 됨으로써 개신교회가 탄생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이후에 교회역사에 있어서 문서는 교회를 설립하고 성장케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속에서 확장시키는 데 있어 주요한 도구로 사용이 되었다. 근대 개신교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윌리엄 캐리는 선교를 촉구하기 위하여 문서로 선교의 당위성을 피력하였고, 인도에서의 사역기간 중 23개의 방언들로 신약 성경을 번역하고, 각종 신앙서적들을 발간하여 인도교회를 설립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또한 근대 신앙 선교운동의 시발자로 불리우는 OMF의 창시자 허드슨 테일러도 1865년 CIM(China Inland Mission)을 창설하면서 자신의 중국 사역의 신학적 동기와 중국 내지선교 사역의 긴급성을 문서로 호소하였으며, 수천의 젊은이들이 선교사로서 중국대륙에서 사역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렇듯이 문서는 선교역사에 있어서도 선교비전을 확산하며 선교의 필요성을 교회에 인식시키는 일에 큰 기여를 한 것이다.

중국 교회의 성장과 문서선교와의 관계

중국이 1979년 이후 등소평에 의해 외부세계

에 문호를 개방하기 이전에도, 지하에 숨어 있던 가정교회가 홍콩이나 대만, 기타 외부 나라들을 통해 신앙서적들을 조금이나마 전달받았던 것이 가정교회가 존속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개방 이후에 중국은 종교에 대해 유화정책을 펼쳐, 국가교회인 삼자애국교회와 지하에 숨어 있던 가정교회가 성장하는 데 좋은 토양을 마련하였다. 경제개방의 가속화와 함께 이데올로기가 쇠퇴하면서 가치관의 아노미현상이 일어나는 가운데, 중국정부는 삼자애국교회로 하여금 통일전선 정책의 범주하에서 성경과 찬송가를 발간케 하였고, 지금까지 중국 기독교협회 출판사나 각 지방의 삼자애국교회협회 출판사 이름으로 소량이지만 꾸준히 신앙서적과 신학서적들을 발간케 하였다.

특기할 만한 일은 외부의 지원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애덕기금회(愛德基金會)를 만들고 WCC 산하 세계성서공회연합회(UBS)와 제휴하여, 남경에 6백만 달러의 기금으로 인쇄소를 설립한 것이다. UBS는 1990년도까지

200만 권의 성경을 발간했음을 공표하였는데, 최근에는 700만 권의 성경을 발간하였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교회를 통한 문서출판이 삼자애국교회 교인들을 신앙적으로 성장시키고 또한 간접적으로 가정교회에도 도움을 주었다.

중국의 가정교회는 외부에서의 문서선교 사역으로부터, 생존에 있어서만 아니라 교회가 성장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을 받았다. 홍콩, 대만, 미국, 기타 나라들에 기반을 둔 전문적인 문서선교 단체나 중국선교 단체들이 엄청난 분량의 신앙서적들을 중국대륙에 유입하였고, 지금까지 중국 교회가 성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이다.

국가 교회에서 출판된 성경은 관주가 없으며, 초창기 배부에 문제가 있었다. 국가 교회 출판사들을 통해 발간된 신앙서적이나 신학서적들은 대개 초보적인 수준의 것이며, 보다 깊은 단계의 영적 성숙을 위한 문서들은 지극히 제한되어 있고 아직 출판되지도 않았다. 외부의 선교단체 중 C.C.L.이나 New Life



해외로부터 유입된 성경 및 각종 기독교 문서들은 중국 교회가 성장하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였다. 사진은 후난성(湖南省)의 한 가정교회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모습.

Literature 등에서는 중국의 간자체로 된 신앙 서적들을 중국 현지의 상황에 맞추어 다양하게 개발하여 출판하였으며, 또한 양질의 주석 성경 또는 성경공부용의 성경 등을 출판하여 중국 교회 성장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외부에서 들어가는 문서들은 중국 안에서 가정교회 교인들에게 전달되는 데 큰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중국정부의 통제와 핍박뿐 아니라 중국 가정교회 교인들이 대개 시골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문맹이나 이해의 어려움 등으로 좋은 서적들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중국의 가정교회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적절한 신앙교재들을 만들기 위해서 국내나 국외의 기반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신앙 서적들을 출판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지극히 제한적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어느 정도 공식적인 숫자로서 중국의 개신 교인 수는 6천만을 넘어서고 있다. 중국정부는 여전히 외부에서의 종교서적 등이 중국에 들어오는 것을 경계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색출작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중국정부의 통제는 허점이 많으며 상업적 목적으로 정부 소유의 국가 출판사가 수입을 위해서, 이전에 불법서적으로 금서목록에 올라와 있던 서적들을 발간하는 경우가 최근에 목격되고 있기까지 하다.

중국 교회 성장에 있어서 문서사역의 중요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중국 교회는 삼자교회이든 가정교회이든 신앙서적과 신학서적의 계속적인 증가를 요구하고 있으며, 문서가 보급되는 데 있어서의 장애물들이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다. 특히 중국정부가 사상적인 면에 있어서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여전히 고수하고 있으므로, 문서선교 사역은 공식적으로든지 비공식적으로든지 제한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중국에서의 제한된 상황에서, 교육의 부족으로 인한 신앙과 신학의 혼란과 내외적인 이단의 발흥과 지도자 자질향상을 위해서는 문서선교 사역은 필히 강화되



베이징 시내의 큰 서점. 최근에는 국가 소유의 출판사를 통해 기독교관련 서적들이 출판되기도 한다. 그러나 중국정부는 기독교 문서에 대해 여전히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정책적 제한을 가하고 있다.

어야 하고 이 부분에 한국 교회가 적극 참여하
여야 하는 것이다.

한국 교회의 문서선교 사역의 필요성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중국선교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는 등 여전히 문제를 안고 있지만 급속한 성장을 하고 있다. 중국에서 활동하는 대개의 선교사들이 언어를 배우며 생활을 익히는 견습 선교사의 단계에 놓여 있다. 하지만 몇 사람의 선교사들은 문서선교 사역을 수행할 만큼 팔목할 만한 언어수준을 가지고 있으며 이미 문서선교사역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 조선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서선교 사역은 제한되어 있지만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한국 교회의 중국선교에 있어서의 문서선교는 소수민족들을 대상으로 한 성경번역과 출판 및 보급, 그리고 중국 교회의 상황에 적절한 양질의 신앙서적들을 발간하는 데 있어서 더욱 발전되고 강화되어야 한다. 한국 교회



다년간 문서선교의 경험을 쌓아 온 해외의 전문 문서선교단체에 앞으로 한국의 선교사가 파송되어 함께 문서사역에 참여하는 것도 필요하리라 본다. 사진은 홍콩 C.C.L. 사무실 내부.

는 또한 외부의 선교단체들이 중국선교에 있어서 각종 양질의 신앙서적들과 주석성경 등을 발간한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저들의 문서선교 사역이 세계 각국의 성도들을 통한 헌금으로 이루어진 것을 깊이 인식하여 이 일에 한국 교회도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최근 홍콩을 중심으로 한 문서선교 단체들이 서구교회의 선교헌금 감소로 인하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끄러운 것은 한국 교회는 세계 교회의 일원으로 이러한 중국대륙을 향한 전문적인 문서선교사역에 별로 참여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그동안 몇 선교단체나 개인들이 중심이 되어 위에 언급된 문서선교단체와 연관하여 대륙에 문서를 배부하는 일에 힘을 써 왔다. 필자가 바라는 바는 한국 교회가 이 일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한국 교회의 문서선교 사역이 세 가지 방향으로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문서선교 단체들의 문서선교 사역을 재정적으로 인력적으로 적극 도우며 이 일에 직접 참여하는 일이다.

둘째는 한국 교회의 중국선교가 문서선교 사역을 직접 개발하여 활용할 수 있는 단계로

발전하는 것이다.

셋째는 문서선교 단체들을 통해 발간된 문서들을 직접 대륙에 보급하는 일에 한국 교회가 적극 참여하는 일이다.

문서선교 사역의 구체적인 전략 제언

위에서 제시한 세 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본 강사는 보다 세부적인 문서선교 사역의 전략들을 제언한다. 이것을 통해서 한국 교회의 문서선교 사역 개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첫째는 C.C.L.이나 New Life Literature같은 전문적인 문서선교 단체에 선교사를 파송하여 함께 사역에 참여하는 일이다.

둘째는 전문적인 문서선교 단체들이 대륙 선교를 위한 신앙서적과 신학서적 또는 성경을 발간하는 것에 조직적인 차원에서 재정적으로 적극 참여하며 협력하는 일이다.

셋째는 발간된 문서들을 지금까지 서구인들이나 홍콩계 중국인, 대만인들이 대륙에 보급하는 데 힘을 써 왔는데, 한국 교회가 이 일에 경험을 가진 전문적인 선교단체들과 연합하여 적극 참여하는 일이다.

넷째는 중국 안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들의 문서선교 사역의 비전을 더욱 격려하고 구체적으로 활성화하여서 조직적으로 체계있게 연합적인 차원에서 한국 교회가 참여하는 일이다.

다섯째는 국내에서도 중국선교를 위한 전문적인 문서선교 기구를 활성화하여 한국 교회의 중국선교에 있어 문서분야에 기여하게 한다.

여섯째는 중국기독교출판사, 삼자애국출판사, 정부소유의 신화출판사 등과 공식적으로 접촉하여 신앙서적을 발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끊임없이 탐색하여 이것을 선교적인 차원에서 적극 개발하는 일이다.

중국 문서사역을 위한 하나됨의 몸짓

C.C.L.사역자 초청 중국선교 세미나

권수영

들어가는 말

오늘날의 중국선교는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열정 못지 않게 전세계적인 협력이 요청되고 있다.

한국 교회의 중국에 대한 열정은 많은 이들이 동감하고 인정하는 사실이다. 지리적으로 가깝고 문화적으로도 동질감이 많은 한국이 중국선교의 책임자라는 이야기도 일리있는 말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의 중국선교가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즉흥적이라는 혹자의 의견도 수용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다른 나라의 사역자들과 선교단체들이 이미 경험한 것을 통해, 배울 것은 배우고 잘못된 시행착오는 버리려는 신중함이 필요한 때인 것 같다. 해외 선교단체들의 달란트와 우리들의 달란트가 효과적으로 합쳐질 때 거기서 더 풍성한 열매가 맺힐 것이다.

중국어문선교회는 그동안 중국학을 전공한 동역자들이 중심이 되어 연구사역, 문서사역과 중국어 훈련사역을 해왔다. 그 중에서도 특히 문서사역에 힘을 기울여왔는데, 지금까지는 중국선교의 필요성과 전략을 한국 교회에 알리는 <중국을주께로> 및 중국선교에 관련된 단행본을 출판하는 국내 사역에만 치중해

온 것이 사실이다. 중국 교회와 성도들이 필요로 하는 신앙 및 신학서적을 중역하여 출판할 계획도 있으나 전문인력, 재정의 부족으로 아직까지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던 차에 다량의 신학서적들을 필요로 하는 중국 교회 지도자의 간절한 요청을 받고 대만에서 신학서적을 구입, 그에게 전달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를 계기로 실질적인 중국문서 전달사역의 필요를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한국에는 1년에만도 수차례씩 중국을 드나드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는데, 이들을 통해 중국 교회가 원하는 책들을 가져갈 수만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중국 교회의 필요에 부응하면서 보다 많은 이들을 선교에 동참시킬 수 있는 선교방법이 될 것이다. 단지 튼튼한 팔과 담대한 믿음만 있으면 누구라도 쉽게 할 수 있는 선교가 아닌가?

중국어문선교회는 전부터 관련을 맺고 있던 홍콩 C.C.L.(福音證主協會)에 이러한 뜻을 알렸다. C.C.L.은 홍콩에서 유명한 기독교 출판단체로서, 이미 20여 년 전부터 중국복음사역부를 통해 많은 종류의 기독교 서적 등을 출간, 중국에 전달해온 단체이다. 그들이 이미 출판한 문서들을 중국어문선교회가 계속적으

로 공급받을 수만 있다면, 한국으로 요청되는 문서의 필요들을 어느 정도는 채울 수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들 역시 한국이 중국으로 문서를 전달할 수 있는 적합한 통로임을 알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왔다. 우선 직접 문서전달 사역을 하고 있는 C.C.L.의 사역자를 한국에 보내어 세미나를 통해 중국 교회의 필요와 문서선교의 중요성을 인식시키자는 결론이 맺어졌다. 또한 이것을 통해 한국 교회가 구체적으로 문서 사역에 동참하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한국-홍콩 문서선교 협력의 결과를 낳은 세미나

지난 4월 28일, 29일 양일 간 중국어문서선교회가 주관하고 중국복음선교회, 햇불선교회가 주최한 「현지의 필요에 부응하는 중국선교」라는 주제의 세미나가 한성중화교회에서 열렸다.

강사로는 C.C.L. 미국지부 사역자 진민란(陳敏蘭) 목사와, 홍콩 C.C.L.의 발전부장(우

리 식으로 말하면 홍보부장)인 축민충(祝民忠) 부장, 그리고 김성태 교수(총신대대학원 선교학)가 참여하였다. 진 목사는 중국 상하이 태생으로 1986년 미국으로 이민하여 현재 C.C.L.미국지부를 기반으로 중국을 드나들며 지도자훈련 및 문서 전달사역을 하고 있다(본지 34호 진민란 목사 인터뷰 참조). 축 부장은 싱가포르 출생으로 10년째 홍콩 C.C.L.에서 홍보 및 문서 전달사역을 수행하고 있다. 김 교수 역시 중국 및 북한선교 전문가로 수차례 중국을 방문했고, 현재는 오픈도어선교회 한국지부 대표로서 사역하고 있다. 오픈도어선교회는 과거 40여 년 간 중국 등 공산권과 모슬렘 지역에 성경을 전달해온 국제적인 선교 단체이다.

선교 보안상의 이유로 28일은 교단, 교회의 목회자와 선교단체 책임자들이 참석하는 비공개 세미나로 진행되었고, 29일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공개세미나로 진행되었다. 다음은 이들 간의 세미나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요약한 것이다.



중국 교회의 필요와 문서선교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려는 목적으로 열린 중국선교 세미나.

진 목사는 「중국 교회의 필요와 우리의 대응」이라는 강의를 통해, 195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기독교에 대한 중국정부의 정책은 비판과 억압이라고 주장하였다. 정부에 의해 신앙이 통제되면서 성경, 신앙서적 등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현재 삼자 측에서 성경을 인쇄하고 해외에서 다수의 성경 및 신앙서적이 들어가고는 있지만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오늘날 중국 교회는 성경은 물론 성도들을 위한 신앙서적, 지도자용 신학교재, 그리고 어린이 주일학교 교재 등을 필요로 하며, 그 외에 문화적, 신앙적 수준이 낮은 지도자에 대한 체계적인 훈련도 시급하다고 하였다.

위와 같은 중국 교회의 필요에 대해 해외교회는, 우선 중국사회의 실정을 연구, 조사하고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처럼 압제와 제재가 심한 나라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인지를 잘 연구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현지의 사역자와 성도들에게 피해와 위험을 끼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해외교회는 경륜있는 현지교회와 성도들의 보조역할을 기꺼이 감당할 자세가 되어야 한다. 그들을 이끌고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지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또 해외의 교파 및 교단을 이식시킴으로써 교단 투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했다.

축 부장은 「C.C.L. 사역과 국제협력」이라는 강의를 통해 C.C.L.의 여러 가지 사역을 소개했다. C.C.L.은 1971년부터 각종 기독교 서적들을 출판하여 중국인들(대륙 이외의 홍콩, 대만,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에 사는 화교들)의 영적 필요를 채워온 문서기관이다. 그러던 중 1979년부터 대륙복음사역부를 신설하여 13억 중국 영혼을 대상으로 한 문서사역 및 기타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이곳에서 발간되는 간체자 출판물은 성경 및 소책자와 기타 신앙서적, 성경주석 등이며 어린이 주일학교 교재도 발간하고 있다. 이 책들은 이미 중국의 성도들에게도 널리 알려져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한다. 이 외에 말씀, 성경



C.C.L.과 국제협력」에 대해 강의하고 있는 축민총 부장. 그는 홍콩 C.C.L.에서 10년 째 사역 중이며, 40여 차례에 걸쳐 중국에 성경과 신앙서적을 전달해 왔다.

공부 등의 내용이 들어있는 카세트테이프를 제작하여 카세트녹음기와 함께 공급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문맹의 중국성도들을 위한 것이다. 또한 양육센터를 설립하여 사역자 훈련을 중점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C.C.L.은 해외의 성도들을 격려해서 더 많은 신앙서적을 중국에 전달해주시기를 원하고 있으며, 출판사역을 위해 각 교회나 성도들이 재정적인 후원을 해주기도 바란다. 그래서 더 많은 신앙서적을 발간하여 공급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이다. 또한 중국어 구사가 가능한 목회자, 선교사들이 중국에 가서 직접 양육사역에 참여할 것도 요망하고 있다.

축 부장은 또한 「문서사역의 중요성과 그 전략」이라는 강의를 통해, 문서사역의 장점과 구체적인 전략을 밝혔다. 문서는 중국 전지역으로 광범위하게 배포되며, 오래 남길 수 있고, 목회자가 부족한 중국의 실정에서 목회자의 설교나 양육을 대신할 수 있는 좋은 매개체

가 된다는 것이다. 특히 성도들의 신앙적 기초가 튼튼하지 못해 이단사설에 미혹되기 쉬운데, 바로 이럴 때에 신앙서적은 그들에게 옳은 길잡이가 되어준다. 지도자들은 이런 서적들을 자습하여 그것으로 성경강해나 설교를 준비하여 양떼들에게 풍성한 꼴을 먹일 수 있다.

일단 문서들이 세관을 통관하기만 하면 현지에서 문서를 배포하는 것은 제한을 받지 않고 눈에 잘 띄지 않아 위험도가 낮다고 한다. 중국 내에서 우편발송을 하면 검색당할 위험이 없기 때문이다. 전담자를 통해 전달하기도 하지만 대개는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 친척방문, 출장, 심지어는 신혼여행 등의 기회를 통해 중국에 서적들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해외에서 중국으로 서적을 보내는 것 이외에 중국에서 직접 인쇄를 하는 방법도 있다. 현지 인쇄소와 합작하거나 개인적으로 시설을 갖춰놓고 복사해서 돌려보기도 한다. 심지어 손으로 베껴쓰는 이들도 있다고 한다. 현지에서 인쇄를 하게 되면 제작비 등이 훨씬 절감되기 때문에 더 많은 책들을 보급할 수 있다며, 앞으로 한국에서도 더 연구해서 현지 인쇄를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언급하였다.

맺는 말

과거에도 위와 같은 중국 교회의 필요를 알고 문서를 구하여 중국으로 가져가려고 노력해 온 한국의 크리스천들이 있어왔다. 짐 속에 숨겨가다 세관에서 빼앗기기도 하고, 오히려 세관에게 한 권을 선물(?)하여 무사히 넘겼다는 이도 있다. 지금도 많은 이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또 팔이 빠지도록 아픈 고통에도 불구하고 중국 성도들의 양식을 전달하고자 한다.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C.C.L.은 자신들이 발간하는 중문(간체자) 기독교 서적들을 중국어문선교회에 지속적으로 공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앞으로 중국에 문서를 전달하고자 하는 교회나 단체, 개인들은 중국어문선교회에 비치된 문서들을 갖고 중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제까지는 간체자 문서를 구하기 위해 홍

콩의 C.C.L. 등을 방문하여 문서를 갖고 중국에 들어간 한국 교인들이 많았다고 한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이 현금을 내지 않고 그냥 책만 들고 갔다는 강사들의 말은 듣는 이들을 부끄럽게 했다. 책을 가져간 이들이 내는 현금은 다시 책을 발간할 비용으로 쓰여지므로, 사역의 확장을 위해 현금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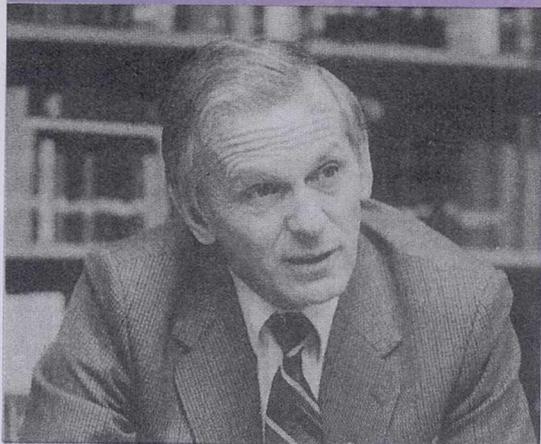
단기선교나 출장, 여행을 목적으로 중국에 들어가게 될 때 중국선교에 동참하는 심정으로 이 서적들을 갖고 들어가, 애타게 기다리는 중국의 성도들에게 전해줄 때 느끼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저는 아주 외진 지방에서 4개 교회를 맡고있는 전도사입니다. 에스겔 3장 말씀에 전도자는 파수꾼이라 했지만, 이 많은 우리들의 파수꾼이 될 능력이 부족합니다. 여러분께 도움을 구합니다. 성경주석책을 보내주세요. 또 훌륭한 설교방법이 적힌 책이 있다면 보내주세요. 여러분과 주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와 이곳에 있는 천여명의 갈급한 신도들을 도와주세요.”
-안후이성(安徽省)의 한 목자가 보내온 편지-

“저는 중국에 사는 한 학생입니다. 그리스도인이구요. 친구집에 갔다가 우연히 책장에서 <당신은 왜 믿어야만 하는가>라는 책을 발견하여, 마치 보물을 얻은 듯 갈급한 심정으로 금세 읽었습니다.

이 책은 정말 좋은 책이에요. 신앙성장과 성경공부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데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 책을 더 보내주실 수는 없습니까?”

-닝시야자치구(寧夏自治區)에서 한 중학생이 보내온 편지-



하나님의 거룩한 밀수꾼 브라더 앤드류

전 세계에 '성경 밀수꾼'으로 잘 알려진 브라더 앤드류(Brother Andrew)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퇴해야 할 나이에 오히려 더욱 분주히 지내고 있다.

40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의 밀수꾼'이란 별명이 붙은 이 화려한 사람은 달을 제외한 전 세계의 구석구석에 성경을 전달해 왔다. 브라더 앤드류는 지난 해로 66세가 되었고, 그의 사역인 오픈 도어(Open door)선교회는 40주년을 맞게 되었다.

그의 나이 또래 대부분이 은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브라더 앤드류는 고삐를 조금도 늦추지 않는다. 실로 그가 새로운 도전들을 받을 때마다 그의 스케줄은 이전보다 더욱 분주해진다. 그는 지금도 나이지리아, 사우디 아라비아, 레바논, 파키스탄, 미국 등을 3개월 동안에 방문하는 열성을 가지고 있다.

동유럽과 소비에트공화국에서 공산주의가 몰락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오픈도어선교회 사역이 사라졌다고 생각하지만, 또다른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그는 믿고 있다.

브라더 앤드류가 젊어서 폴란드와 동독의 국경을 몰래 넘나들 때보다 오픈도어선교회 사역은 훨씬 확대되고 다양해진 것이 사실이다. 공산주의가 사라진 후부터 지금까지 그의 사역의 영역이 변해왔다.

브라더 앤드류와 그의 동역자들은 요즈음 중국, 쿠바, 베트남, 페루, 사우디 아라비아 등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 그들

은 세계에서 영적 전쟁이 가장 심한 지역에서, 성경과 기독교 서적을 보급하며 목회자들을 위한 훈련 세미나를 통하여 펍박받는 현지인들을 격려하고 있다.

오픈도어선교회가 복음이 제한된 지역에서 사역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실제로는 중국과 모슬렘 세계에 사역을 집중시키고 있다. 앤드류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가장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나라가 바로 이러한 국가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1994년에 오픈도어선교회는 20만 권의 성경책과 40만 권의 기독교 서적을 중국에 전달했으며, 수천 명의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참석하는 훈련 세미나를 비밀리에 수십 번이나 개최하였다. 브라더 앤드류는 중국을 선교 최우선 대상 지역으로 삼아왔는데, 그 이유는 세계의 비기독교인들 중 3분의 1이 그곳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중국에서는 기독교 역사상 전례 없는 큰 부흥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고 있으며, 1949년의 공산화 이후로 중국의 기독교 인구가 수백만 명에서 육천만 명으로 성장했다고 그는 말한다.

중국의 목회자들과 전도자들은 지금도 계속 위협받거나 체포되고 있으며, 가정교회들이 계속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그들은 성경을 가져다 달라고 애원하고 있다고 덧붙여 말한다.

오픈도어선교회는 중국의 어린이들을 위하여 성경 이야기책을 발간해 왔다. 이러한 책들은 18세 미만의 소년 소년들이 5억이나 되는 나라, 특히 그들에게 기독교를 가르치는 것이 불법인 중국에서 아주 유용할 것이다.

어린이 성경을 출판하기에 앞서 중국의 어느 한 가정에 어린이 성경 초안을 보여주려고 가지고 갔는데, 갑자기 성경이 사라지고 말았다. 마침내 그 초안을 어느 방에서 발견할 수 있었는데, 6살된 어린이의 손에 쥐어져 읽혀지고 있었던 것이다. 오픈도어선교회의 한 사역자는 "그 소년은 성경을 계속 넘기면서 돌려주지 않았다. 그의 어머니에게 성경 이야기들을 읽어 달라고 애원하는 것을 보았다"고 전하였다. 이튿날 그 소년의 어머니가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내 아이들은 도무지 자려고 하지 않아요. 그저 한 페이지 한 페이지 계속 읽어 달라고 조르고 있어요." 그 사역자가 작별 인사를 하려고 할 때 소년은 이야기 성경책을 놓고 가라고 울면서 간청했다. 그러나 그 책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주어야 하는 건본이었기 때문에 소년의 간청을 들어줄 수 없었다고 한다.

오픈도어선교회는 현재 10만 권의 어린이 성경을 인쇄하여 나누어 주려고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다.

전화시대에 돌입한 중국, 그러나...

전화설치, 전화비의 횡포에 시달리는 중국인들

중국 이 급속히 발전하는 전화시대에 진입했지만, 아직까지도 전화는 소비자들이 호소하는 10대 문제의 리스트에 올라가 있다.

상하이의 장거리 전신전화국과 물가국(物價局)이 42개 3등급 이상 호텔을 대상으로 통신 물가표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호텔들이 손님으로부터 전화 비용을 더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수법은 손님의 장거리 전화 서비스 비용을 많이 거두는 것이다. 물가국에 의하면, 휴일이나 야간 9시에서 다음날 아침 7시까지의 장거리 전화는 50% 할인이 된다. 그러나 호텔은 여전히 할인되지 않은 요금을 받는다. 또 호텔 측은 받아서는 안될 팩시밀리 재료비까지 받고 있으며, 손님들이 시내 무료전화를 거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비용을 받고 있다.

각 도시의 시민들은 호텔의 손님은 아니지만 전화로 인해 또 다른 종류의 고통을 받고 있다. 그것은 전화를 처음 설치할 때 드는 엄청난 비용 때문이다. 10년 전 상하이에서 전화 1대 설치할 때 드는 비용은 인민폐로 300원(35 US \$)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무려 3천 원(350 US \$)이나 든다. 현재 광주는 3천 원, 베이징은 5천 원, 심천은 4천 원이다. 그러나 심천과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홍콩은 흥

콩달러로 600원(75 US \$)에 불과하다.

오랫동안 일본에서 살다가 지금은 상하이의 한 일본회사에 근무하는 장중카이(姜中凱) 씨는 아주주간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도쿄의 생활비가 엄청나게 비싸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잘 알려있지만, 전화를 설치하는 데는 7, 8만엔 밖에 들지 않는다. 전화를 더 이상 갖고 싶지 않을 때는 6만엔을 주고 대리인에게 전화채권을 팔 수도 있다.”

즉 인민폐 1, 2천 원에 상당하는 1, 2만엔의 가격으로 도쿄에서 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그는, “중국 내에서 전화국이 이렇게 비싼 설치비를 받는 것이 국가의 물가정책에 부합하는 것인가? 이건 분명히 폭리를 취하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인가?”라며 분개했다.

전화설치비 문제로 불평하는 예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수천 원을 설치비로 전화국에 내고 아무리 오랜 시간을 기다려도 전혀 소식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베이징에 사는 왕(王)모 씨는 89년 연말에 설치비 80원을 낸 이후, 92년 8월에 다시 5천 원의 설치비를 냈지만 93년 연말까지 아무 결과 없었다. 최후의 수단으로 그는 소비자협회에 고발을 했다. 소비자협회에서 직접 나서

서 교섭한 끝에 94년 4월, 드디어 전화를 사용할 수 있었다. 장장 4년 3개월이나 기다린 것이다.

그러나 왕 씨는 그나마 행운아인 경우이다. 두(杜)모 씨는 90년 12월에 처음 설치비를 낸 후 도처로 뛰어다니며 2년 반을 간절히 기다렸지만 전화는 설치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병이 나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장시성(江西省)에 사는 탕(湯)모 씨는 전화국에 3천5백 원의 설치비를 냈는데, 영수증을 받아보니 그 위에 다음과 같은 위협적인 글이 적혀 있었다.

“1년 내에 전화를 설치해 달라고 독촉하는 것을 금지한다!”

상하이시 전화국은 3천 원의 설치비를 낸 가입자에게, “만약 전화를 빨리 설치하고 싶으면 4천 원을 더 내라.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게 되고, 3천 원을 낸 사람들처럼 마냥 기다릴 필요가 없게 된다.”고 말했다. 한 가입자가, 왜 처음부터 7천 원을 내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어리숙하게 묻자 전화국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똑똑한 가입자는 “싸움에서는 적을 속여도 좋다”라는 말을 이해한다.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핏에 넘어가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며, 일단 핏에 넘어간다면 전화국이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어야 한다.

이같은 문제의식은 한두 사람뿐 아니라 모두들 동감하고 있다. 이 정도의 어마어마한 전화 설치비는 국민들이 입고 먹는 것을 아끼고 절약해서 마련한 것이다. 은행에 두면 이자라도 나오지만, 전화국에 돈을 내면 아예 감감 무소식이니 요즘같이 인플레이가 높은 시대에 이것은 정말로 큰 손실이라 아니할 수 없다.

전화국에서 시간을 질질 끌면서 전화를 설치해주지 않는 것이 전화를 처음 설치하는 소비자들이 당하는 괴로움이라면, 가까스로 전화가 설치된 일반 가정에서는 실제와 전혀 다른 전화요금 청구서 때문에 곤욕을 치른다.

베이징에 사는 전화 가입자 임(林)모 씨의 경우, 92년 12월 이후 3개월 동안 매월 평균 전화요금에 6백 원 이상 나왔다. 조사를 해보



서비스 정신이 결핍된 중국의 전화 시스템. 소비자에게 비난받을 수 밖에 없다.

니 지난 달 100통의 국내 장거리전화와 8통의 국제전화는 그녀의 집에서 건 것이 아니었다. 녀 달째가 되어 그녀는 일부러 한 통의 전화도 걸지 않았다. 그래도 여전히 전화요금 청구서가 날라왔고 그 요금은 59원이나 되었다.

쓰촨성(四川省) 우한(武漢)에 사는 가입자 주(周)모 씨는 전화국에 신고했다. 국내, 국제를 막론하고 장거리 전화라고는 한 통도 건적이 없는데도 청구서에는 국제전화 1통과 국내 장거리전화 18통의 비용을 내라고 적혀 있었다.

만약 중국에서 누군가가 민용(民用) 전기나 공업용 전기를 몰래 도용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전기사업국에서 비상을 걸고 전문가를 보내 조사하게 마련이다. 이렇게 하면 대부분의 사건의 진상이 밝혀진다. 가입자의 장거리 전화가 다른 사람에 의해 몰래 걸려진다면, 어떤 경우라도 전기를 몰래 도용하는 것을 조사하는 것보다 조사하기가 훨씬 쉽다. 모든 전화의 송수신이 기록되기 때문이다.

앞에서 예로 들었던 주모 씨의 경우 전화가 몰래 도용된 것 같아 전화국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어떤 병원이 선로 중간에서 간계를 부렸음이 쉽게 밝혀졌다. 또 어느 교수 집의 전화



상하이 전화국은 소비자의 권리를 무시한 채 시민들에게 전화로 인한 고통을 겪게 한다.

요금이 엄청나게 나와 전화국에서 조사에 나섰는데, 알고보니 이웃집에서 똑같은 형의 무선전화기를 사용하여 교수 집의 전화선으로 장거리 전화를 몰래 쓴 것이 밝혀졌다.

그러나 전화국은 이런 일에 대해 직접 나서서 조사하는 데는 정말 무관심하다. 전기국에서 전문인력을 파견해서 전기도둑을 추적할 수 있다면, 하물며 전기요금 보다 비싼 전화요금을 받는 전화국에서 가입자의 전화가 도용되는 것에 대해 들은 채 만 채 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가입자들의 고소와 분규에 대한 전화국의 해결방법은 단 한 가지이다. 즉 어쨌든 가입자들로 하여금 요금 청구서에 따라 요금을 내도록 강요하는 것이고, 요금을 내지 않으면 일단 전화선을 끊어버리는 것이다.

베이징 철도 사무소에 근무하는 숙(蕭)모씨는 전화요금이 실제와 다르게 청구되어 여러 차례 전화국에 신고했지만 아무 효과도 없었다. 일단 전화선을 끊고 전화국 사무실에 와서 조사해본 결과, 누군가 그의 전화를 혼선시켜 사용하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이런 상황에 이르고 나서야 전화국은 문제를 인정하긴 했으나, 그렇게 대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강변했다. 그들에게는 이미 흔하게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이라. 앞으로 이런 문제가 일어나면 조사는 해보겠지만 자세한 내용을 가입자에게 말해줄 수는 없다고 밝혔다.

북경성에 사는 탕(唐)이라는 가입자는 전화국의 전화기록에서, 누군가 자신의 전화번호로 야간 한 시간을 이용하여 15 통의 국제전화를 걸었고 그 요금이 1,800여 원이나 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하지만 전화국에서는 그에게, "설사 당신이 전화를 걸지 않았다 해도 누군가 여러 차례 통화를 했다. 그러니 우리도 어쩔 도리가 없다. 이것은 경찰의 책임이니 우리 전화국이 협조해서 함께 해결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라고 하였다. 전화국은 가입자들이 이유없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그 관리는 잊고 있는 모양이다.

전화가입자들은 또 하나의 말하기 어려운 의문점을 하나 갖고 있다. 상하이에서는 오랫동안 국내, 국제 전화를 막론하고 요금 청구서에 요금 합계만을 표시해서 청구해 왔다. 전화 가입자가 요금이 실제와 다를 것을 알고 정확한 청구서를 요구하면, 전화국에서는 예외로 30원을 더 내라고 요구한다. 30원은 적은 돈이 아니다. 시민들이 요금 청구서를 한번 보게 되면 그런 요구는 상식을 벗어난 것임을 알게 된다. 피해를 보고 제소를 해도 아무 결과가 없으면, 가입자는 전화국 내부에 공금 착복자나 불량분자가 있다고 비난하게 되고 그러면 전화국의 이미지는 당연히 큰 손상을 입게 된다.

관리능력의 저하, 비용의 무단 수취, 소비자 권익의 무시 등은 중국처럼 ‘본점(本店)만 있고 지점(支店)은 하나도 없는’ 독점구조가 드러내기 쉬운 병폐이다. 그러나 반드시 전화의 갑작스런 수요폭발이 서비스의 낙후를 낳았다고는 볼 수 없다. 예를 들어 중국 남방의 경제특구인 하이난도(海南島) 하이커우시(海口市)의 전화국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베이징이나 상하이에 비해 주도면밀하고 공평하다. 똑같이 전화 한 대 설치하는 데 베이징이나 상하이는 5천 원 내지 7천 원이 들어가지만, 하이커우시에서는 단지 100원만 있으면 되고 열흘 안이면 끝난다. 만약 긴급 설치를 신청하면 3일 이내에 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경제특구인 하이커우시도 베이징, 상하이와 마찬가지로 전화 수요가 엄청나고 물가상승이라는 압력이 있는 곳이지만, 이 지역의 전화국은 도리어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지역의 전화국은 이미 보도를 통해 널리 알려졌고 전국의 전화 가입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전화 가입자들의 불만은 이미 중국 고위층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상황이라, 각지 전화국의 불량한 작태는 조만간 다소 사라질 전망이다. 상하이시 장거리 전화국 기업사무실의 부주임인 장원옌(張文燕)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전화 수속비용을 2년 전 30원에서 1년 전 10원으로 내렸고, 94년 4월에 다시 1원으로 내렸다. 국제 장거리 전화는 올 초, 요금 청구서 형식을 채택하였다. 청구서에 가입자가 매번 통화한 날짜, 통화시간, 요금 등의 상세한 항목을 넣을 것이다. 그때가 되면 가입자들의 허다한 의심, 분쟁, 불만은 줄어들 것이다.”

편집자 주: 이 글은 「亞洲週刊」(1995. 1. 15)에 실렸던 “說不完的電話之痛”을 번역한 것으로 아주주간의 승인을 얻은 것이다(本文轉載自亞洲週刊1995年1月15日 28-29頁,已得批准).

번역/ 박재현 · 서울대 중국어 성경반 회원

여러분
잠깐만!

중국상식 퀴즈

1. 중국에서 가장 높은 산봉우리는?
2. 중국에서 가장 긴 강은?
3. 중국에서 가장 높은 고원은?

정답은 p. 47에 있습니다.

광야의 만나

무 명

‘그들은 내 몸 각 부분을 살살이 조사하였다. 그리고는 내가 어젯밤에 곧 숨을 거둘 뻔 했던 사람임을 증명하였다. 의사와 약이 나를 회생시킬 수 없었는데 과연 누가 나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했던 말인가?’

“**변방**에 가을이 오니 풍경이 달라지고 ….”

이것은 범중암(范仲淹: 북송의 유명한 시인-역자 주)이 연주(延州)에서 벼슬을 하며 변방을 지키는 시의 한 구절이다. 그로부터 천년이 지난 후 뜻밖에도 나도 이곳으로 오게 되었다. 범중암처럼 병졸로 충원되어 온 것이 아니라 노동개조를 받기 위해 풍요로운 남동지역에서 황량한 서북쪽으로 좌천되어 온 것이다.

이곳은 소망이 없는 곳이었다. 광활한 사막, 가득히 쌓인 백골더미, 휘돌아 흐르는 강물과 첩첩산중, 처참하리만큼 어두컴컴하고 싸늘한 바람이 부는 황혼의 풍경을 대할 때면, 나는 살아 돌아갈 희망이 사라져 버리는 것을 느끼곤 했다.

이것은 1958년의 일이다. 나는

우파분자로 분류되어 일하던 기관에서 여러 차례 비판투쟁을 당한 후 이곳으로 압송당해 왔다. 이곳은 옛날에 비단길(Silk road)이었던 곳이며 외몽고(外蒙古), 신장(新疆), 칭하이(青海)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만리장성의 끝이었다.

나는 1년 간 농장에서 감독으로 일한 후 다시 노동개조 농장으로 끌려갔다. 노동은 너무나 힘들었고 생활조건도 말할 수 없이 열악했다. 체력소모는 심한데 먹는 것은 지독하리만큼 형편없는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사람이 온전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만약 그런 상황에 순응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정신적 괴로움만 더하고 남들에게 욕만 실컷 얻어 먹게 될 뿐이다. 그곳 감독관들 눈에 우리들 노동개조자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1960년에 들어와 주식과 부식이 점점 줄어들더니 마침내 부식이 완전히 끊겼다. 각 사람에게 할당되는 주식도 매달 12근(斤)에 불과하여, 실제 노동하는 데 필요한 열량의 1/3에도 미치지 못하였

다. 이런 열악한 생활을 누가 견딜 수 있던 말인가?

벋속에서는 늘상 꼬르륵 소리가 났다. 거기다 종종 지독한 호통 소리를 들어야 했다. 이런 고통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피곤한 외중에도 풀뿌리를 캐거나 나무껍질을 벗겨 먹거나 쥐를 잡아 먹곤 했다. 먹을 수 있는 것, 없는 것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가져다가 주린 배를 채웠다. 그러다가 식중독에 걸려 죽은 사람도 있었다. 죽지 않은 사람들 중엔, 어차피 곧 죽게 될 것이라 생각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들도 있었다. 아무리 생존의지가 강한 사람일지라도 그토록 비참한 기아선상에서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몸부림을 칠 따름이었다.

겨울이 되자 고비사막에는 굶어

죽은 사람이 널려 있게 되었다. 처음엔 시체를 물어줄 사람이라도 있었으나 나중에는 물어줄 사람조차 없어, 들에 버려진 시체를 들 짐승이나 새들이 멋대로 뜯어 먹었다. 흩어진 피와 살, 피비린내가 진동하여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광경이었다.

나도 물론 예외가 아니었다. 전신이 부어올랐다가 가라앉고 또 부어오르곤 했다. 피가 섞인 설사를 하다가 나중엔 움직이지도 못하고 계속 침대에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통이 극에 달하여 죽음의 언저리에서 오락가락 하였다. 다행히 정신은 말짱하여, 기도하는 것만이 유일한 희망인 것을 알고 있던 나는,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 외에 남아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지 않는 것만 같았다. 몸은 갈수록 쇠약해져 갔다. 하루는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을 느꼈는데 희미하게나마 내가 병실-실제로는 큰 교실-로 옮겨지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는 간호는 받지 못했다.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마음은 평화로웠다. 나는 잠잠히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받아 주시도록 기도하였다. 아무런 두려움이나 슬픔도 없었다. 한밤중이 되었는데도 정신은 더욱 맑았고 갑자기 광야에 나가 기도하고 싶어졌다. 하지만 쇠약한 몸 때문에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가 없어 침대에서 굴러 내려오다시피 하



장승원 그림

였다. 나는 고비사막의 큰 모래언덕까지 줄곧 기어갔다. 가서 땅에 엎드려 큰소리로 부르짖었다. 그때가 바로 성탄절 직후인지라 사막의 삭풍이 불어와 한기가 몸으로 파고 들었다. 하지만 추위는 조금도 느껴지지 않았다.

얼마나 오래 기도를 했을까? 갑자기 눈앞에 눈부신 빛줄기가 비쳐왔다. 꺾가에 들려오는 분명한 소리는 ‘일어나 돌아가라!’는 것이었다. 몸 안에서 뜨거운 열기와 힘이 솟구쳐 올라와 나는 일어설 수 있었다. 배고픔도 피곤함도 느껴지지 않았고 일어나 걸을 수도 있었다. 멀리 지평선에 흰색 건물이 물고기 배처럼 드러날 때, 나는 기분 좋게 병실로 돌아갔다.

‘꿈인가? 생시인가?’ 나 자신도 놀라고 의심하던 중에 나를 돌보는 간호원을 만나게 되었다. 그도 내가 귀신이 아닌지 의심하였다. 병실에 있던 42명은 죽기 일보직전에 있던 이들이었는데, 나를 제외한 41명은 이미 죽어 매장되었다고 했다. 그 후로 병실에 온 사람들은 병세가 비교적 가벼운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내가 밤에 보이지 않아 죽어 매장된 줄 알았다고 했다. 그런데 아침이 되어 완쾌된 모습으로 돌아왔으니 의심할 수 밖에….

그들은 내 몸 각 부분을 살살이 조사하였다. 그리고는 어젯밤에 거의 죽어가던 사람임을 증명하였다. 의사와 약이 나를 회생시킬 수 없었는데 과연 누가 나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했던 말인가? 그러나 이것은 당신이 ‘믿거나 말거나 할’ 소문이 아니라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나는 병실

에서 기숙사로 돌아갔다. 숙소에 있는 모든 이들이 나를 실로 죽음에서 부활한 사람으로 여겼다.

바로 그날 아침, 식사를 마치고 나서 상하이에서 보내 온 소포 하나를 받게 되었다. 풀어보니 그것은 내가 꿈에도 그리던 포도당과 분유 등 영양가가 높은 고급식품이었다. 대도시에서 돈이 있어도 구할 수 없는 이 식품들을 이런 황량한 지역에서 만나고 보니 산해진미와 같았다. 소포에는 분명히 내 이름이 수신자로 적혀 있었다. 그런데 보내온 사람은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이름이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께 감히 이런 것들을 달라고 구하지 않았다. 여태까지 살아 오면서 한 번도 호사스런 바람을 해 본 적은 없다.

나중에 알게 된 이 소포의 비밀은 이렇다. 1958년, 내가 속한 제 10 농공단지에 500가구의 상하이(上海) 이민이 들어왔다.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양식도 부족하여, 이듬해 1959년이 되자 그들은 대규모로 도주했다.

직장 책임자는 나와 다른 몇 사람을 파견하여 그들을 찾아내어 탈출을 막도록 하였다. 나는 그들을 찾아 이틀 동안 고비사막을 따라 걸어갔다. 몇 구의 시체 외에는 아무 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사흘째 되는 날 백(白)씨 성을 가진 한 가족을 만났다. 원래 다섯 식구였는데 셋만 남아 있었다. 두 식구는 사막에서 길을 잃어 물을 찾지 못해 죽었다고 했다. 남은 식구들도 목이 말라 거의 죽을 지경이었다. 난 견딜 수 없이 마음이 아팠다. 그들을 농장으로 다시 끌고가서

죽게 할 수는 없었다. 내가 지니고 있던 물을 주어 마시게 했고, 그들이 정신을 차리자 낙타에 태워 기차역으로 보내 주었다.

그들은 몸에 지닌 금반지를 꺼내 감사를 표했다. 나는 신앙을 가진 사람임을 설명하고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본분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하며 거절하였다.

그들은 상하이로 돌아간 후, 부두 노동자로 일하면서 세관에 있는 상사에게 이 일을 이야기했다. 그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큰 감동을 받았다. 세관원은 업무상 해외인사들과 접촉이 잦기 때문에 비교적 생활이 부유한 사람이었다. 어느날 그는, 해외교포가 송금한 돈으로 샀다는 식품 한 꾸러미를 어떤 사람으로부터 받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이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꼈다. 그 때 마침 지난번 부두 노동자로부터 들은 북대황 노동개조소의 ‘한 사람(나)’이 떠올라, 이것을 ‘그’에게 보내야겠다고 생각했다. 여러 날 고민한 끝에 그는 꾸러미를 ‘그’에게 보냈고, 그때야 비로소 그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

이 고마운 꾸러미가 틀림없이 나의 생명을 오랫동안 지탱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라 생각되었다. 한편으로는 기아로 고통받고 있는 다른 이들이 떠올랐다. 나한테 이렇게 좋은 식품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면 반드시 탐내리라는 것을 아는 한, 그것을 잘 감춰두지 않으면 안 되었다. 나는 꾸러미를 밧줄로 묶어 보이지 않게 대들보

위에 매달아 놓았다.

막 묶고 났을 때 갑자기 온 몸에 힘이 빠지더니 그대로 땅에 떨어져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었다. 그 전날 병실로 실려가던 상황과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다. 사람들이 놀라서 나를 들어 병상에 데려다 눕혔다. 이 때 또렷이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지난번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해졌는데 지금 병이 다시 재발한 것은 분명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다시 기도하는 가운데, 비록 나에게 보내온 꾸러미이지만 이기적으로 나 혼자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요한복음 6장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양식임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마땅히 가난한 사람들과 영적, 물질적인 것을 막론하고 모든 좋은 것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즉시 소포를 풀어 모두에게 나누어 주었다. 거절한 사람들도 있었고 순순히 받는 이들도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이내 손에 들고 먹었다. 음식을 먹은 사람들마다 곧 정신이 맑아졌고 모두 신기하게 여겼다. 나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모두가 구원의 놀라움을 깊이 느꼈고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기 원했다.

노동개조는 하나의 악몽과 같은 것이었다. 나는 1963년에 직장으로 다시 복귀했다. 상하이에 출장갔을 때 주소를 갖고서 그 때 내게 소포를 보내준 분을 찾아갔다. 난 북대황에서 있었던 상황을 그에게 얘기해 주었다. 그는 자신은 무신론자라고 말했다. 그 사람과

언쟁은 하지 않았으며 다행히도 그는 자기 의견을 고집하지 않았다. 오히려 종교연구에 흥미를 갖고 있다고 했다. 다른 지역으로 갔을 때, 나는 그에게 한 권의 성경을 보내 주었다. 1965년, 그의 편지를 받고서 그가 참 하나님을 영접했음을 알게 되었다.

앞에서 말한 백씨 성을 가진 친구는 상하이로 돌아간 후, 그날 일어난 일을 여러 친구들에게 이야기하였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게 된 사람에게 복음의 진리를 설명해 주었더니, 그가 주의 은혜에 감격하여 예수님을 참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 날 망망한 광야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현재 모두 주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고, 축복받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

편집자 주: 위 글은 홍콩 복음증주협회(C.C.L.)에서 발간한 대륙성도 간증집 『恩曲』에서 발췌한 '曠野嗎哪'를 번역한 것이다.

번역/ 주안도·중국선교연구협회 연구원

중국상식 퀴즈 정답

(문제는 p. 43에)

1. 중국에서 가장 높은 산봉우리는 주무랑마(珠穆朗瑪) 봉으로 해발 8천8백48.13m이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로는 네팔과의 국경선상에 위치하고 있다.

행정구역상 서장(西藏) 위구르 자치구에 속하며, 그래서 이름도 서장지방의 고유어이다. 珠穆의 뜻은 여신(女神)이며, 朗瑪는 여신의 이름이다.

정상의 최저 기온은 영하 30℃~40℃이며 최초의 정상정복은 1960년 5월 중국 등반대원들에 의해서였다.

2. 중국에서 가장 긴 강은 양자강(揚子江)이다. 중국인들은 장강(長江)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부르고 있다. 해발 6,621m의 칭장(靑藏) 고원을 발원지로 靑海, 西藏, 雲南, 四川, 湖北, 湖南, 江西, 安徽, 江蘇, 上海 등 10개의 성을 가로지르며 상해시를 거쳐 중국 동해로 흘러들어간다.

양자강은 총 길이 6,300km, 그 지류 하천만도 7백여 개이며 유역면적은 180만 8천5백 km²로 전 국토의 5분의 1에 해당한다.

3. 중국에서 가장 높은 고원은 서남부에 위치한 칭장(靑藏) 고원으로 해발 4,000m이다. 총면적 250만 km²로 세계의 지붕이라 불리는 이 고원은 면적 면에서도 전 국토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서장, 칭해서의 동부지역, 사천성의 서북지역등이 이 고원에 속한다. 풍부한 임산자원과 광산매장량 등으로 앞으로 무한한 개발 가능성이 안고 있는 곳이다.

《中國의 秘密》 중앙일보사, 중에서

생각도 중국인처럼

허드슨 테일러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히브리서 2:17)

중국인 가운데 살면서 중국인이 되기로 뜻을 세우고, 중국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했던 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들 중에 자기가 내린 결정을 후회하거나 일이 닳치자 머뭇거리며 뒤로 물러선 이가 있었다는 얘기를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선교사들이 외모로만 중국인을 좇을 뿐, 생각이나 감정으로는 전혀 그들과 조화를 이루지 않는다면 그것은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일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을 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범사에 충성을 다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사도이자 대제사장이신 그가 우리에게 어떠한 모범을 보이셨는지 살펴봅시다.

만약 우리의 주님이 찬란한 천사의 신분으로 세상에 오셨다면, 의심할 여지없이 더욱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존경하고 경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따르도록 이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기꺼이 인류의 한 부분이 되셨습니다. 단순히 겉모양으로만 사람을 흉내낸 것이 아니라, 영락없는 한 사람의 인간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언어, 복장을 막론하고 죄와 무관한 것이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과 결코 다르지 않았습시다. 그는 자신이 섬기는 대상과 완전히 동일시되셨던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유대인의 신분이 아닌, 어느 고귀한 로마인의 가정에서 태어나 성장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가 반드시 위대한 인물로 추대를 받지는 못했을지라도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 보다는 더 많은 존경을 받았을 것입니다. 모욕을 받는 정도 역시 좀 더 가벼웠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결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우기 위함이었습시다. 이런 사실을 통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예수님이 나타내신 겸손의 모범을 본 이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성결하고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께 열납되어지도록 스스로 그들과 동일시되는 그것이 결코 기독교 선교사의 신분에 어긋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믿습시다.

우리 모두로 하여금 주의 모범을 따르게 하소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잠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겹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아주셨습시다.’(요 13:3-5)

편집자 주: 이 글은 홍콩 OMF에서 출판한 『戴德生嘉言錄』의 내용 중에서 한 문장을 발췌하여 번역한 것으로 홍콩 OMF의 승인을 받은 것이다.

(This article is reprinted from "Hudson Taylor's Legacy" by Hong Kong OM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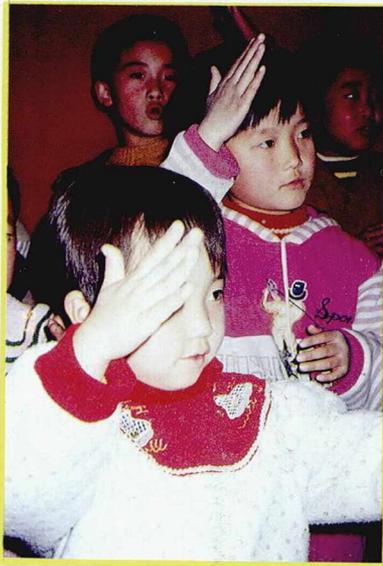
We got permission to reprint it.)

번역/ 오연희 · 중국어문선교회 회원

예수님께 나아오는 아이들

‘예수냐, 학교냐?’로 갈등을 겪는 중국의 어린이 크리스천들

兒 童



사역의 불모지 어린이 전도

중국은 세계 인구의 5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나라이다. 그 중에 4억 6천5백만의 어린이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대상이다. 그러나 중국은 18세 이하의 청소년 및 아동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다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아름다운 중화의 땅에 복음의 문이 닫힌 지 40여 년이 지난 오늘날도, 1천백여 만 km²의 대지 위에서 어린이 전도사역은 여전히 황무지로 남아 있다.

어린이는 아직 꺾이지 않은 보석이며 복음이 뿌려질 옥토이다. 레닌 역시 “세 살 이하의 어린이를 내게 준다면, 내가 그 아이의 평생을 손에 쥐는 것과 같다.”고 말한 바 있다. 유아(幼兒)의 가능성과 아동교육이 미치는 깊은 영향과 중요성을 충분히 나타내는 말이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린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역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황금 보석을 황무지에 던져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보배로운 영혼을 악한 자들이 마음대로 약탈하도록 방치

하는 것과 다름없다.

1990년에 이르러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의 황무지에서 사역을 시작했다. 그러나 어린이 사역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교사, 교재, 가르치는 목표 및 방법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공백 상태였다. 어린이들에게 효과적인 전도도 할 수 없었고, 양육하고 훈련체계를 세우는 것은 더군다나 말할 것도 없었다.

최근 해외의 각 교단과 선교단체들이 계속적으로 어린이 전도사역을 감당할 교사들을 훈련, 양성하고 있다. 그러나 훈련을 시키는 교사들의 대다수는 자기가 몸담고 있는 주일학교에서 가르쳤던 경험을 가지고 나올 뿐이다. 어린이에 대한 순수한 비전과 부담감도 많이 부족하고, 게다가 중국이 처한 전반적인 환경을 이해하는 데도 그들간에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도 가르치는 내용의 실용성이 약화되고, 어린이 복음화를 담당할 사역자들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필자는 우선 현재 막 발돋움하

고 있는 어린이 전도사역에 대해 본인이 이해하고 있는 부분을 간략하게 서술하고자 한다. 그리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신 백성들 가운데 이루신 큰 일들을 독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

어린이 전도사역자 훈련

세포 분열식의 훈련조직이 현재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계획적인 훈련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제시했던 가르침의 원칙을 따른다.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딤후 2:2)

자기가 훈련을 받고 지금은 다른 사람을 훈련시키는 사역자가 된 이들이 현재 약 천여 명이 넘고, 이미 훈련을 받은 어린이전도 사역자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이런 류의 훈련체계는 다음과 같은 4단계를 포함하고 있다.

1. 각 지역의 전도인(傳道人)이 대표로 훈련을 받는다.
2. 대표로 훈련받은 이들이 자신의 사역지(아마도 여러 곳일 것임)로 돌아가서 그곳에 있는 전도인들을 훈련시킨다.
3. 훈련받은 전도인들이 다시 자신의 동역자를 훈련시킨다.
4. 동역자는 훈련을 받은 후에, 다시 성도들을 주일학교 교사로 교육시킨다.

이 때 때 단계마다 훈련받은 자는 반드시 직접 주일학교 봉사에 참여해야 한다.

이와 같은 훈련과정에 따르는

요구는 무척 엄격하다.

훈련내용에는, 어린이전도 사역자의 초급 및 2급과정 그리고 이들 사역자를 양성하는 훈련자의 초급 및 2급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훈련은 매회 2주일이 소요되며, 완성되려면 약 100시간 이상이 필요하다. 매번 훈련받은 훈련생들은 적어도 반년에서 1년 동안 각자의 사역지에서 실습을 해야 한다. 완전하게 훈련된 한 명의 어린이 사역자가 양성되려면, 최소한 두 번의 공동훈련을 받아야 하며 1년에서 2년의 기간이 소요된다. 어린이 사역자를 훈련하는 사역자는 최소한 4번의 공동훈련을 거쳐야 하며 여기에는 2년에서 4년의 기간이 소요된다.

아동복음사역에 종사하는 사역자는 기독교교육과 일반교육의 차이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 일반교육이 가르치는 지식은 혼과 육체의 지식인 반면, 기독교교육은 진리를 찾고 진리를 가르치며 진리를 배우는, 곧 생명을 변화시키는 교육이다. 즉 어린이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한 후 그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 발전하게 하는 데 그 목표가 있다.

훈련생들로 하여금 이런 견실한 훈련을 통해 어린이 복음사역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교사의 역할과 사명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한다. 그 뿐 아니라 이후에 이루어질 어린이 사역의 실제적인 연습을 할 수도 있다. 이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곳곳에서 직접 어린이 복음화사역을 추진하면서 이 사역을 감당할 교사를 훈련시키고 책임자를 세울 수 있는, 어린이 사역에 전시간을 바쳐 헌신할 사역

자를 부르고 계신다.

어떤 지역에서는, 최초의 훈련을 받은 120명의 훈련생들이 92년부터 현재까지 3년 동안 500개의 어린이 주일학교를 세웠다. 또 다른 곳에서는 어린이 사역을 시작하지 5개월 만에 신도 수가 6천 명에서(아동은 포함하지 않음) 1만 명으로 증가했으며, 지금은 2천5백 명의 어린이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해 2백여 개의 주일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곳곳에 있는 교사들이 매년 약 10만 명의 어린이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고 있으며, 이런 수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어린이를 위해 훈련받은 교사가 필요하다.

첫째, 농촌의 교육 수준은 매우 낮다.

어린이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문맹(文盲)인 지역도 있다. 그러므로 훈련시간도 연장해야 하고, 훈련시키는 교사 역시 몇 배의 힘과 정신을 쏟아서 가르쳐야만 한다.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자는 최소한 글을 읽고 쓸 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글을 가르치는 과정을 편성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둘째, 매 차례 이루어지는 사역자 훈련은 시시각각 위험을 무릅써야만 하므로 주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하다.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금지된 상황에서, 우리와 악한 자들은 서로 아이를 빼앗고자 분투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어떤 곳에서 이렇게 선포했다. 어린이전도 사역자가 체포되



경배와 찬양을 하고 있는 중국의 어린이들. 마치 천사와 같은 모습이다.

면 먼저 때리고 그다음에 심문할 수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훈련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늘 바짝 긴장이 되며 도저히 고정된 장소에서 진행될 수 없다. 어떤 경우는 한기(期) 훈련을 하기 위해 세 차례나 장소를 옮겨가며 진행한 적도 있다. 잡혀서 투옥될 위험을 무릅쓰고 훈련에 참가하는 사람들과 집을 제공하는 주인, 사역자 모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만 한다. 셋째, 해외에서 들어오는 훈련 사역자들은 중국을 수시로 왕래해야 한다.

이리저리 돌아와야 하는 불편한 교통, 낯설고 물신 땅에서 경험하는 부족한 호응, 짐 통관의 어려움, 기후 변화 및 음식, 숙소의 불편함, 신중한 말과 행동에서 오는 긴장감 등이 이들이 겪는 어려움이다.

어떤 사역자들은 매년 약 6개월의 시간을 중국에서 훈련사역으로 보내고 있다. 집 떠난 지 오래된 훈련교사들은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자신의 가족에 대

해 생활면으로 특별한 배려가 요구되며, 가족들의 특별한 지지도 필요하다.

만약 해외에서 온 훈련 사역자들을 후원해주는 단체가 없다면 그들은 혼자 고군분투하며 이 사역을 해야만 할 것이다. 극도의 비밀보장을 요구하는 사역이어서 공개적인 보고가 어렵기 때문에 인적, 물적 후원 및 중보기도의 후원도 유난히 약한 상황이다.

지금은 생명을 아끼지 않고 가까이 자신과 사욕을 버리고,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일할 사역자들이 절실히 필요하다. 근래, 해외의 인사들이 중국 어린이 복음사역의 필요성을 깨닫고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대륙 열기'라는 뜨거운 열차에 올라타서,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여행이나 휴가 등 개인 및 단체의 허영심과 성취감을 만족시키는 데 급급한 많은 훈련 사역자들이 있다. 이들은 바깥 세계의 불필요한 것들까지 끌어들이 훈련사역의 발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구원받은 어린이의 간증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린이 복음 사역은 원자탄의 폭발이라고 비유할 수 있을 정도로 왕성하게 전개되고 있다. 어린이 사역의 발전은 마치 불 붙은 건초더미가 들 전체로 번져나가는 양상을 띠고 있다」

우리에게 격려를 주는 이런 소식들은 모두 큰 대가를 지불하고 얻어진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엄격한 훈련을 거친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구원의 은혜에 대해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거나, 그들에게 구원의 참다운 맛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어린이들은 결코 주일학교에 나오는 모험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대가는 바로 피와 눈물과 목숨이기 때문이다.

어느 학교의 교사가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

“예수는 이미 2천년 전에 죽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를 믿을 필요는 없다.”

주일학교 교사는 이 이야기를 듣고 교회에 다니는 어린이들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구원을 얻은 한 어린이의 예기치 못한 말을 듣게 되었다.

“학교 선생님은 예수님이 죽은 사실만 알고 계세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모르고 있는걸요. 전 선생님의 말을 믿지 않아요. 단지 진리를 믿을 뿐이죠.”

6살 난 한 아이가 구원을 얻은 후에 아이의 할아버지도 주님을 믿게 되었다. 그 아이는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할아버지! 어떻게 할아버지가 구원을 얻었는지 그 경험을 저에게 들려주세요.”

아이는 할아버지의 간증을 들은 후 “할아버지의 구원 간증은 저만큼 확실하지 않아요.”라고 말했다

이때 성령께서 이 아이에게 진리를 명백히 깨닫게 해 주었고 그들을 굳건히 잡아주었음을 알 수 있다.

한 공산당 서기(書記: 공산청년단 따위 각 조직의 주요 책임자, 기독교인의 활동을 감시하는 직책을 갖고 있음)의 자녀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서기 부부는 아이를 때리면서 교회에 나가지 못하도록 했지만 아이는 여전히 굳세게 주일학교를 나오고 있다. 어떤 부모들은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이곳의 예수를 믿는 어른들은 아이들만큼 많은 핍박을 받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면 어른들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여자아이의 예수를 믿는다고 하여, 교사에게 머리채를 잡

힌 채 2층에서 1층까지 발에 채이면서 내려와야 했다. 한 남자 아이는 교사에게 의자로 맞아 머리가 터졌고, 3일 동안 서있는 벌과 2주간의 정학, 또 영예로운 홍령건(紅領巾: 중국의 학생들이 목에 매는 붉은 스카프로 소년 선봉대를 의미함)을 박탈당하기까지 했다. 이들에게는 단 하나의 선택만이 있을 뿐이다. 학교를 다닐 것인가? 아니면 예수를 믿을 것인가?

주님을 믿고 난 어린이들이 학업이나 품행에 큰 변화가 나타나 올바른 행동을 하게 되므로, 믿지 않는 아이들이 믿는 아이들을 보고 배웠으면 하고 생각하는 교사들도 있다. 한 잡화점 주인은 예수 믿는 어린이가 와서 물건을 살 때 다른 아이들과 확실히 틀린 점이 있음을 발견하고는 자기 자녀도 이 어린이를 따라 주님을 영접하게 했다.

어린이들은 주님을 믿고 난 뒤 믿지 않는 부모나 조부모, 외조부모의 영혼을 생각하고는 안타까워한다. 이들은 조금해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간곡히 부탁한다. 이때 많은 어른들이 곧 주님을 영접하곤 한다.

어떤 집에 예수 믿는 어린이 3명이 있었는데, 이 아이들이 스스로 회의를 열어 장래에 어떻게 주님께 헌신할 것인가에 대해 토론했다고 한다. 마치 장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회의 같았다. 열한 살된 언니와 여섯 살 난 여동생은 어른이 되면 전 시간을 밖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 바치기로 결심했으며, 아홉 살 난 남동생은 자기 집을 대접하고 섬기는 가정으로 개방하고

자 결심했다. 이 말을 들은 아이들의 믿는 부모는 크게 감동했고 오히려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한다.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고 말했다. 그렇다. 우리는 결코 이 아이들을 어리다고 업신여길 수 없다. 최근 들은 바 소식에 의하면 일찍이 훈련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어린이들이 있다고 한다. 6세에서 12세 가량되는 아이들이 현재 전도인(복음 사역자)이 되어 일하고 있는 것이다.

높고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한다. 주의 행하시는 기사를 누가 능히 예측할 수 있겠는가? 만약 주님의 손길이 아니었다면 누가 능히 이런 큰 일을 해낼 수 있겠는가?

훈련이 진행될 초기에 하나님은 어린이 복음사역에 대해 아무런 인식도 하지 않는 한 교회의 지도자를 감동시켜, 70세의 고령과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젊은 이들과 함께 훈련에 참여하도록 붙잡아주셨다. 열흘 동안 이루어진 과정은, 그가 어린이 사역에 대해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모든 훈련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위해, 그는 전도인들로 하여금 전 시간을 어린이 사역에 헌신토록 격려했다.

성인 사역에도 일꾼이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아동사역은 정말로 하지 않으면 안 될 가치있고 귀중한 사역이다. 이렇게 하여 맹렬한 불길은 마침내 점화될 것이다.

편집자 주: 이 글은 홍콩복음증주협회(C.C.L.)에서 발간하는 《守望中華》제125호 ‘要上學, 要耶穌’를 번역하여 실은 것이다.
번역/ 신호정 · 중국어문선교회 회원

중국요리(I)

衣建美



“땅이 있으면 사람이 있고, 사람 사는 곳이면 중국인이 있다. 중국인이 사는 곳이면 중국 음식점이 있다.”

이 말은 중국인 사회에 대한 인식과 존재에 대한 것이다. 또 이런 말도 있다.

“하늘을 나는 것, 바다에 떠다니는 것, 땅에 기어다니는 것은 모두 중국인 식탁의 진미가 될 수 있다.”

이것은 중국음식에 대한 찬사와 발전에 대한 것이다. 중국음식이 세계적으로 흥미하게 된 주요 원인은, 그 원료가 깊고 수천 년의 문화유적이 보존되어 있어, 중국 고대문명의 일부분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음식의 재료와 배합, 색깔의 조화, 미각의 만족 등에 이르기까지 다른 민족들의

눈을 휘둥그렇게 하고, 말문을 막히게 하는 데 충분하다.

과거 중국인 사이에는 이러한 말이 있었다.

“머리 깎는 칼(剃頭刀), 가위(剪刀), 식칼(菜刀) 등 칼3개만 있으면 먹고사는 것은 문제없다.”

시대의 변천과 사회발달로 직업이 새롭게 발전하고 생겨나는 추세에 따라 머리 깎는 칼과 가위는 점차 쇠퇴해 갔다. 그러나 식칼 하나만은 변함없이 중국인이 먹고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돈을 벌고 입신출세하는 데 의지할 만한 보배로운 칼이다.

중국요리의 조리법

한국에서는 중국요리에 대해 탕수육, 해삼탕,

고기볶음, 모듬요리, 양장피, 짜장면, 삼선짬뽕 등 몇 가지만 있을 뿐이라고 알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요리는 한국인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새로 만들어 낸 것이다. 아울러 정통 중국요리가 아니라서 그 조리법도 비교적 간단하고 빠르다.

조리에 있어서, 중국에서는 분량이 규정된 예가 없고 정해진 시간도 없다. 전부 요리사의 경험에서 체득된 것과 그 위에 숙련된 기술이 첨가된 것이다. 그것이 또한 중국요리의 초보자가 요리를 배우기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중국요리 예술의 가치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중국 요리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관용어를 설명해 보겠다. '볶는다'(炒)는 것은 주로 신속하게 만드는 음식에 사용되는 방법이다. 야채와 양념을 준비해 놓고 켜 불에서 몇 번 뒤섞어 볶으면 완성된다. 시금치, 배추, 미나리 같은 야채류 이외에 계란, 고기, 해물류 등도 모두 이러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기름에 튀긴다'(炸)는 것은 음식물을 다량의 끓는 기름에 집어넣고서 바삭바삭하게 되도록 익히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대부분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에 다시 조리된 음식이 많은데, 새콤달콤한 탕수육이 바로 이러한 방법으로 만든 것이다.

윤기나게 볶은 재료를 끓는 물이 있는 냄비에 넣고 기름으로 다시 볶는 것(溜)과, 볶거나 튀기거나 알맞게 삶아진 음식에 갈분을 넣고 천천히 휘저어서 걸죽하게 하는 방법(澆)도 있다.

기름에 볶고(燒), 뜸을 들이는 것(燜)은 조미료를 가미하여 중간 정도의 불이나 약한 불로 음식물을 삶아 익혀 연하게 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삶거나 쪄어서 버무리고, 굽고, 기름에 지지고, 끓는 물에 살짝 데치고, 국물에 익히는가 하면 속이 깊은 솥에다 넣고 끓이는 것 등이 있다. 또한 면류를 찌는 방법도 있다. 끓는 물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증기로 찌는 것이다.

'폭 고은다(燻)'는 것은 밖에 큰 솥을 걸고 속에 물을 넣고 그 안에 작은 솥을 놓고, 음식물을 담고 물이나 국을 같이 넣어 끓이는 것이다. 장시간 음식물이 연해질 때까지 천천히 불을 때면 거기서 생기는 국물이 매우 맑게 된다.

중국요리의 특징

칼솥씨

칼쓰는 솥씨야말로 음식이 정갈한가 조악한가의 우열을 가르는 중요한 관건이다. 직접적으로 음식의 색과 맛에 관련이 될 뿐 아니라 요리의 외관과 불의 세기, 시간에도 영향을 미친다. 요리가 상에 올랐을 때, 그 잘라진 야채의 굵기, 두께, 길이가 균형이 없으면 이것은 참으로 음식재료를 낭비한 것이다. 과거에 제자가 스승에게 요리를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칼질하는 기술이었다. 칼질을 잘 배우지 못하면 불을 때서 요리를 만든다는 것은 아예 꿈도 꿀 수가 없었다.

앞서 말한 조리 기술을 설명한 것 중에서 칼 쓰는 법은 수백 가지가 된다. 광범위하게는 자르다, 베다, 깎아내다, 잘게 다지다, 파내다, 깎다, 꺾질 벗기다, 돌려깎다, 쪼개다, 두드리다, 긁어내다, 밀다, 지레질하다, 발라내다 등이 있다. 좁게는 자르는 것 한 가지만 해도 똑바로 자르기, 밀어 자르기, 토막내기, 작두질로 자르기, 굴려 깎기 등등에 이른다.

이러한 칼질 과정을 거쳐서 원래의 모양이 변하면 부분으로 나누고, 토막을 치고, 작게 잘라서 다시 가늘게 썬다. 주사위 모양으로 덩어리를 내거나 알갱이로 부수어서, 잘게 썰어 다지거나, 가늘게 자르고, 동그랗게 자르는 등 한 요리사의 칼솥씨로 고깃조각을 두부보다도 연하게 만들 수 있다. 이 정도로 엄격하고 세밀한 조작을 요구하므로, 풍부한 지식과 숙련된 기술이 없이는 만들어 낼 수 없는 것이 바로 중국요리이다.

오늘날은 과학기술의 발달과 생활리듬이

날로 가속화됨으로 인해 이 모든 칼솥씨가 요구되지 않기도 한다. 하지만 손으로 잘게 다져진 고기는 기계로 다져진 고기를 넣은 만두보다 맛있다. 그 맛은 정든 고향의 맛을 생각나게 한다!

불의 강약과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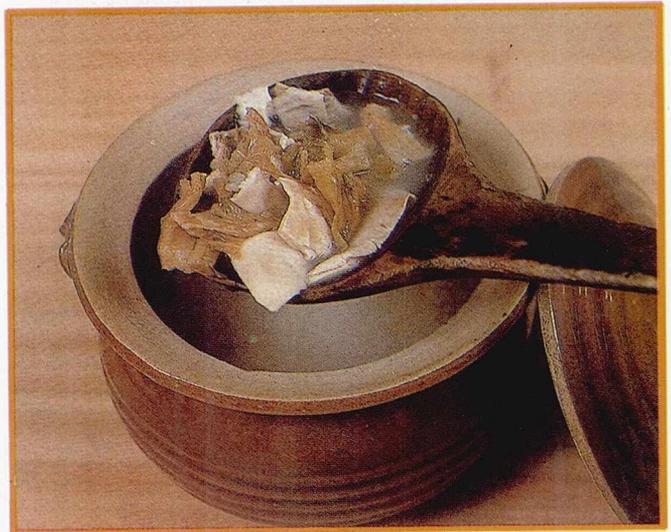
불의 강약과 소모되는 시간은 중국요리에서 가장 처리하기 어려운 것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다. 모든 품격있는 요리의 성공여부는 대개 불의 강약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달려있다.

‘30%는 기술, 70%는 불때기’라는 이 구절은 그 관건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하는 데 꼭 들어맞는 말이다. 그것은 참으로 신선하며 기름지고 바삭바삭하고, 눅눅하지 않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빨리 한 입 먹고 싶도록 한다.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유명한 요리 ‘상어지느러미해삼탕’(魚翅海參湯)은 불의 강약을 잘 조절하지 않으면 해삼이 탕속에서 상어지느러미 끝에 붙어버리게 된다. ‘간풍기’(乾烹鷄)도 불의 강도가 부족하면 뼈와 살이 부서져서 형태를 알아보기 어렵게 되며, ‘야채볶음’(炒青菜)도 불 조절에 실패하면 삶은 야채나 푹 고아 놓은 야채와 같이 되어버린다.

중국요리의 맛이 무궁한 것은 조리방법이 복잡하고 다양한 데서 비롯된다. 단지 불 조절만을 말한다면 불의 양과 불의 온도, 불의 세기, 그리고 소모되는 시간 등의 요소가 있다. 불의 양에 있어서 급한 불과 센 불, 약한 불이 있다. 요리사가 불의 양을 조절하는 기술을 잘 발휘한다면, 그 일품요리는 맛있을 뿐더러 전혀 힘들이지도 않고 먹을 수 있다. 불을 조절하는 기술에 따라 조리의 경험과 기술의 척도가 어떠한가를 가히 짐작할 수 있다.

색, 향, 맛

중국요리는 색과 향을 맛과 똑같이 중요시한다. 그 중 색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는



것은, 색의 배합이 적당하면 먹어보기도 전에 먼저 사람들의 미적 감각을 복돋아 주기 때문이다. 음식의 색이 중요할 뿐 아니라 함께 사용하는 그릇의 색깔도 고려하여 모양나고 훌륭하게 해야 한다. 모듬요리의 접시 장식은 요리의 색이 예술적 경지에 이르는 데 한 몫을 한다. 향기와 맛은 먹는 사람의 내장을 맑고 상쾌해지게 하고, 식욕을 돋구어 준다. 따라서 주객을 모두 흡족하게 하니 이는 실로 인생의 큰 낙을 누리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중국요리는 연회요리와 일반 가정요리로 구분하는데, 연회요리는 여러 가지의 음식이 갖춰진 것이다. 찬 것과 더운 것, 디저트(후식), 면류 등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가정요리는 일반 가정에서 식탁에 오르는 음식으로 그다지 품격을 따질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수준에 달해야 한다. 대개 가정요리라면 마파두부(麻婆豆腐), 청초육사(青椒肉絲), 계란볶음(炒蛋), 배추볶음(開陽白菜), 생선조림(紅燒魚), 오이 냉채무침(涼拌黃瓜) 등을 들 수 있는데 이 음식들은 향기도 좋고 맛있어 배불리 먹을 수 있다.

(다음 호에 계속)

衣建美/ 여한중화한성교회 유전명 목사 사모.
중국복음선교회 부설 중국선교사훈련원
전임교수. 고려대 중문과강사
번역/ 이민선·본지 편집기사

퇴거령(退去令)까지

방지일



우리 선교사들이 속속 임지로 도착하여 청도(靑島)의 새 개척지며 이미 잡은 일터에서 일을 시작하여 진행하던 중에 일인(日人)의 관, 군권(軍權)의 탄압을 받게 되었다. 배일(排日), 항일(抗日)자로 주목하고 있던 차에 일어난 사건은 이리했다.

하루는 출타했다가 돌아오니

가택수색을 하고 서류니 편지 등을 압수해 가면서 호출장을 두고 갔다. 중국인 청년으로서 일군(日軍)의 첩보일을 보는 이가 있었다. 이 사람이 지미란 교회를 다녔는데, 그 때 박상순 목사께 몹시 책망당한 일이 있어 앙심을 품고 퇴장했었다고 한다. 이 사람이 노상에서 박 목사를 보고 고발한 것이다.

저런 배일자가 어떻게 확보하고 다니는가 하면서 온갖 조악한 말을 했던 것이 자기들이 주목하던 대로라 고발을 하게 된 것이다. 또 일인 목사도 '자기들이 세운 교회엔 사람이 없는데 같은 국적으로서 어떻게 저들의 교회는 그렇게 부흥하는가? 과연 문제화할만하다'고 고발하여 입건되게 되었다.

박상순 목사는 그 첩보자의 고발로 퇴거령을 당장에 받았다. 나와 이 목사는 아무 증거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 같이 퇴거령을 내렸던 것이나 불응하니 입건 조사하게 되어진 것이다. 이때 이상하게도 그 안에 의리가 있는 사람이 있었다. 소련주재 일본 영사관에 근무하던 소류(小柳) 부장이 청도로 전근오면서 내게 정중한 인사와 함께 찾아온 일이 있었다. 그는 내게 와서 다 들었노라며 앞으로 같은 지역에 같이 있게 되었다고 인사하였다.

이 사람의 전임인 소강(小江) 부장은 본시 오래 있었던 사람으로, 우리 선교역사를 잘 알던 사람



인데 ‘천리거리(張店)’란 곳으로 서장이 되어 전근 갔었다. 소류 부장이 우리 일에 시기질투하며 또 일인으로 억압하는 기미를 알아 못마땅히 생각해서인지 극히 동정하는 편이었다. 내게 말하기를, 천리거리의 서장에게 갔다오라 하면서 편지를 써 주었다. 그래 천리가넘는 그 곳에 갔었다. 소강(小江) 서장이 알겠다고 편지를 써 주었다.

수 십년 역사가 있고 또 나는 아버지의 하시던 일에 계승이라, 어떻게 일본 사람이 언어도 시원히 통하지 못하면서 같을 수 있겠는가 하는 우리의 항의를 뒷받침한 글인 듯 하다.

또 일본 장로교회 목사 도촌헤길(島村穗吉) 노인은 참 신사적으로 우리를 찾아와 위로도 하고 같이 기도한 분이다. 이분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다. 그리하여 당시로서는 일단락이 되었다.

큰 바람이 지나간 줄 알았더니 여기서 끊이지를 않았다. 일인 야마무라 목사가 우리에게 알려지 않고 서울에 가서 총회 본부에, “당신들이 보낸 선교사가 배일자로 몰려 공군에 빠졌는데 같은 목사로서 내가 도울 터이니 총회로

서 위탁만 해주면 무사하게 해주겠다”고 하였다.

당시의 외지전도 국장은 최지화(崔志化) 목사였다. 평양 연화동교회 시무였다. 총회로서는 급거 상경하게 하여 야마무라를 만나게 하니 국장은 감사한 인사를 드리며 잘 부탁한다고 하였을 것이다. 야마무라는 이 말을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나와 이 목사를 불렀다.

“당신네 국장이 내게 위임하였으니, 동아선교회 안에서 일하게 되었다”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이미 말한 바대로, 우리가 세운 교회는 순전히 중국 교회이고 우리 자신이 올 때 교적을 가지고 와서 중국 교회에 입적이 된 고로, 목사직은 따르지만 교회는 다르게 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다.

엄연히 중화 기독교회요 중화 기독교 전국 총회산하 산동대회 그 산하 혁양(革陽), 동노회(東老會) 목사라 이를 동아선교회에 예속시킬 수 없었다. 우리 개개인의 국적은 일인의 적임에 틀림없으나 교적은 벌써 중국이다. 전과 다름 없는 대답이었다. 또 우리 파송을 받은 선교사들에게는 본국서 어떤 훈령이 있는 다음에야

당신과 대화가 되지 않겠는가 우리 본국 전도국에서 이 점에 대해서는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답할 뿐이었다.

저희 처사는 실로 유감이 아닐 수 없었다. 관군에 말하다가 이제 우리 본 총회에까지 가서 이런 운동까지 했다는 것은 매우 불쾌하기 짝이 없었다. 그런데 당시의 정황이 강경하기가 실로 쉽지 않은 바라 강경 일변도로 나간 것이다. 앞으로 무슨 흥계가 있을지도 모르나 이런 적대적 입장에서 헤어졌다.

한편 이것은 중국인 동역자에게 얼마간 호감을 사기도 했다. 후에 이 일을 저들도 알게 되었다. 인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들에게 순했던들 당시에야 상당히 활발한 길이 열렸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의 그러한 결정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후 공산당 때까지도 함께 있게 된 한 계기가 되었다.

<福音歷史半百年>중에서

방지일/ 중국어문선교회 교문
전 중국 산동성 선교사

조선족의 삶이 어려웠는 요녕성 · 길림성 · 흑룡강성

요녕성(遼寧 Liaoning)

위치: 동북3성 중 가장 남쪽에 위치. 동북쪽은 길림성, 동쪽은 북한, 남쪽은 황해, 남서부는 허북성, 북서부는 내몽고 자치구와 경계를 이룸.

면적: 145,900km²

인구: 약 4,016만 명(인구밀도: 276명/km²)

민족: 한족을 비롯하여 44개의 민족(만족, 몽고족, 회족, 조선족, 석백족 등)으로 구성. 광서, 귀주, 운남, 신강 다음으로 가장 많은 소수민족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이다.

정치 · 행정

- 요녕성 지방정부- 省長: 岳岐峰, 副省長: 閻世震 외 4명.
17개 청(廳), 12개 위원회, 50개 국(局), 각 분야의 실(室)과 연구소
 - 행정구역- 성도(省都) 심양(瀋陽)
14개 지급시(地級市)- 심양(瀋陽), 대련(大連), 안산(鞍山), 무순(撫順), 본계(本溪), 단둥(丹東), 금주(錦州), 금서(錦西), 영구(營口), 반금(盤錦), 부신(阜新), 요양(遼陽), 철령(鐵嶺), 조양(朝陽)
36개 현(10개 자치구 포함), 8개 현급시(縣級市)
- 기후:** 임해지역으로 온대 대륙성 기후에 속하며 4계절이 뚜렷하다. 연평균 기온 7~11도

청조의 발상지

요녕성은 중화민족의 고대 문명 발상지 중 하나로 유구한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옛부터 중원(中原)과 거리가 멀고 질병이 많아 '영원히 안녕하라'는 의미에서 요녕이라고 칭해왔으나 사실 요녕성은 근대 역사상 계속 안녕하지 못해온 지역이다.

명 말에 만주족이 동북지구에서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하여 청태조인 누르하치가 1616년에 금(金)을 건국하고 수도를 지금의 요녕 신빈현(新賓縣) 지역에 세웠다. 그러다 1626년 지금의 심양인

성경(盛京)으로 천도하였다. 1644년 명이 멸망하자 청의 순치제(順治帝)는 산해관을 넘어 북경으로 진군하여 수도를 심양에서 북경으로 옮기는 동시에 전국을 18개 성으로 정비하였다. 특히 요녕은 청조의 발상지로 매우 중요시하였기에 성경을 여전히 수도로 삼아 동북지구 전체를 관할토록 하였다.

외세의 각축장으로

만청(滿清)은 입관 후 발상지인 요녕성을 보호하기 위해 한화(漢化)를 거부하고 엄격히 이민을 규

제하였으나 많은 내륙인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몰래 이민해 왔다. 러시아가 중국을 탐내자 비로소 위협을 느낀 만청정부는 단허있던 동북의 문을 열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역사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었다. 갑오전쟁과 러일전쟁, 9·18 사변(만주사변) 등을 거치면서 요녕성은 제국주의 열강의 각축장이 되었다. 9·18 사변으로 일본 제국주의는 요동반도를 강점하였고, 1932년 괴뢰 만주국을 수립한 뒤 심양을 봉천(奉天)이라 개명한 뒤 패전 때까지 동북지방 지배의 거점으로 삼았다.

결국 요녕은 다시 중국의 손으로 돌아왔으나 오늘날 중국을 찾는 이들은 요녕성을 통해 근대의 중국을 읽게 된다. 나라가 약하면 외세에 의해 침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중화(中華)의 후손들에게 남겨주고 있는 곳이다.

중국 최대의 중공업 기지

요녕성은 동북삼성 중 가장 남쪽에 위치하여 중국 동북의 출입구라 할 수 있다. 지형은, 해발 800m 전후의 산지와 500m 이하의 구릉지가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동북부는 장백(長白)산맥

과 천산(千山)산맥으로 구성되어 지대가 높은 편이며, 북부는 백두산 산림구와 연결되어 요녕성의 주요 산림지대가 되고 있다. 남부는 풍경이 수려한 구릉지대를 이루고 있다. 서부는 해양과 온천을 끼고 있는 천연 휴양지로 유명하다. 중부는 요하(遼河), 혼하(渾河), 태자하(太子河) 등의 충적층으로 이루어진 평원으로 토지가 비옥하고 수원이 풍부하여 농산물의 주요 산지가 되고 있다.

또한 중국 최대의 중화학 공업기지가 동북지역의 교통 요충지로 중국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동북지구에서 면적이 가장 좁은 성이지만 인구수, 인구밀도, 도시수, 총인구에 대한 도시인구의 비율, 철도망 밀도, 농공업 총생산액, 평균생산액, 공업생산액 및 여러 가지 공업제품 생산량 등이 모두 동북지구의 상위권에 들어 있다.

이런 상황은 요녕성이 경제발전에 유리한 제조건-임해(臨海)지역, 편리한 육해교통, 풍부한 광산자원을 구비하고 있는 데다가, 근대공업 발전이 비교적 빨리 이루어졌던 것에 바탕을 두고 있다. 경제기술 개발구로 지정된 대련(大連)을 비롯,



요녕성 단동교회.

철강의 도시 안산(鞍山)과 탄광으로 유명한 무순(撫順)이 있어 중화학 공업이 급속히 발전을 이루고 있다. 철광석, 선철, 강철, 광산기계, 천연가스 등의 생산량은 전국적으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석양이 아름다운 도시 심양(瀋陽)

요녕성의 성도인 심양은 인구 460만으로 북경, 상해, 천진에 이어 중국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이다. '석양이 아름다운 도시'로서 동북 지방의 행정, 문화 중심지이기도 하다. 심양에는 약 9만 명 정도의 조선족 동포들이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들의 대부분은 서탑(西塔) 지구에 밀집해서 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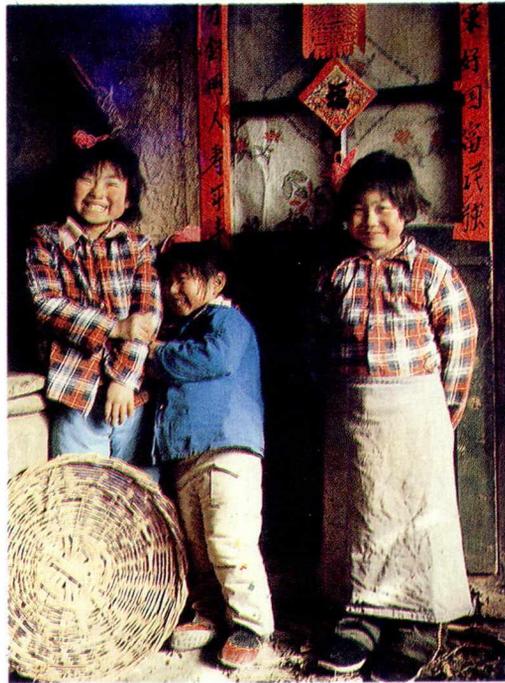
심양에는 공장이 많은 데다가 특히 겨울에는 주민들이 난방을 위해 사용하는 석탄의 매연까지 가세하는 탓에 세계에서 공해가 가장 심각한 곳으로 손꼽히기도 한다. 이곳에는 청나라 태조 누르하치의 황궁이었던 심양 고궁(故宮)이 있다. 면적 6만㎡에 90여 개의 건물, 방만 300여 칸이 넘는 웅장하고 화려한 궁전으로 현재까지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다. 옛날에는 백성이 한 발짝이라도 들어가면 처형을 당했던 곳인데 지금은 박물관이 되어 많은 사람이 관람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다.

동북의 창문 대련(大連)

대련은 요동반도의 남쪽 끝에 위치한 중국 제2의 무역항이며 동북지방의 창문이다. 인근에 있는 여순(旅順)은 안중근 의사가 순국한 곳으로 여순과 대련이 합쳐져 한 동안 여대(旅大)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옛날에는 청니(靑泥)라고 불리는 조그마한 어촌에 불과했으나, 19세기 말 제정 러시아의 조차지가 되면서 순식간에 대무역항으로 변했고, 러일전쟁 이후 일본군의 점령하에 놓이게 되었다. 겨울에도 얼지 않는 항구로, 일본과 러시아가 그 이권을 두고 심하게 다툰 정도로 매력있는 항구였다.

천진과 상해처럼 현대적인 건물과 러시아풍의 건축이 이 도시의 특징이다. 1976년 북동부의 황



동북지역의 한 농촌 어린이들.

해 연안에 대련신항이 완성되었으며, 1984년에는 경제기술개발구 14도시의 하나로 지정되었다.

「태산에 올라 해돋이 구경하고 대련에 가서 해수욕한다」는 옛말이 있듯이 대련은 그림같이 아름다운 해수욕장과 해상공원으로 유명하다.

요녕성 교회상황

심양에는 한국 교회의 후원으로 다시 문을 열게 된 「동북신학원(東北神學院)」이 있다. 요녕성 기독교양회 소속 삼자교회로는, 심양에 동관교회(東關教會), 북시교회(北市教會), 서탑교회(西塔教會) 등이 있고, 대련에 북경가 예배당(北京街禮拜堂), 옥광가 예배당(玉光街禮拜堂), 흥공가 예배당(興工街禮拜堂) 등이 있다.

길림성(吉林 Jilin)

위치: 동북지역 중앙에 위치함. 동쪽은 러시아 연방, 북한과 국경을 이루고 있고, 남쪽은 요녕성, 북쪽은 흑룡강성, 서쪽은 내몽고 자치구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중국에서 동해 및 태평양으로 통하는 유일한 통로이기도 하다.

면적: 187,400km²

인구: 약 2,532만 명(92년), 인구밀도: 135명/km²

민족: 한족(89.9%), 조선족(4.7%), 만주족, 몽고족, 회족, 석백족 등으로 구성

정치·행정:

- 길림성 지방정부- 省長: 高嚴, 副省長: 劉希林 외 4명
25개 청(廳), 9개 위원회, 34개 국(局), 각 분야의 실(室)과 연구소 등
- 행정구역- 성도(省都) 장춘(長春)
6개 지급시(地級市)-장춘(長春), 길림(吉林), 사평(四平), 요원(遼源),
통화(通化), 혼강(渾江)
15개 현급시(縣級市), 22개 현(縣), 3개 자치현(自治縣), 1개 지구-백성(白城) 지구
1개 소수민족 자치주-연변 조선족자치주(延邊朝鮮族自治州)

기후: 겨울은 한랭 건조하고 여름은 고온다습한 온대 대륙성기후

한민족의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역사의 현장

길림성은 연변조선족자치구가 있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곳이며, 근대 일제 침략기 우리 선조들의 발자취가 서려 있는 곳이다. 최근 우리 기업 투자의 거의 절반이 이루어져 최고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울 뿐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게다가 이곳에 거주하는 조선족의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최근 두만강 지역개발이 구체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동북아 경제권 형성에 대한 기대가 높은 우리 기업의 길림성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다.

동북 제일의 공업도시 장춘(長春)

장춘(長春)은 인구 2백만의 길림성 성도이며 동북지방의 중심지이다. 면적은 1.89만 km², 인구는 646만 명이다. 한 때 만주국의 수도로서 신경(新京)이라 불리웠다. 시내에는 옛날 일본인이 만주국을 세울 때 지은 황궁이 지금도 2개나 남아있다. 오늘날 장춘은 공업도시로 중국 제1의 자동차 생산지이며, 각종 모피공장도 있다. 또한 문화 및 과학연구 도시이기도 하다. 대학과 전문학교 15

개소, 과학연구 기구 80여 개소가 있다. 장춘시 조양구(朝陽區)에 위치한 장춘 영화제작소는 중국 영화산업의 요람이 되고 있다.

장춘에는 일제 관동군 사령부 건물이 있어 일제 군국주의 시절의 공포스런 역사를 한눈에 알 수 있다. 또한 괴뢰정권인 만주국을 세우고 마지막 황제 부의를 우두머리로 삼아 도읍했던 터가 바로 장춘이다. 1932년부터 1945년까지 부의가 살았던 위황궁(僞皇宮)은 현재 길림성 박물관으로 공개되고 있다.

장춘은 도시면적의 36%가 녹지로, 중국에서 공원과 녹지가 비교적 많은 도시이다. 숲이 무성한 공원과 잘 가꾸어진 가로수 덕분에 '삼림의 도시'라는 별칭도 갖고 있다. 봄이 되면 시가가 산수화 같으나 이름과 반대로 봄과 여름이 짧다.

송화강변 아름다운 도시 길림(吉林)

길림시는 장춘 동쪽 백두산 지맥의 산중에 위치하고 있으며, 장춘에서 열차로 약 2시간 정도 걸린다. 길림의 명칭은 만주어의 '吉林鳥拉(큰 냇가)'에서 유래되었는데, 송화강(松花江)이 도시의 가슴을 휘감아 흐르는 강의 도시이다. 당시 일본인이 '작은 교토(小京都)'라고 부르던 만큼 오래된



요녕성 단동의 압록강대교. 북한 신의주의 압록강까지 이른다.

건물과 대자연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곳이다.

멀리 백두산 천지에서 흘러나오는 송화강은 엄동설한에도 길림시 주변에서는 얼지 않는데, 이는 근처의 풍만(豐滿)발전소에서 방출되는 유수(流水) 덕분이기도 하다. 강에서 피어오르는 수증기가 강 주변 나무에 은백색의 얼음꽃 ‘한강설류(寒江雪柳)’를 피워 장관을 이룬다.

연변 조선족자치주

이른바 북간도에 해당하는 연변 조선족자치주에는 인구의 40% 남짓을 차지하는 조선족이 그 중심을 형성하지만, 그 밖에 한족, 만주족을 비롯하여 19개 민족이 섞여 살고 있다. 이 자치주에는 연길(延吉), 도문(圖們), 돈화(敦化), 용정(龍井), 훈춘(琿春)의 5개 시와 안도(安圖), 화룡(和龍), 왕청(汪淸)의 3개 현이 있는데 이 자치주의 주도가 연길시이다. 이런 연유로 연길에는 조선족이 주류를 이루며 명실공히 연변자치주의 문화, 교육, 경제 중심지로서 국민학교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한국어로 강의를 한다.

고구려 유적지 집안(集安)

집안은 길림성의 최남부에 위치하며 북한과 국경을 이루는 압록강(鴨綠江)의 서안에 있다. 집안 일대는 동북에서는 생활하기 좋은 기후로 길림성

의 ‘소강남(小江南)’으로 불리우고 있다. 교통편은 비행기로 북경에서 장춘까지 가서, 장춘에서 집안까지 철도로 가는데 약 14시간 소요된다. 도중에 통화(通化)에서 열차를 갈아타야 한다.

집안에는 역사적 유물이 많이 있어서 고대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한 번쯤은 가보고 싶어하는 곳이다. 특히 우리 민족의 고구려 유적이 풍부한데 그 대표적인 것이 광개토태왕비이다. 이 밖에도 고구려의 성터와 동양의 피라미드라고 불리우는 장군묘, 광개토태왕릉, 고분군(古墳群), 환도성지(丸都城址) 등이 있다.

길림성 교회상황

문혁 전에 장춘시에는 각 교단 8개 예배당이 있었는데 문혁기간에 교회의 공문서와 서적 등이 파손되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다가 사인방(四人幫) 타도 후 분산되었던 신도가 점차로 모여들어 비공개적인 가정예배가 열리기 시작했다. 1979년 성탄절에 장춘기독교회가 다시 문을 열었고, 1982년 삼자회가 일만 권의 조선어 성경을 재판하였다.

길림성에는 가정교회가 매우 왕성한데, 하남성 전도사들이 건립한 집회소와 산동, 동북지역에 집중되어있던 전도사들이 건립한 교회가 있다. 가정교회는 기도와 성경읽기, 찬송 등과 고난에

대한 설교를 좋아한다. 순수 가정교회 이외에 호 함파(呼喊派)같은 이단도 발생하였고, 또한 한국의 이단종파들에 의해 예수 재림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전래됨에 따라 신도를 미혹하게 하는 일도

발생하였다.

일부 교회는 한족과 조선족이 같이 모이고 있으나, 대부분 조선족 교회와 중국인 교회가 따로 모이고 있다

흑룡강성(黑龍江 Heilongjiang)

위치: 중국 최북단에 위치. 북동쪽은 러시아 연방, 서쪽은 내몽고자치구, 남쪽은 길림성과 연해 있음.

면적: 454,000km²

인구: 3,527만 명(92년), 인구밀도 79명(1인/km²)

민족: 49개 민족이 거주(한족, 만주족, 조선족, 몽고족, 회족, 혁철족, 몽고족, 다우르족, 어문춘족, 키르키즈족 등)

정치 · 행정

· 흑룡강성 지방정부- 省長: 邵奇惠, 副省長: 陳雲林 외 5명.

22개 청(廳), 12개 위원회, 43개의 국(局), 각 분야의 실(室)과 연구소

· 행정구역- 성도(省都) 하얼빈(哈爾濱)

4개 지구-수화(綏化), 흑하(黑河), 송화강(松花江), 대흥안령(大興安嶺)

10개 지급시(地級市)-하얼빈(哈爾濱), 치치하얼(齊齊哈爾), 학강(鶴崗),

쌍압산(雙鴨山), 계서(鷄西), 대경(大庚), 이춘(伊春), 목단강(牡丹江),

가목사(佳木斯), 칠대하(七臺河)

17개 현급시, 52개 현(縣), 407개 진(鎮), 803개 향(鄉)

기후: 연평균 기온 2.4도. 겨울은 혹독한 한랭기후가 5-8개월 계속된다. 여름은 짧지만 우기와 겹치기 때문에 대부분 지역에서 온대작물 재배가 가능.

소수민족의 삶을 품어온 흑룡강

중국에서 8번 째로 긴 강인 흑룡강은 주변 사람들의 삶을 품고 북만주 대평원을 가로지른다.

한때 동북아 무역의 중심무대이기도 했던 흑룡강성. 광활한 평원과 울창한 원시림, 그리고 각 소수민족들이 나름대로의 문화를 간직하며 살고 있는 곳이다. 유목민인 몽고족, 우리에게 친숙한 말갈족(혁철족), 북만주 벌판에서 끈질긴 삶을 살아온 조선족, 그리고 광활한 대지의 주인인 한족 등이 한데 어우러져 조화로운 삶을 영위하고 있다.

흑룡강성은 중국 최북단의 성으로 성내에는 흑룡강, 송화강, 우수리강 등 3개의 강이 흐르며 동부에는 이 세 개의 강으로 둘러싸인 삼강평원이 펼쳐진다. 서부에는 대흥안령, 소흥안령이라는 두 개의 삼림지대가 있다. 흑룡강을 끼고 북한 및 러시아와 국경을 접해 일본, 중국, 러시아 및 한국

과 연결되는 교통요지에 자리잡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시베리아 철도와 연결되어 유럽으로 통하는 길목에 있어 변경무역이 성황을 이루고 있다.

중국에서 자원이 가장 풍부하며 중공업, 화학 공업을 비롯한 농산물의 생산기지인 동시에 자원 수출기지이다. 또한 1959년에 발견된 대경유전(大慶油田)과 더불어 광물자원의 혜택을 입어 중공업이 발달한 곳이기도 하다.

과거 거대한 황무지여서 '북대황(北大荒)'이라 불리기도 했던 이곳이, 치열한 개척정신을 가진 사람들에게 의해 지금은 풍요한 '북방의 창고(北大倉)'로 변하였다. 중국정부는 무한한 개발 잠재력을 갖고 있는 이곳을 개발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얼음의 도시 하얼빈(哈爾濱)

과거 동북아의 중심지였던 탓에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는 흑룡강성의 성도(省都) 하얼빈은 동북평원 북부, 송화강 중류에 자리잡고 있는 인구 200만, 면적 1,637Km²의 수려한 도시이다. 하얼빈이란 지명은 '그물을 말리는 곳'이라는 뜻의 만주어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19세기 말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일본 등 서구열강의 문물을 받아들였던 이곳은 제정 러시아 때 만주의 전진기지로 건설했던 도시로서, 이곳이 과연 중국인가 의아해질 정도로 러시아식 건물이 즐비하다. 길고도 추운 겨울이 되면 시내 각지에서 빙등제(氷燈祭: 얼음조각에 오색의 등을 넣어 세워놓고 벌이는 축제)가 열리며 언 강 위에서 갖가지 겨울 스포츠가 행해진다. 얼음으로 만든 예술품이 하얼빈 시내 곳곳에 진열되어 장관을 이루기 때문에 '얼음의 도시(氷城)'라고도 불린다.

호수의 도시 목단강(牡丹江)

하얼빈에서 단둥(丹東)행 기차를 타고가다 보면 목단강(牡丹江)시가 있다. 목단강이란 이름은 경박호(鏡泊湖)라는 중국 최대의 뚝을 쌓아서 만든 호수에서 흐르는 강 이름을 그대로 딴 것이다. 청대에는 만주족의 성지로 일체 개발을 금지하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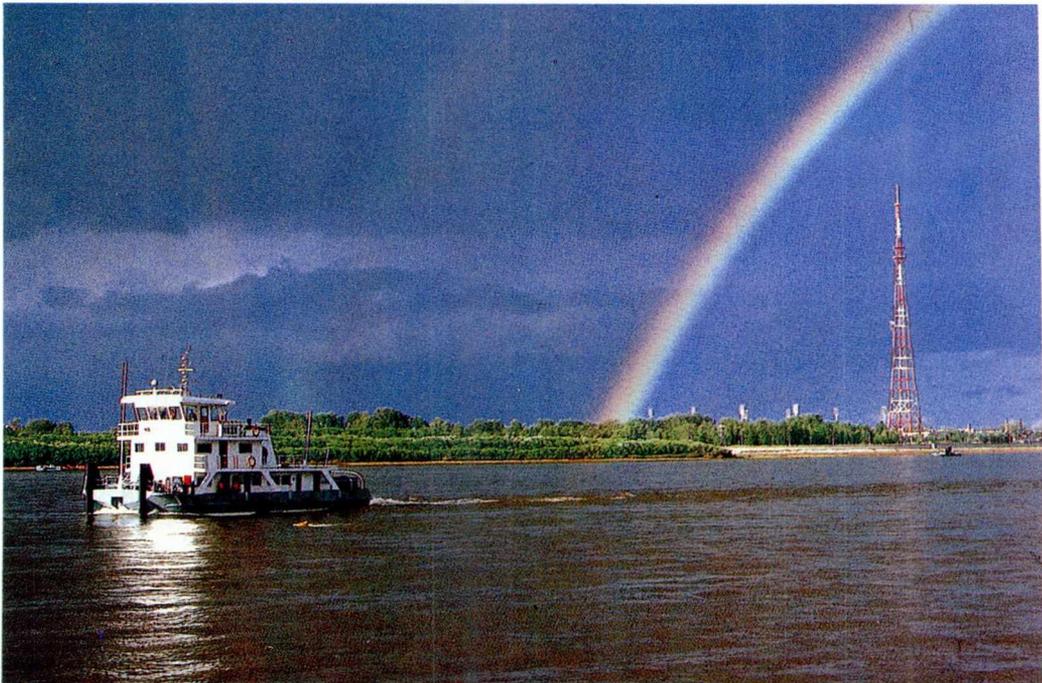
곳인데, 1904년 러일전쟁이 발발함과 동시에 변경 방위를 위해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었으며 서서히 개척되어 갔다. 현재 타이어, 시멘트, 제지, TV 등 많은 공장이 있는 공업 도시로 되었다.

흑룡강성 교회상황

전체적으로 교회가 조직상으로는 연합되어 있으나 신앙상으로는 일률적이지 못한 약점이 있다. 예를 들어 성찬식 때 분리되거나, 교회 지도자층이 노년, 중년, 청년으로 분리되는 현상 등이 그것이다. 소수민족 특히 조선족교회가 왕성하며 한족과도 융합이 잘 되고 있다.

흑룡강성 기독교양회 소속 삼자교회로는, 하얼빈에 남강(南崗) 예배당, 도외(道外) 예배당 등 두 곳의 삼자교회가 있고 그 외 지역으로는, 치치하얼시(齊齊哈爾市) 기독교회, 가목사시(佳木斯市) 기독교회, 대경시(大慶市) 기독교회, 학강시 공업구(鶴崗市工業區) 기독교회, 목단강시(牡丹江市) 기독교회 등이 있다.

중국어문선교회 연구부



흑룡강은 중국 최북단에 있는 큰 강으로 중소경계가 되고있다.

윌리엄 번스 목사와의 동역

허드슨 테일러

1855년 2월, 청 군대가 상하이(上海)를 수복했다. 나는 시내에 집 하나를 세웠다. 전쟁 후의 폐허 속에서 고통당하는 많은 무리들과 함께 살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난 매우 기뻐다. 순회 전도를 위해 늘 밖에 머물러야 했기에 집에 있는 시간은 그리 많지 않았으나, 여전히 내 집은 선교본부로 사용되었다.

몇 개월 전 영국 장로교선교회(English Presbyterian Mission)의 윌리엄 번스(Rev. William Burns) 목사가 막 휴가에서 돌아와 상하이에 도착했다. 원래의 사역지였던 남방의 푸지엔성(福建省)으로 돌아오기 전에, 그도 나처럼 난징(南京)의 태평군(太平軍)을 보고 싶어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이번에 실패의 맛을 본 그는 상하이를 근거지로 3개월 동안 머물면서 근처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다. 그 해 가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는 사랑스럽고 존경스러운 하나님의 종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함께 출발하여 배 위에



서 생활하며 장쑤성(江蘇省) 남쪽, 저장성(浙江省) 북쪽에 있는 크고 작은 도시와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몇 주간의 관찰을 통해 그도 마침내 중국인 복장으로 갈아 입었다. 이후부터 그는 그렇게 다니는 것이 얼마나 편한지 깨닫게 되었다.

수개월 동안 번스 목사와 함께 다니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과 축복을 누렸다. 하나님의 말씀 을 몹시 사모하는 그의 삶은 거룩하고 존경스러웠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 그와

교제를 나눌 때, 고갈된 나의 심령은 만족을 얻을 수 있었다. 그가 들려주는 캐나다, 베를린, 그리고 중국 남쪽에서 일어나는 부흥과 핍박에 관한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은 내게 큰 깨달음을 주었다.

그는 항상 훌륭하고 정확한 견해와 영적 통찰력으로써, 하나님이 시련을 통해 사람으로 하여금 새로운 시각과 가치관으로 모든 생명을 볼 수 있도록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었다. 그는 선교가 교회의 매우 중요한 사역이라고 보았다. 또한 성경에서 요구하는 바대로 평신도가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회복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의 관점들은 이후 조직된 <중국 내지회: China Inland Mission>가 적극적인 열매를 맺는 데 공헌하였다.

다음은 번스 목사가 나와 함께 사역을 하는 동안 스코틀랜드에 있는 그의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 내용의 일부이다.

1856년 1월 26일
“비가 와서 외출을 할 수 없어 게

속 배 안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 틈을 이용하여 어머니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제가 상하이로 떠난 지도 이미 41일이 지났습니다. 이 몇 주 동안 저와 함께 동행한 사람은 <중국선교회>에 소속된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젊은 영국선교사입니다. 두 사람 다 자기의 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은혜를 경험했고, 사역 가운데서 말할 수 없는 큰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어머니, 제가 거듭해서 들려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저는 4주 전 12월 29일부터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중국 옷을 입기 시작했어요. 이미 몇 개월 전부터 복장을 중국식으로 바꿔 입은 테일러씨는 그것 때문에 설교를 하거나 다른 일들을 처리할 때 불필요한 문제를 면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의 방식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이 지역의 사역터는 매우 광활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으로 봐서는 어느 한 곳에서 계속 머물기란 매우 힘든 듯 합니다.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모두 유심히 들읍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람들이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회개하기 위해서는 하늘에서 내려주신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킬시스(Kilsyth)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를 하고 계신지요? 그리고 그들이 해외 선교를 위해 열심히 간구하고자 노력하며 기도하는 마음을 구하고 있는지요? 이곳의 필요는 너무나 큼니다. 정말로 기도의 후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추수해야 할 것은 너무 많으나 일꾼이 몹시 부족합니다.

다.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에게 이 일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적은 무리와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그릇들로 하여금 그의 큰 일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신답니다. 그 엄청난 역사는 과히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전에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저장성 내에 우진(烏鎮)의 인심이 제일 사납고 불량배들의 밀집지역이라고 하였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말은 조금도 과장된 것이 아니었다. 이곳은 문장한 소금 밀매자와 악한 자들이 범죠했고 도피하는 곳이다. 다음은 그 당시 내가 적은 일기의 한 부분이다.

1856년 1월 8일

오늘 아침 우진에서 사역을 시작했다. 많은 소책자들과 성경을 나누어 주었다. 우리를 보고 사람들은 매우 놀란 표정이었다. 우리가 알기로는 전에 외국인인 한 번도 이곳에 온 적이 없던 것 같다.

두 차례 설교를 했는데 한번은 관제묘(關帝廟)에서, 또 한번은 광장에서 했다. 오후에 우리는 똑같은 장소에서, 말씀에 귀 기울이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 설교를 했다. 저녁 무렵, 장소를 찾집으로 옮겼다. 그곳은 설교하기에는 아주 좋은 곳이었다. 이후 우리가 그곳에서 설교한다는 소문이 점점 퍼지자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졌다. 밤이 너무 소란하여 우린 할 수 없이 그 마을을 떠났다. 배로 돌아가 다리 위에 서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다. 마음 속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흘러 넘쳤다.

첫째 날의 전도 성과로 인해 우린 너무나 기뻐 흥분했다.

1월 12일

오전에 강가 가까운 곳에 배를 묶어두고 설교를 하고 있을 때 자칭 포도청에서 나왔다고 하는 사람이 쪽지를 건네왔다. 요는 은전(銀洋) 10냥과 약간의 아편을 내놓으라는 것이었다. 그는 근처 찾집에 50명의 마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며 큰소리 쳤다. 우리가 그들의 요구대로 따르고 300백 원 가량을 자기들의 찻값으로 낸다면 온전히 보내주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으면 당장 와서 배를 불태워 버리겠다고 위협했다.

뱃사공들은 그들을 몹시 두려워했다. 요즘 악당들이 대낮에 돌을 던져 배를 공격하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우리가 가진 배 두 척을 분산시켜 그 중 하나가 습격을 당하더라도 나머지 한 척에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두 척의 배가 떠나는 중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우리는 뱃사공을 만나게 되었고 안전하게 배에 올라탈 수 있었다.

그렇게 한동안 배를 타고 가다 보니 밤이 깊었다. 이런 야밤에 마을에서 배를 타고 가는 것은 악당들을 피해 가는 데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든지 간에 결코 우리 때문에 그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되고 위험을 당하게 해서도 안 되었다. 그들로 하여금 빨리 결정을 내리게끔 재촉하였다. 다음 날이 주일이었기에 우리에게겐 설 곳이 필요했다.



장승원 그림

우린 어딜 가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임무를 완수해야만 한다고 그들에게 설명하였다. 결국 배사공들은 원래 온 데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정을 내렸고 우리는 그 결정에 찬성했다. 배를 돌려 가다보니 예상 밖에 탄 하류를 타게 되었다. 한참 떠내려 갔는데 그곳이 어디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마침내 사방이 온통 캄캄하여져서 사공들은 닻을 내리고 쉬자고 하였다. 우리는 배사공을 부르고 우리를 도와주는 중국인 동역자들도 모이게 하여 그들에게 시편 91편을 낭송해 주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사냥군의 울무에서와 극한 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시편의 말씀이 그때 얼마나 우리의 필요와 상황에 적절한 말씀이었는지, 또 그 말씀 속의 위로가

얼마나 감미로웠는지 여러분은 상상할 수 있겠는가?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의뢰하였다. 그는 캄캄한 밤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고 악인의 손에서 구해 내시고 단잠을 이룰 수 있게 하셨다. 자비로운 손길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저버리지도 않는 하나님이시다.

그날 밤 하나님은 우리들로 편안하고 고요한 가운데 하룻밤을 지내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방패시니」 라는 귀한 말씀의 절실함을 어느 정도 실감하게 하셨다.

1월 14일

구름 한 점 없는 새벽이었다. 중국인 동역자 한 명이 날이 새기 전에 세탁물을 가지러 우리 배에 올라탔다. 그가 전해주는 소식에 따르면, 어제 큰비가 내렸는데도 마을의 악당들이 사망으로 돌아다니

면서 우리를 찾았다고 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밤새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평안함과 온전함을 누릴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소식을 들은 배사공들은 공포에 떨며, 더 이상 머무르고 싶어하지 않았다.

이른 아침 우리는 그곳을 떠났다. 무릎을 다쳐 다리를 움직일 수 없던 나는 계속 배 안에 머무를 수 밖에 없어, 아무런 선택의 여지도 없이 그들의 뜻에 따라야 했다. 오후에 우리는 무사히 평완(平灣)에 도착하여 상하이로 출발했다.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 하는 고난은 좋은 것이요, 축복이 없는 유익은 오히려 해가 된다. 만일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면, 당장은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사실은 성공인 것이다.

편집자 주: 이 글은 홍콩 선도출판사에서 출판한 『獻身中華』에서 발췌하여 번역한 것으로 선도출판사의 승인을 받은 것이다.

번역/ 차이나·본지 편집기자

1913년 중화민국 선교사 사병순 목사 (Ⅱ)



글 / 김교철 선교사

충신대학 신학대학원 졸업
중국선교연구협회 대표연구원
대한예수교 장로회 부개동교회
영어·중국어 예배 담당교역자
인천남동외국인교회, 예일교회
외국인 예배 담당자
중국선교연구협회 연구원

제2편 생애의 후반부(1913~ ?)

제1장 중화민국 선교활동 시기 (1913~1917)

1. 조선 예수교장로회 총회장립(1912)

주후 1912년 9월 1일 평안남도 평양 경창문안 여성 경학원에서 제1회 총회가 회집되어졌다.⁷¹⁾ 창립총회는 “외국전도를 시작하되 지나(중국-필자 주) 등지에 선교사를 파송하자”는 청원을 가결하였다.⁷²⁾ “於1912年, 高麗長老總會, 通過佈道於中國之議案, 遂組織中國佈道部”⁷³⁾

총회의 가결 후에 총회전도국은 창립총회의 헌의 위원이자 전도국 위원 한위렴(W.B.Hunt)과 협의, 그가 먼저 중국을 방문하여 미국 선교사들(중국 주재)과 중국 교회 인사들을 만나 이 문제에 대하여 상의하게 된다. 한위렴의 중국 방문 결과는 매우 긍정적이었다.⁷⁴⁾ 그리하여 총회전도국은 재령읍교회의 위임목사이자 황해노회 서기였던 박태로 목사를 중화민국 선교사로 택하여 1913년 5월 파송, 시찰과 협의 그리고 먼저 어학공부를 짧은 기간이나마 배우도록 하였는데 당시 평남 안주교회 김찬성 목사가 동행을 하였다.⁷⁵⁾

조선 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중화민국 선교를 시작하기 위하여 1912년에 갑자기 중국선교위원회를 조직한 것이 아니라 기존하던 전도부를 전도국으로 변경하여 중화민국 선교업무를 주관해 나가도록 하였다.⁷⁶⁾

총회전도국 위원은 단지 조선인 목사들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고 조선 주재 선교사들도 포함되어 있

71) 총회록, 제1회 (1912), p. 1

72) 중화민국 선교사 파송청원 내막에 대하여는 “PCFMC”, pp. 23~24를 참조하라.

73) 중화기독교회연감, (중화민국 7년, 1918), 제5권, p. 82. 중화기독교회연감 전14권은 중국 상해에서 처음 출판되었다가 중화민국 대만에서 영인본을 만들었다.

74) William N. Blair, OP. CIT., p. 190

75) 예수교회보, 제4권 제26호, 대정 2년 7월 1일자.

76) 중화기독교회연감에 (제5권, 1918) “중국포도부”를 조직했다고 한 기록과 김성준, “한국기독교회사”, (서울: 한국교회교육연구원, 1980), P. 94에 “총회는 중국선교위원회를 조직하고”라는 기록은 부적절한 말이다. 총회전도국이 중화민국 선교를 주관하였으나 별도로 중국선교위원회로 조직한 것은 아니다. 오늘날처럼 전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상황하에서는 국가별, 종족별로 선교위원회를 조직하여 효율적이고 적합하게 선교사업이 진행되도록 해야 하겠다. 선교사를 많이 내보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에 적합한 준비, 조직, 전략, 훈련, 선교분야와 대상에 적합한 선교사 등이 잘 준비, 파송되도록 해야 한다.

었다. 즉 한국인 목회자와 서구선교사들이 연합한 형태의 조직이었다는 것이다. 조선 예수교장로회의 중화민국 선교의 주체는 물론 조선 목사들이었다. 77)

길선주 목사를 중심으로 초기 조선인 목사들이 중화민국 선교비전과 뜻을 세워 조선 주재 선교사들의 협조와 협력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78)

선교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도 어리고 자신들의 지도를 받아야 할 조선 교회가 동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이 아닌 중국 민족에게 선교사를 파송하겠다고 하니 선뜻 나서기는 어려웠을 것이나 협조하는 것이 여러 모로 의미가 있었을 것이다. 79)

조선 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중화민국 선교를 시작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었는가? 길선주는 그의 초록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리는 말씀에 순응하는 믿음의 실천이다. 우리는 이를 이행하기 위해 최대의 힘을 다할 뿐이다.” 80)

즉 주님의 절대적 분부이자 명령에 대한 순종 바로 그것이었다. 간접적인 동기로는 중국에 선교사를 파송해서 한국기독교의 존재와 그 활동을 세계에 알리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한다. 81)

중화민국 산동성 선교사와 상해 조선인교회 전도목사로 크게 활동하였던 방효원 목사는 창립 총회의 분위기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당시에 교회의 최대사명이 무엇임을 의논시에 일반 회원은 동심합력 기도하여 성령의 지시를 기다림이 마치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백이십 명이 고대함같이 하며 드디어 복음사명이 총회의 사절인 것을 일치가결하여 산동선교 사업을 출발케 되었다.” 82)

복음사명에 대한 순종, 언어와 음식, 습관, 기후가 다른 타민족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진리를 널리 전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이다. 83)

2. 총회전도국의 청원과 허락

중화민국 선교사로 먼저 선택된 박태로 목사가 산동성을 단기간 방문하고 귀국하였다. 총회전도국은 박태로 목사에 이어 사병순, 김영훈 목사에게 중국 선교사로 가기를 청원하게 된다. 사병순 목사는 소안

론 선교사와 증산반석방에다리 교회 동사무사로 일하도록 세워졌었다.

누가 사병순에게 선교사로 가는 문제를 먼저 제의했을까? 길선주 목사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당시 평남지역에 있던 많은 교계 인물 중에 그가 가장 적합한 인물로 선정되었던 것이다. 이미 언급한대로 사병순은 알려져 있는 인물이었다. 대리회와 노회 서기로 선출된 바 있다.

사병순 목사는 전도국의 청원을 수락하게 된다. 사병순 목사는 “선교사”라는 직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였을까? 마포삼일, 소안론, 편하설, 방위량, 허거진, 배위량, 이길함, 함가륜, 빌립보, 모의리 선교사들을 가까이서 대할 수 있었던 그가 생각하는 선교사란 어떤 인물로 비쳐졌을까? 84)

사병순이 장로이자 조사로 신학생 시절에 선교사들과 일하게 되는 경험을 갖게 된 것이 선교훈련이라고는 할 수 없을지 모르나 간접적인 배움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선교사로 중국에 가기 위해 어떠한 형태로든지의 선교훈련에 해당하는 과정을 거쳤다고는 볼 수 없다.

사병순 목사가 이해했던 중국, 그리고 산동성은 어떠한 곳이었을까? 한자를 사용하고 공자의 고향이 있는 곳으로, 사람 사는 곳이니 가기만 하면 별 문제 없으리라고 생각했을까도 모르겠다.

사병순 목사는 총회전도국이 적합한 인물로 인정, 중화민국 선교사로 가기를 청원하였고 그 역시 수락하였다. 85)

78) 길진경, “영계 길선주”, (서울:종로서적, 1980), pp. 242~246. 중국연구협회 편, “중국연구 II”, (서울:한국예술사, 1993), pp. 29~31.

79) 조선인 목사와 서구 선교사들의 협력, 역할 문제는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아니하겠다.

80) 길선주 초록, 길진경, 영계 길선주, OP. CIT., p. 243.

81) IBID.

82) 방효원, “산동선교에 대하여”, 계자씨, 65호, (1937), p. 15.

83) 엄도성, “강도사, 목사교시 문제집”, (서울:도서출판 엠마오, 1990), p. 179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170) 산동성에 선교사 파송 이유를 설명하라 (1980년도)-산동성은 공자의 고향이니 기독교는 유교보다 우월한 종교임을 입증하기 위해서였다. 산동성은 공자의 고향 즉 유교의 본산이라서 기독교가 우월하다는 것을 입증키 위해 선교사를 보냈다면 다른 지역은 무슨 이유와 근거를 찾아서 보내야 된다는 말인가. 위 문제집에 나온 170항목의 답은 말도 안된다.

84) 이들 선교사들은 평양을 중심으로 사역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평남노회 소속이었다. 길진경, “영계 길선주목사 유고선집”, pp. 271~272.

85) 총회전도국이 선교사 선발시에 몇 가지 조건을 고려했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세미나 초고 1”, p. 3을 참조하라.

77) 박용규 교수는 한국 교회가 제주도 와 해외선교를 시작하는데 있어서의 그 계획, 결정이 선교사들에 의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길선주 자료는 다르게 말하고 있다. 박용규 교수의 글은 다음과 같다. “처음부터 한국교회를 선교하는 교회로 만들기 계획한 선교사들은 7명의 첫 목사 중에 한 사람 이기풍 선교사를 해외 선교사로 파송하기로 하고 제주도 선교사로 파송하는 한편 한국장로교 교단 안에 선교부를 만들어 해외선교를 가속화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길선주 목사가 그 책임을 맡았던 것이다.” 박용규, “한국교회사상의안”, 충신대학신학대학원, 1995, p. 62.

"The Missionaries sent out by the assembly to its foreign field have always been some of the ablest men of the Church. They are scholarly men who wear Chinese clothes and learn to speak the Chinese language fluently."⁸⁶⁾

당시 총회는 교회에서 인정받고 유능한 사람들을 선교사로 보내려고 노력하였던 것이다. 상대국을 위하여 좋은 선교사들을 보내려고 노력한 점에 대하여는 배울 바 있으나 그에 적합한 훈련과 준비를 시키지 못한 것은 부족한 면이었다.

3. 제2회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와 중국 산동성으로 출발

타문화권 선교사로서의 적절한 훈련과 준비의 기간을 갖지 못한 채 사병순 목사는 총회 파송 중화민국 선교사가 되게 된다. 1913년 9월 8일 제2회 총회가 승동예배당에서 계속 회집할 때 총회는 박태로, 사병순, 김영훈을 언권위원으로 참석토록 동의 가결을 하였다.⁸⁷⁾ 그리고 같은 날 저녁 신문내예배당에서 모일 때 박태로목사가 "산동성 방면 시찰한 정형"을 강설하게 된다.⁸⁸⁾

동년 9월 9일 승동예배당에서 회집 시에 사병순, 박태로, 김영훈 목사 3인은 총회앞에서 지면례를 거행하였고⁸⁹⁾ 사병순 목사는 9월 10일 오후 8시 승동예배당에서 모인 계속 총회 앞에서 설교를 하였다. 90) 사병순 목사가 설교한 본문은 요한복음 13:1~11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었다.

총회 후에 사병순 목사는 평양으로 가서 고국을 떠날 준비를 하였을 것이다. 정든 교회와 교우들과 작별하고 가족들과도 헤어지기 위하여 가까운 곳에 거하는 친척, 친구, 부모님과 만났을 것이다. 사병순 목사를 따라 중국으로 가게 된 목사 사모와 자녀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1913년 가을, 사병순과 그의 가족은 평양을 떠나게 된다. 그들의 중국 길은 물론 박태로, 김영훈의 가족이 함께 하였다. 이미 중국을 다녀온 바 있는 박태로 목사가 여러 이야기를 들려 주었을 것이다.

여러날 배멀미로 고생을 한 후 이들은 성 치푸(Chefoo)에 도착하게 되었다.⁹¹⁾ 토마스 선교사가 조선 선교를 위해 노력하던 곳 치푸, 토마스가 순교의 피를 흘린 땅 평양 바로 그 지역에서 사병순이 선교사가 되어 치푸에 첫 발을 내딛게 된 것이다.

선교사를 살해하던 나라 조선의 평양에서 선교사가 파송되어 중국 산동성 치푸에 도착하게 되었던

것이다.

4. 중화민국 산동성 선교지 생활과 사역

1) 중국교회 지도자들의 태도

중화 예수교 장로회 화북대회가 개척되었을 때 조선총회의 파견을 받은 2인 목사가 (박태로, 김찬성) 조선교회의 산동선교 문제를 제출하였다.⁹²⁾ 당시 화북대회원 중에 영향력 있고 유명한 한 회원이 다음과 같이 말하며 반대를 분명히 하였다.

"중화는 고대의 문명국이오 역사가 심장한 대국이며 세계 4분지 1의 인구를 가진 국가라 교만과 자존심이 많아 자칭 대국이라 하여 소국을 멸시하는 고래적 습행이 있으니 중화와 조선은 자고로 관계가 되어 대소와 조완의 차별을 두난 관계로 조선교회가 중화에 선교는 다방으로 고난이라"⁹³⁾

교섭 당시는 불가능이었으나 결국 화북대회는 일치 가결로 허락하게 된다.⁹⁴⁾

사병순 목사 일행이 산동성에 도착하였을 때 그들은 마중나온 사람은 이전에 평양 장대원교회를 출석한 적이 있었던 한 명의 중국인 신자였다. 사병순 목사 일행이 산동성 연대에 도착하여 서양선교사 리 목사를 방문하였는데 리 목사는 산동성노회에 참석하자고 하였다.⁹⁵⁾ 그러나 사병순, 박태로, 김영훈 목사는 참석을 아니하였다.

사세 불편하다고 하여 불참한 것이 이해는 되지만 조선선교사들의 도착 소식을 들은 중국 교회 특히 산동노회원들은 조선선교사들을 보고자 했을 것이다. 조선 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중화민국에 선교사를 보내어 교회를 세우면 그 나라 노회에 속하게 하고

87) 총회록, 제2회, (1913), p. 5.

88) IBID., p. 6.

89) IBID., p. 8.

90) IBID., p. 28. 박태로, 김영훈, 사병순에 이어서 1917년 중화민국 산동성 선교사로 파송되었던 방효원, 홍승한 목사도 제2회 총회에 총대로 참석하였다. 방, 홍 목사도 초기 3인의 선교사 파송 장면을 보고 있었을 것이다.

91) WM. C. Kerr., "Abstract of the address of the Korean Missionary to Shantung", K. M. F., VOL. VII(1916), p. 71.

92) 방효원, "산동선교의 대하야", 계사씨, 66호 (1937. 2), p. 30.

93) IBID.

94) 당시 조선교회가 선교사를 보내기 전에 현지 교회의 삼당기관과 협의를 통해 협조를 구한 것은 바람직한 선행이라 할 수 있다. 현지 교회를 존중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오늘날 중국선교에 있어서도 삼자와 가정교회 모두를 존중해야 한다. 바른 신학과 신앙을 가진 성경적인 교회를 더욱 중시해야 한다. 중국 삼자교회의 신학사상에 대하여는 왕쓰웨이, "중국 삼자교회의 신학사상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94)을 참조하라.

95) 총회록, 제4회, (1915), p. 10.

86) Harry A. Rhodes, "History of the Korea Mission Presbyterian Church U.S.A. 1884~1934", VOL. I, (서울: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교육부, 1984), p. 395

따로 교회를 세우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중국 교회 측에 밝힌 바도 있으므로 산동노회에 참석하는 것이 바른 순서였을 것이다.⁹⁶⁾

서구선교사들만이 대거 활동하던 시대에 아시아 출신의 선교사, 소국이라고 멸시하는 나라요 나라까지 빼앗긴 민족 조선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란 너무도 생소하고 중국 교회 지도자들에게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다.⁹⁷⁾

2) 문화적 충격

사병순 일행은 1913년 11월에 임지인 중화민국 산동성 래양현에 도착하게 된다.⁹⁸⁾ 고국을 떠나 선교임지인 래양현에 도착하기까지 배멀미, 교통의 불편함, 생소한 여관, 고국과 전혀 다른 풍경과 아이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 등 예상 밖의 상황들은 선교사 부인과 자녀들에게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다. 선교사 자녀들은 슬퍼하였고 사모들은 고국 생각이 간절하였다.⁹⁹⁾ 사병순 목사는 사모나 자녀들 보다는 문화적 충격을 덜 받았을 것이다.

래양현에 선교사 일행이 도착하자 그들을 돕기로 되어있던 그곳의 중국인 전도자가 나와 일행을 한번 쳐다보고는 떠나버렸다. 새로운 사역자들이 오게 되어 자신의 일자리를 잃게 될까봐 시기심이 일어났던 것일까? 중국인 전도자(A Chinese Evangelist)가 느닷없이 가버리자 선교사 일행은 가련한 모습으로 이국의 황혼녘에 남겨 되었던 것이다.¹⁰⁰⁾

그들을 존중해 주던 고국의 교회가 매우 그리웠던 순간이었을 것이다. 산동성 연대에서부터 동행하였을 것으로 추측되는 중국어교사가 그들을 도와주어서 마련된 중국인 가옥에 여장을 풀게 되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래양현의 서문내(西門內)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던 것이다.¹⁰¹⁾

선교사 가족들 중에 가장 크게 문화적인 충격을 경험한 사람은 역시 사모들이었다. 남편들은 언어공부와 외부인사 접촉 등 기본전환의 기회가 아내들보다는 많았다. 그러나 사모들은 음식을 장만하는 것부터가 큰 골칫거리였다. 자유롭게 시장을 볼 수 있는 처지도 아니고 게다가 쌀은 구경도 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갑자기 중국인들처럼 식습관을 바꿀 수도 없고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곡물이라고는 밀가루, 소미(小米-좁쌀) 등이었다.¹⁰²⁾ 사모들은 집안에 관계된 수많은 매일의 잡일들과 일상생활의 불편함 등을 견뎌나가야만 했다.

사병순 목사의 사모 역시 본국의 여러 가지 편리함과 즐거움들을 더욱 그리워하게 되었다. 쌀이 없으므로 대신 소미밥을 먹을 수밖에 없었고 중국말을 익혀 나가는 것이 어렵기만 하였던 것이다.¹⁰³⁾ 아이들에게 병이 나도 어디 마땅히 찾아가서 진찰과 처방을 받을 수도 없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선교임지 래양현 서문내에서의 생활은 어렵기만 하였다. 래양현에서의 첫 겨울을 어떻게 보냈을까? 고국의 온돌방이 그리웠을 것이다. 중국인들은 우리와 주거문화가 다르니 중국인 가옥에서의 생활도 불편함이 많았을 것이다. 가옥의 불편, 고국과는 전혀 다른 식습관, 언어, 친숙하지 못한 여러 가지 문화적 요소들, 질병에 대한 염려들, 사소한 불편들로 충격을 경험해야 했다.¹⁰⁴⁾

3) 중국어 공부

사병순 목사와 그 일행이 선교임지인 래양현으로 부임할 때 어학선생이 이미 동행하여 돕기 시작하였다.¹⁰⁵⁾ 조선선교사들의 언어공부를 위해 미리 적합한 중국어선생이 배려되어 있었던 것이다. 산동성 래양현에서 사역하려면 산동 지방말을 잘 익혀야 했으므로 산동출신 중국인 어학선생에게서 산동발음을 배워나가게 되었다. 어학선생의 월급은 본국 총회전도국에서 세운 예산대로 지출이 되어졌고, 선교사가 어학선생 월급 결정 등에는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당시 어학선생은 조선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었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 본다.

조선선교사 사병순, 박태로, 김영훈은 선교임지로 곧장 부임하여 현지에서 어학공부를 시작하는 방식을 취하게 되었으나, 당시 산동성 연대에는 서구선교사들을 위한 언어학교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서 신입선교사들이 중국어를 배우는 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¹⁰⁶⁾

"In 1913 three Korean pastors were sent to open this work. Already knowing written Chinese characters, these Korean foreign Missionaries learned the spoken language very quickly. They were able to adapt themselves to the Chinese culture more rapidly than their western counterparts and

97) WM. C. Kerr., OP. CIT., p. 71.

98) 박상순, "산동선교의 소식", 개자씨, 51호, (1935. 11), p. 16.

99) WM. C. Kerr., OP. CIT., pp. 71~72.

100) IBID.

101) "중화통신", 기독교신보, 1916. 1. 26일자.

102) 방지일, OP. CIT., p. 22.

103) IBID., p. 23.

104) 선교사로 파송되기 전에 문화적 충격 극복에 필요한 내용을 익혀야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목사 선교사 뿐만아니라 선교사 사모도 필요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 사모의 충격과 갈등이 심화되면 선교사 역시 어려움에 직면케 될 것이고 파송한 본국 교회와 선교사, 현지교회 등 모두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이다.

105) WM. C. Kerr., OP. CIT., p. 72.

106) 클레어 토레이존슨, "내 사랑 황하를 흘러", (서울:국민일보 출판국, 1992), pp. 48~49.

96) 총회록, 제2회, (1913), p. 25.

promptly earned the respect and admiration of other Missionaries and Chinese Christians.”¹⁰⁷⁾

비록 언어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한 것은 아니나 조선선교사 사병순, 박태로, 김영훈은 이미 한자를 알고 있었으므로 빠른 속도로 중국말을 배워나가기 시작하였다.

1915년 가을 총회전도국 보고서에 “중화민국 선교사의 어학형편은 점점 진보하오며” 라는 내용이 나타나 있으며,¹⁰⁸⁾ 1916년에는 “중화민국 선교사가 다 한어를 배워 강도(講道)와 전도하는 데 잘하오며”라고 보고되었다.¹⁰⁹⁾

1913~1916년 가을까지의 어학공부로 기본적인 중국말을 익혔을 것이고 강도(설교-필자 주)를 잘한다고 보고는 되어 있지만 깊이있게 말씀을 다루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다른 나라의 말을 배우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1917년 중화민국 선교사로 산둥 래양에 파송된 홍승한 목사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세상에 학습키 용이한 문자는 별무하되 중국 한 문자란 것은 자수의 번다와 자의의 변동과 성음의 분별이 천태만상이라 학(學:배우기-필자 주)키 심난하여 10년 이상을 학습하여야 서책을 간투하고 장구를 제작하는 고로 부가자제나 능히 입학하고 빈가자제는 능히 하지 못함으로”¹¹⁰⁾

선교사 사모들은 어떠하였는가? 가사노동과 자녀양육 등으로 중국어를 제대로 익혀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못하였다.¹¹¹⁾

4) 래양 선교 내력

조선선교사들이 부임하여 선교사역을 시작할 선교지로 정해진 지역은 산둥성 행양현과 래양현 지역이었다.¹¹²⁾

“Such a field was assigned to them by the China Miss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U.S.A.”¹¹³⁾

방지일 목사의 말대로 이미 중국에 선교하고 있는 미북장로교 선교부와 중국 교회에 조선선교사 파송에 대하여 의뢰하였을 때 표면상으로는 옳다고 칭찬하였으나 속으로는 어린 교회가 벌써 무슨 선교를 할 수 있으랴 생각하여 산둥성 복판에 위치한 한 마을 래양을 선교해 보라고 시험삼아 추천하였던 것이다.¹¹⁴⁾

조선선교사 사병순 목사가 래양에 도착하기 이전부터 서양선교사들에 의해 선교사역이 진행되고 있었다. 1862년 미북장로교 선교사 콜벳(곽현덕-중국명) 목사가 산둥 각처를 순회하기 시작한 때부터 래

양에 전도가 시작되었다.¹¹⁵⁾ 콜벳 목사가 중국에 처음 와서 전도하여 처음 얻은 교인이 래양성 내 왕모요, 그 후 사오십 년간 외촌 등지에는 교인이 생기되 성내에는 한명의 교인도 생기지 아니하다가, 1912년에 이르러 복음당(전도실)을 설립하고 중국전도인과 미국선교사가 거주하면서 전도하되 교인이 생기지 아니하고 있던 중이었다.

1913년 11월 조선선교사 사병순, 박태로, 김영훈이 도착, 언어를 배우면서 선교한 후로 몇몇 교인을 새로 얻고 부근 각촌에 본래 있던 교인 오륙 인을 합하여 성내에 교회를 마침내 이루게 된 것이다.¹¹⁶⁾ 래양에 와서 선교를 시작하였던 콜벳 목사는 조선선교사들이 중국에 선교사로 파송된 사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지금 82세요 53년 전에 연대에 래하였으며, 49년 전에 평양성에 래하여 선교사(토마스를 말함-필자 주) 살해한 사건을 문사하여 보았는데, 기시에는 조선국에 신자 1인이 무하더니 지금은 교회가 왕성하여 중국에 선교사까지 파견을 하였으니 실로 감사하다.”¹¹⁷⁾

토마스 선교사 살해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파견된 기선에 콜벳 목사가 통역으로 동승하였으므로 평양 지역에서 파견되어 온 사병순 목사에 대하여는 그 감상이 실로 더 하였을 것이다.

5) 래양에서의 선교사역과 방침

조선 예수교장로회 총회는 그 첫 선교사들을 보내면서 「전도와 교회개척」을 목적으로한 목사 선교사들을 파송하였다.

사병순 선교사 역시 목회훈련과 신학공부를 통해 목사선교사로 기본적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사병순 목사와 그 동료들은 선교지에 도착한 이후 문서를 통한 전도를 시작하였고 1915년 가을과 겨울에 오륙인의 신입교인을 얻어 교인이 모두 30여 명에 이르게 되었다.¹¹⁸⁾ 물론 사병순, 박태로, 김영훈 목사가 업무분담을 하였을 것이다. 1915년에는 처음으로 3명이 세례를 받게 되었다.¹¹⁹⁾

108) 총회록, 제4회, (1915), p. 34.

109) 총회록, 제5회, (1916), p. 28.

110) 홍승한, OP. CIT., pp. 242~243.

111) WM. C.Kerr., OP. CIT., p. 74

112) 총회록, 제2회, (1913), p. 59.

113) George Thompson Brown., OP. CIT., pp. 95.

114) 방지일, “산동선교이십년”, 파수군, 제103호 (1960. 10), p. 25(고신대학 신학대학원 영인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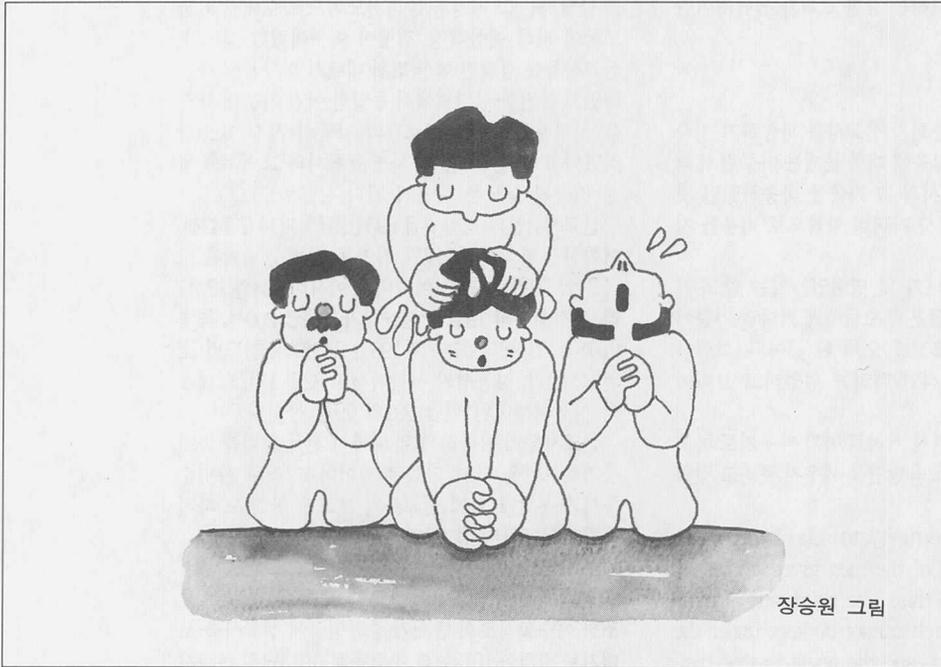
115) 홍승한, OP. CIT., p. 241.

116) IBID.

117) 이일영, “중국산둥여행기(속)”, 기독교보, 1916. 8. 23일자

118) 교인의 총수는 40여명, 평균 30여명이 회집하였다.

107) George Thompson Brown., “Mission to Korea”, (서울: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부, 1984), p. 95.



장승원 그림

“The Korean Missionaries are determined to baptize no one who has not given up his former bad habits of life.”¹²⁰⁾

과거의 나쁜 습관을 버리고 믿음의 선한 증거를 보인 중국인들에게 세례를 베풀기로 결정하였던 것이다.

사병순 목사와 신학졸업 동기이자 같이 선교사로 사역한 김영훈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전도하는 방법과 교회를 처리하는 것을 개량하여 다 진리대로 행하고 주일강론회와 수요일 기도회를 설립한 일과”¹²¹⁾

사병순 목사와 그의 동료들은 조선 교회 방식대로 선교사업을 진행해 나가려 하였다. 그에 대하여 중국노회와 대회는 조선선교사들의 일하는 방침에 대하여 불환영의 태도를 취하였다.¹²²⁾

게다가 조선 예수교장로회가 교회를 세워 중국노회에 속하게 하고 따로 교회를 세우지 아니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기는 하였으나, 선교사의 소속을 본국에 두고 중국노회에 이명치 않은 상대였기에 처음에는 더욱 그러하였을 것이다.¹²³⁾ 조선예수교 장로회의 중화민국 선교는 현지교회와 연합하는 방식을 취하되 전도와 교회개척에 주력하였던 것이다.

1915년 성탄절에는 30명 교우가 합동 연보하여 감옥에 들어가 죄수들에게 전도를 하는 등 열심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자 했다. 당시 래양에 세워진 교회는 완전한 조직교회가 아닌 전도실의 기능을 가진

미조직 교회로 복음당이라 불리워졌다(산동성 래양 현 서문안 복음당).

1916년 가을 경의 교세를 보면 세례인 12명, 원입인 30명, 회집인원 40여 명에 매주일마다 주일헌금이 팔구십 전으로 주일헌금 도합이 50원이었다.¹²⁴⁾ 조선선교사들이 헌금을 강조한 것을 알 수 있다.

중국 교인들의 헌금으로 중국 교회가 자급해 나가야 자립의 문이 열릴 수 있는 것이다. 광안련은 당시의 중국 교인들의 연보정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 선교사가 말을 통하여 전도하기 시작하자, 중국 교인은 연보에 대한 정신이 도무지기 때문에 교회에 돈 드는 일은 전부 의뢰하는 것뿐이었고”¹²⁵⁾

비록 적은 헌금이었으나 헌금을 강조하여 헌금을 드리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그것은 중국 교회를 위하는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선교사들이나

120) WM. C. Kerr, OP. CIT., p. 73.

121) 총회록, 제4회, (1915), pp. 10~11.

122) 광안련, “장로교회사전취집”, (평양:북장로교회선교회, 1935), p. 105. 한국교회 방식을 선교지에 그대로 이식하려는 문제에 대하여는 별도의 연구를 통해 다루고자 한다. 조선교회의 산동선교 방침에 대하여서도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아니하겠다.

123) 조선선교사들의 이명은 1916년 가을 총회에서 결정이 되어진다. 이 문제에 대하여서는 중국연구협회, “중국선교Ⅲ”, (인천:도서출판 청심당, 1994), pp. 32~35을 참조하라.

124) 총회록 제5회, (1916), p. 28.

125) 광안련, 장로교회사전취집, p. 103.

외부에 의존하지 아니하는 강한 교회가 세워져야만 하는 것이다.¹²⁶⁾

6) 선교사 자녀교육

조선 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기는 하였으나 선교사 자녀교육에 대한 문제는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선교사와 그 가족을 파송하였던 것이다. 단지 매월 선교사 자녀비 항목으로 비용을 지출한 것 뿐이다.

사병순 목사의 자녀가 몇 명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 선교사의 자녀들은 부모들에게 커다란 기쁨이요, 부모 때문에 선교지에 오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들을 위한 전인격적인 배려는 없었다고 보아야 하겠다.

목사의 자녀들이 역시 거리로 나가 싸우기도 하고 저속한 말을 배워도 교육방안을 세우지 못하고 있었다.

"There is no opportunity to school their children unless one of the men gives up his Church work to do this. The courtyard is so small that the children cannot be kept under the eyes of their parents, and the result is that they run the streets, fight, and learn the very dregs of the Chinese vocabulary."¹²⁷⁾

한국선교사 자녀들의 교육문제에 대하여 서구선교사가 언급한 글이다. 선교사 자녀들이 어릴 때에는 그런대로 꾸러나간다고 해도 자녀들의 장래를 생각해 볼 때에 그러저럭 꾸러나갈 성질의 일이 아닌 것이다. 선교사로 헌신하는 결심을 하는 것 이외에 선교사 생활 중 가장 어려운 점이 있다면 역시 선교사 자녀의 장래에 관한 일을 들 수 있다.¹²⁸⁾

선교사 자녀교육 문제가 1915년 제5회 조선 예수교장로회 총회에 언급되었으나 그에 대한 방안은 마련되지 못하였다.¹²⁹⁾

7) 산동선교비 모금과 지출

조선 예수교장로회가 중화민국에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그 재정은 전국 교회의 감사헌금, 헌물로 충당하기로 하였다. 당시 사회여건상 감사절 주일에 가장 많은 헌금과 헌물이 드려졌는데, 그 액수와 비중으로 치면 교회운영에 있어서 1년 경상비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액수였다.

조선 예수교장로회 소속 전국 교회가 보낸 감사헌금, 헌물이 중화민국 선교 재정으로 사용되어졌던 것이다. 각 교회의 헌금이 노회 담당자에게 보내지

126) 오늘날 한국 교회가 중국선교라는 이름 하에 중국 교회 건축과 전도인들 재정을 보조하는 일들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문제가 많다. 진정으로 중국 교회를 위한 길이라고 볼 수 없다. 1920년대에 조선교회가 산동선교지 중국인 전도인들에게 월봉지불하는 문제에 대하여 강한 비판이 있었다.

고 담당자는 그 재정을 총회전도국으로 보내 총회전도국에 의해 예산책정, 집행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선교사들은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였고 동일한 사역지에서 동일한 여건 가운데 사역을 시작하였으므로 서로간의 갈등이 생길 요소가 적었다고 볼 수 있다.¹³⁰⁾ 사병순 목사와 그 동료들에게 지출된 항목은 다음과 같다.

선교사 3인의 팔삭월급 690원, 팔삭자녀금 143원, 어학선생 팔삭월급 117원, 김영훈, 사병순 랑씨를 도와준 것 50원, 선교사 여행비와 이사비 134원 12전 1리, 응접실용비 19원 52전 1리, 가옥세금 200원, 특별비 78원 86전 8리, 수리비 198원 34전 9리, 전도비 12원 82전 4리, 김찬성씨 시찰여행비 62원 1전, 박태로씨 시찰여행비와 월급 291원 79전 등이다.¹³¹⁾

선교사들이 귀국하게 될 때마다 전국 교회를 돌며 사역보고만을 하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사병순 목사는 본국 교회에 선교사역 보고를 한 번도 하지 못하고 선교사역을 끝마치게 되었다.

8) 안식년제도 및 기타 선교사 규칙

조선 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중화민국에 선교사를 보내기로 결의한 1912년의 창립총회, 1913년의 선교사 파송, 그러나 선교사 파송규칙이나 규정 등은 문서화 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안식년 제도 역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사병순 목사가 선교지로 나온 지 3년이 넘어가도 안식년에 대한 문제는 거론이 안 된 것 같다. 안식년 규정이 마련된 것은 사병순 목사가 선교지를 떠난 이후인 1918년에야 마련되어졌다.¹³²⁾ 기타 선교사 규칙도 1918년에야 처음으로 정리가 되었다.

제2장 선교지 떠남과 그 이후 시기 (1917. 5 ~ ?)

1. 선교지에서의 무단사퇴

조선 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처음으로 시도한 중화민국 선교, 그리고 파송된 3명의 선교사. 그러나 1916년에 박태로 목사와 그 가족은 건강문제로 귀국의 길을 택하게 되고, 선교지에 남겨진 사병순 목사와 김영훈 목사는 고민에 빠지게 된다.

127) WM. C. Kerr., OP. CIT., p. 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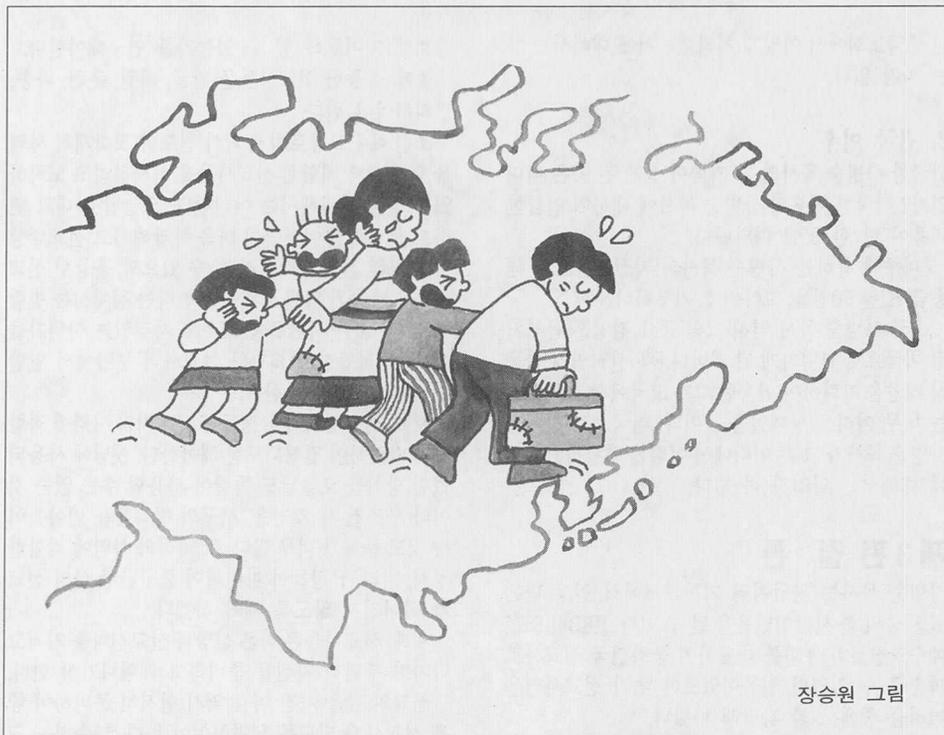
128) 선교사 자녀 문제에 대하여서는 "조선선교사들의 자녀교육의 다양한 사례"를 역사적 근거를 들어 추후에 발표하고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아니하겠다.

129) 총회록, 제5회, (1916), p. 10

130) 선교대상국과 지역, 사역내용에 따라 선교사와 협의, 예산책정, 집행, 결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131) 총회록, 제3회, (1914), pp. 15~16.

132) 1918년부터 안식년 제도가 생겼으며 기간은 매 3년-매5년-매7년 등으로 변경되었다. 조선선교사의 안식년 문제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아니하겠다.



장승원 그림

총회전도국의 청원과 허락에 의하여 선교지에 나왔으나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열정,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되어 갔다. 생각도 못해 본 여러 가지 문화적 충격,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모와 자녀들, 건강과 질병, 자녀들의 교육문제 등이 표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게다가 8개월 만에 걸친 가뭄으로 인한 물가상승 등으로 선교사 가족들은 큰 곤경을 겪게 된다. 결국 사병순 목사와 김영훈 목사는 선교지 래양을 떠나게 된다. 중국 교인들은 어떠한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을까?

“중국선교사 사병순, 김영훈 양씨는 전도국 허락 없이 환국하였사오며”¹³³⁾

당시 총회전도국장 김건두의 보고이다. 대대적인 환회와 기대로 전국 교회의 추수감사 연보를 모아 보냈던 선교사 사병순, 김영훈 목사는 총회전도국과 상의하지 않은 채 허락도 받지 않고 선교지를 떠나 버린 것이다. 이들을 보낸 총회와 선교사 모두에게 책임을 돌려야 할 것이다.

당시 시대적인 상황이나 이런 한국 교회의 상황으로 볼 때 중화민국 선교를 시도하였다는 점 하나만으로도 참 하기 어려운 일을 시작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신앙적 열정과 주님의 분부에 대한 절대적 순종, 선교적 비전을 높이 사야 할 것이다. 반면, 타문화권 선교에 대하여 좀 더 준비치 못한 상태에

서 선교사를 파송하였으며 선교사 역시 적절한 준비와 훈련이 부족한 상태에서 선교지로 나간 것이 이런 불행한 결말을 보게 한 것이다.¹³⁴⁾

사병순 목사는 그 가족과 함께 귀국하게 된다. 1917년 4월 말경이다.¹³⁵⁾ 사병순 목사와 김영훈 목사의 무단자퇴에 총회전도국 담당자들이 충격을 받았을 것임에 틀림없다. 선교지를 허락도 없이 떠난, 사병순, 김영훈 목사를 어떻게 처리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의논하게 된다. 그리고 조선 예수교장로회 총회는 이들에 대하여 관대한 처분을 내리게 된다.

“산동 선교사로 갔던 김영훈, 사병순, 박태로 3씨에게 위로하는 문안과 이후에도 주의 일을 보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편지하되 회장과 서기에게 맡겨하기로 동의 가결하다.”¹³⁶⁾

산동선교지에서의 고충을 이해하고 앞으로도 주의 일을 보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혀 사역의 길을 열어주었던 것이다.¹³⁷⁾ 사병순 목사가 소속되어 있

134) 중국연구협회, “중국선교Ⅲ”, pp. 36~38에 “선교지 철수”에 대하여 상세히 다루었다. 참고:중국연구협회 명칭이 중국선교연구협회로 변경되었다.

135) 사병순, 김영훈이 무단자퇴하자 총회전도국은 박태로 목사와 방효원 목사를 우선 급파하게 된다 (1917년 5월 7일경).

136) 총회록, 제6회, (1917), p. 40. 회장은 한석진, 서기 장덕로였다.

133) 총회록, 제6회, (1917), p. 21

던 중국노회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

2. 귀국 이후

귀국한 사병순 목사와 그 가족이 살게 된 곳은 어디인가? 귀국한 이후의 사병순 목사에 대하여 언급한 내용이 단 한 곳에 나타난다.

“미주에 류하는 사병순 목사의 자선소용으로 혜송금 82원 70전을 고아원에 기부하다”¹³⁸⁾

결국 사병순 목사 역시 그의 동료 김영훈 목사처럼 미국으로 건너가게 된 것이다.¹³⁹⁾ 선교입지 산동성 래양을 자퇴하여 귀국한 그가 고국에서 사역하기는 너무 어려운 상태였을 것이다. 미국으로 건너간 사병순 목사가 그 후 어디에서 어떻게 생활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다.

제3편 결 론

사병순 목사는 평남지역 기독교계에서 인정 받은 일꾼 중의 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다. 1913년 조선 예수교장로회 총회를 대표하여 중화민국 선교사로 파송될 수 있었던 인물이었으며 초기 선교사역을 어려움 중에도 잘 감당해 나갔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초기 한국 교회의 해외 타문화권 선교사로 좋은 선례를 남기지 못하고 선교지 무단이탈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당사자로 남게 되었다. 너무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조선 예수교장로회 총회 역시 좋은 출발을 하였고 좋은 선교사들을 선발, 파송하기는 했으나 타문화권 해외선교에 대하여는 경험이 전무하던 때였으므로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다.¹⁴⁰⁾

80여 년이 경과한 오늘날, 한국 교회의 해외선교, 중국선교는 과연 어떻게 진행되고있을까?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고 있다는 보장이 없다. 이제 간략히 몇 가지 교훈을 정리하면서 본 연구를 마무리지어야 하겠다.

첫째, 우리의 선교역사와 인물에 대하여 더 큰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먼저 1913년부터 선교사로 파송된 인물부터 시작하여 다각적인 측면에서 연구, 조명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선교사를 파송하기만 하면 선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옛 인물 등의 사역, 고뇌, 갈등, 보람들을 찾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겠다. 동일한 실수와 시행착오가 반복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의 한정된 선교재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세계복

음화에 기여토록 할 수 있는가를 연구해야한다.

둘째, 훌륭한 선교사들을 발굴, 지원, 훈련, 파송, 관리하여야 한다.

조선 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전도와 교회개척 사역을 위해 그에 적합한 선교사들을 선택하려고 노력하였던 점을 간과해서는 아니된다. 오늘날 시대가 변하고 선교적인 여건들이 더욱 복잡해지고 선교대상국도 가히 전 세계적이라 할 수 있으며, 훌륭한 선교사들을 파송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다. 젊은 사람들을 키우고 자질있는 사역자들이 그에 적합한 선교지와 선교사역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셋째, 선교정책과 규정들을 선교지와 사역에 적합하게 마련하여 집행되도록 해야한다. 옛날에 사용되었던 방식을 오늘날도 똑같이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나 무조건 새 것만을, 서구의 방식들을 받아들이는 것도 문제가 너무 많다. 각 나라와 사역에 적합한 정책, 원리, 규정들이 마련되어 중구난방 식의 선교가 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

넷째, 선교사들은 바른 신앙과 선교신학을 가지고 나가며 부단히 자신을 준비하고 배워나가야 한다.

선교의 꿈을 가진 이들 역시 철저히 준비하여 좋은 선교사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파송하는 교회, 선교기관, 인물 모두가 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교인이 늘어나 선교비가 많다고 선교가 잘 되는 것이 아니다. 중국민족과 세계선교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기회에 가장 놀라운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준비하는 한국 교회가 되어야 하겠다.

다음 호부터는

「1917년 중화민국 선교사 홍승한 목사」
가 연재됩니다.

138) 백낙준, OP. CIT., p. 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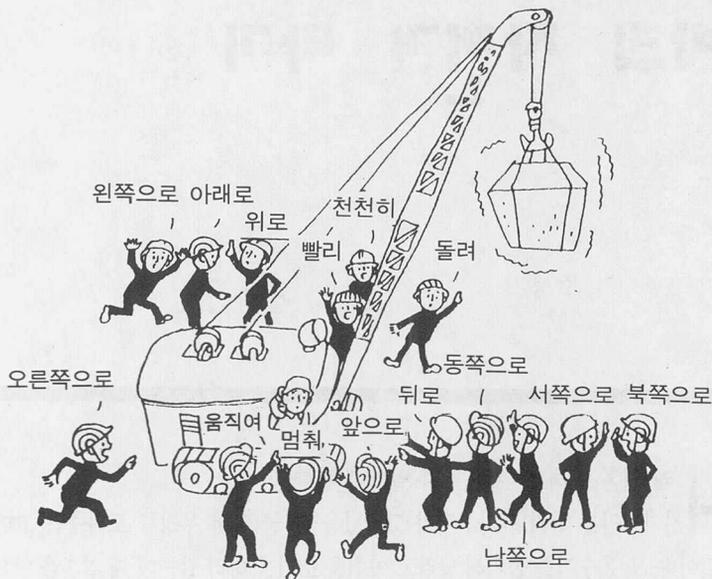
139) 미국으로 가게 된 배경에 대한 내용은 “세미나 초고 1”, pp. 9~10을 참조하라.

140) 조선 주재 서구선교사들은 조선선교의 경험을 가지고 조선목사들과 함께 중화민국 선교사업에 동역하였다. 그러나 중화민국 선교의 주체는 조선목사였다. 서구선교사들도 조선 선교사로 일을 시작하였으나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에 대한 경험은 없었다. 서구선교사들과 조선목사들이 연합하여 타문화권 선교를 시도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137) 기독교대백과사전(서울:기독교문사), 제8권, p. 509에 “사병순 목사는 장로회 전도국의 허락없이 귀환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고 말았다”라고 기록하였는데 근거없는 내용이다. 사병순은 정직 처분을 받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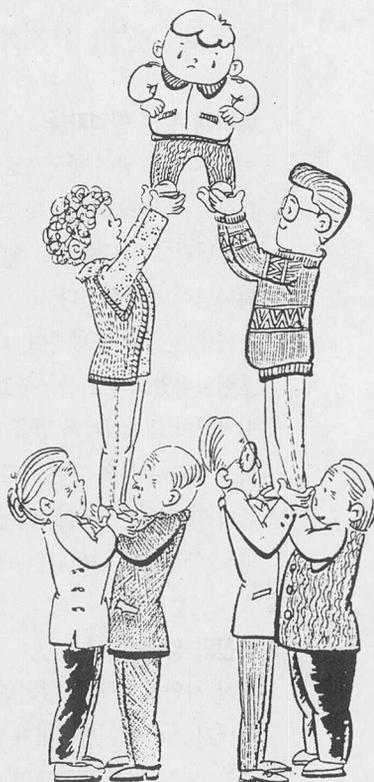
누구 말을 들어야 하나(無所適從)

潘文輝



금자탑(金字塔)

喬林



'한 자녀남기'의 결과인 '小皇帝'를 상징하는 만화.
 외동아들, 외동딸로 자란 부부가 또 다시 외아들을
 낳아 받들어 키우는 것을 풍자.

외박귀 자전거 타기

주성지

“언니 왜 결혼 안해요? 결혼하면 얼마나 편한데...”

전기수리를 하거나 자전거가 고장났을 때 늘 와서 우리를 도와주는 고마운 친구 부인의 말이다. 또 온수기를 설치해 달라고 아쉬운 소리를 하러 갔는데 왜 결혼을 안해 고생을 하느냐고 성화다. 독신도 은사라는 말로 늘 자기방어를 해왔는데, 막상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앞에서는 ‘왜 사서 고생인가’라는 생각도 해본다.

예비해 두신 동역자들

처음 사역을 위해 중국으로 오기 직전, 며칠 기도원에 가 있었다. 같은 방에서 기도하던 분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 분 말씀이, 동역자는 아니더라도 중국까지 함께 갈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자고 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 분과 함께 동행자를 위해 기도한 것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처음 중국에 도착하여, 내가 갈 목적지로 가는 도중 그곳에 사는 조선족을 만나게 되어 초행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없이 도착할 수 있었다. 한번은 기차가 10시간이나 연착되어 대합실에서 밤을 지새운 적이 있다. 어떡해야 하나 염려하며 기도했는데, 우연히도 아는 후배 부부와 같은 차로 가게 되어 지겹지 않게 여행할 수 있었다. 그 후로도 짐이 많거나 혼자 가기 힘든 지역을 여행해야 할 경우 늘 동행자를 만나게 되었다. 내가 미처 구하지 못할 때도 동행자가 나타나면 그제야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고 있음에 감사한다.

독신의 양면성

독신 사역의 장점을 들라면, 돌보아야 할 가족이 없으므로 가족간의 갈등으로 인한 정신적 에너지 소비와 시간낭비가 없다는 것이다. 또 얽매이는 곳이 적기 때문에 사역을 위한 이동이 쉽고, 일단 일이 결정되면 몰두하여 전념할 수 있다. 때로 동료 사모님들이 하는 말이, 사역지에서 자녀양육, 내조, 직접사역 등 1인다역을 맡다보면 정말로 독신 사역자가 부럽단다.

그러면 나는 실제로 지나친 이기주의자처럼 생각되어 미안해질 때도 있다.

그러나 독신은 스스로 자신의 생활 전부를 추스려야 한다. 무슨 일이든지 혼자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기에 독단으로 치우칠 위험이 있다. 지켜보거나 간섭하는 이가 없기 때문에 어떤 실수를 해도 나름대로 합리화하고 객관성이 결여될 수도 있으며, 희로애락의 감정을 표현할 가족이 없으므로 감정적으로 억압되기 쉽다.

사역은 균형을 요구한다

우리의 육신은 일과 휴식의 조화를 요구하며 균형 잡힌 정서가 있어야 영적인 일을 균형있게 할 수 있다. 균형있는 정서관리를 위해 영성관리는 물론이거니와, 때로는 음식을 만들어 친구를 초청해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쇼팽을 하기도 하며, 한국 코미디가 나오는 비디오를 보기도 한다. 때론 한 잔의 한국 커피와 한국 사탕이 피로를 말끔히 씻어주기도 한다. 어떤 동료가 한국에서 설탕까지 싸들고 온다고 웃었는데, 지금은 고추장까지 싸들고 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중국음식이 먹기 싫을 때를 대비해 남겨둔 깻잎 통조림과 하이라이스 재료는 때때로 위로를 주는 정서적 양식이 되기도 한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사역은 육신과 정신과 영이 조화를 이룰 때에 가능하며 육신과 정서와 영을 위해 적절한 배려를 하는 것이 사역자의 지혜가 아닌가 싶다. 우선 순위를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 '육에 속한 사역자', '정신에 속한 사역자', '영에 속한 사역자'가 되는데, 영에 속한 바람직한 사역자가 되기는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것 같다.

언제나 기도를 우선한다고 말하지만 일을 하다보면 바쁘고 피곤하다는 핑계로 기도를 소홀히 하게 된다.

습관적으로 어떤 일을 하다가 잘되면 곧 기도를 등한시하기도 하고 기도보다 일이 먼저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중보기도를 하다보면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기도 하고 대충하고 싶을 때도 있다. 그러나 이런 유혹을 물리치고 조목조목 아뢰고 인도하심을 기다린 기도들은 내가 알지도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응답되어 기도보다 일을 먼저 하고픈 관념을 깨뜨리게 된다.

이래도 저래도 주의 영광을 위함이라면

독신 사역자의 삶은 결코 평범한 삶은 아니다. 정상적인 가정 생활을 하는 분들의 눈에 '기형적인 삶의 모습으로 비쳐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지만, 결혼도 사역도 모두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역이라고 강조하고 싶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도 아름답고 시집가지 않은 자가 주의 일을 염려함도 잘한 일이라 하시지 않았던가?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강력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고후 10:4)



인생 (活着)

인생의 원래 제목은 '活着(活着)'로 '살아 간다'는 뜻이다.

이 영화는 <붉은 수수밭>, <홍등>, <귀주 이야기>, <국두> 등으로 널리 알려진 장이모(張藝謀) 감독이 만든 작품으로, 늘 그의 작품에 단골로 출연하는 중국의 뛰어난 여배우 공리(鞏俐)와, <패왕별희(霸王別姬)>에서 원대인으로 출연해 널리 알려진 거유(葛優)가 주인공으로 출연한다.

장이모 감독은 세계 각국에 중국영화를 널리 알린 공로자로, 이 영화 <인생>에서는 1940년대에서 1970년까지의 중국현대사를 연대

기로 네 쪽짜리 병풍처럼 영화 화폭에 펼쳐고 있다.

1940년이라는 자막과 함께 첫 그림이 펼쳐지고, 부귀(거유 扮)란 이름을 가진 지주의 아들이 노름에 빠져 집을 잃는다. 그 충격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고, 게다가 두 번째 아이를 임신한 아내가 진(공리 扮)마저 더이상 남편을 믿을 수 없다며 집을 떠나버리고 만다.

이제 부잣집 도령 부귀는 거리로 나가 아버지가 남긴 도자기를 팔아 간신히 연명하는 처지가 된다. 하지만 그의 부인이 아들을 낳아 돌아오자 가족을 위해 돈벌이

를 하기로 결심하고 그림자 놀이극 재료를 빌려 그림자 놀이극의 가수가 된다.

그 뒤 장개석의 국민당과 모택동의 공산당간의 내전이 벌어지게 되면서 부귀는 국민군과 인민군에게 차례로 노래를 불러주며 생명을 부지하다가 고향에 돌아온다. 하지만 대약진운동이 벌어진 고향도 싸움터이긴 마찬가지였고, 지주들은 숙청을 당한다.

주인공 부귀는 노름으로 집을 잃어 폐인이 되는 듯했으나 재산을 다 날린 덕분에 지주가 아니라 평민이 되었으며 그 결과 사형을 면하게 된다. 여기에서 장 감독은 우리의 인생사가 새옹지마와 같다는 것을 설득력있게 말해주고 있다.

주인공 부귀는 닭이 크면 무엇이 되느냐고 묻는 아들에게 “닭이 거위가 되고, 거위가 양이 되고, 그 양이 소가 되며, 또 그 소가 공산주의가 된다”고 대답한다. 그러나 마지막 장면에서 할아버지가 된 부귀는 병아리가 크면 무엇이 되느냐고 묻는 손자에게 소가 된다는 것까지만 말하면서, 비행기와 자동차를 타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말한다. 문혁 이전의 대답은 공산주의였지만 세월이 흐른 뒤 소에서 멈춘 이유는 무엇일까?

그들은 공산주의가 뭔가 진보와 발전을 그들에게 안겨줄 것이라고 믿었지만, 문화대혁명을 거치면서 좌절을 경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비행기와 자동차를 마음대로 탈 수 있는 시대가 올거라며 미래를 낙관하고 있다.

영화 <인생>은 죽음과 탄생, 부

부애와 자식에 대한 사랑이 있는 중국 보통 사람들의 삶을 진솔하게 그리고 있다. 이 영화에서 장 감독은 인생의 희비는 당시의 역사 가운데서 우연과 필연의 만남으로 이루어짐을 역설하고 있다.

장 감독이 만든 영화의 소재 대부분이 현재의 중국이 아닌, 혁명 이전의 중국을 배경으로 전통과 개인적 삶의 대립으로 고통받는 인간을 다루고 있는데, 이 영화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이 영화는 이전의 장 감독의 영화와는 달리 극단적인 색채감을 배제하고 관조적인 자세로 현대의 중국을 응시하고 있다.

이 영화의 역사관이나 중국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많은 사람들에게 논쟁의 여지를 주고 있다. 장 감독은 이 영화에서 중국역사의 흐름 속에 오류도 많았지만, 공동체적인 꿈이 있었음을 묘사하면서 성급하게 판단할 수 없도록 양면성을 고려하고 있다.

이 영화를 보면서, 한낱 영화 속의 주인공에 불과하지만 그들이 살아온 삶에 대해 진한 아픔과 함께 그 무엇인가 답답함을 느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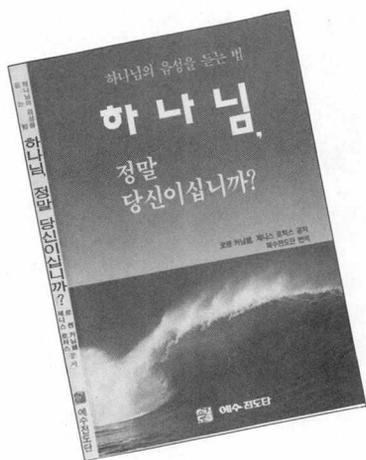
역사의 파란만장함 속에서 주어진 생의 굴레에 순응하며, 분노나 회의조차도 느끼지 않고 자신을 위해 사회를 향한 반역을 꿈꾸지 않은 채 그저 살아가고 있는 이 영화의 주인공들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사랑해야 할 중국사람들이었다.

물론 이 영화 내용은 흘러간 과거의 이야기이다. 그러나 그렇게 흘러버릴 수 없는 것은, 중국 사람들은 바로 그런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살아왔고, 그리고 현재도

세상은 변했지만 그저 '살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별로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그들의 공허한 마음을 채워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가는 것' 이상의 의미를 부여할 것이다.

석은혜/ 본지 편집장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김성곤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라는 이 책은 로렌 커닝햄과 제니스 로저스가 함께 쓴 것으로, 약 2,3년 전 중국어문선교회의 대표인 박성주 장로님의 추천을 받아 읽은 적이 있다.

이 책을 읽고 가슴이 한 동안 뜨거웠던 경험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그 당시의 감동이 떠오른다. 이 책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그 동안 박사논문 작업으로 시들해진 신앙적 열정을 다시 소생시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마저 들었다.

YWAM(예수전도단)의 창시자인 로렌 커닝햄의 삶의 한 부분을 적은 이 책은, 제목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관한 글이다. 작자가 “꼭 기억해야 할 12가지 요점”이라는 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12가지 항목에 걸쳐서 설명함으로써 책을 마무리하는 의도는 분명하다. 이 책을 추천하는 글을 인용함으로써 이 책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를 대신하고, 이후에 나 자신의 개인적인 취향이 곁들여진 감상문을 추가하고자 한다.

이 책은 이야기체로 쓰여진, 큰 꿈을 품은 한 청년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한 실제적인 교과서이기도 하다. 오늘날 이 지구상에서 가장 소홀히 여겨지고 있는 것은 보다 나은 세계를 추구하고 있는, 아직 십대나 이십대 초반에 있는 수많은 젊은 이들의 힘일 것이다. 로렌 커닝햄 자신도 겨우 10대가 지났을 때 온 대륙을 가로질러 나아가는 파도와 같은 젊은이들, 복음의 기쁜 소식을 이 반역의 세상에 전하기 위한 젊은이들에 대한 환상을 보았다. 얼마나 멋진 일인가! 이 꿈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었을까?

로렌의 이 비전은 오늘날 <Youth With A Mission>이라고 하는 국제적이고도 활발한 하나님의 군대로 현실화되었다.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환상에서 현실을 이끌어 내셨을까? 로렌과 그의 아내 다알린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는 힘든 과정을 거치게 하심으로 써였다. 로렌도 실수를 했다. 때로는 너무 빨리 움직였고, 때로는 불순종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가 본 환상만은 항상 그와 함께 머물러 있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술에 대하여 로렌 커닝햄으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인 우리들은 그분의 말씀을 올바르게 듣고, 그 다음에는 순종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그러나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로렌과



다알린은 하나님의 깊은 바다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다.

내 개인적으로 이 책을 대하면서, 주제를 떠나서 별도로 느꼈던 점을 말하자면 다음의 몇 가지가 될 것이다. 먼저 신앙의 유산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깨달음이다. 로렌은 조부로부터 시작되고 부모로 이어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갈망하고 그 부르심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온전한 믿음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았다.

나 역시 부모님으로부터 믿음을 유산으로 받았다. 이 유산을 어떻게 가꾸어 내 자식들에게 물려줄 것인가? 어린 자녀를 둔 모든 젊은 부모들에게 이 책은 대단히 유용한 질문과 도전을 줄 것이 틀림없다.

둘째로 젊은 크리스천 남녀가 배필을 구하는 일에도 이 책은 확실한 전범을 보여줄 것이다. 로렌이 다알린을 만나는 과정은 비록 짧게 서술되었을지라도 그것이 보여주는 의미는 깊다.

셋째로 가족들의 협력의 중요성이다. 로렌 가족은 모두 신실한 동역자들이었다. 우리의 가족 모임이 단순히 먹고 마심의 기회가 아닌 하나님의 성역을 위한 가장 효율적이고 가치있는 모임이 될 수는 없을까? 둘째 형, 셋째 형, 큰 누님, 둘째 누님, 셋째 누님, 장모님, 큰 처남, 둘째 처남, 처제까지 합친다면 우리 가정을 포함해서 10가정이 된다. 이들이 함께 모여 선교에 관한 일을 말하기 시작한다면 그리고 함께 선교사의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후원한다면 얼마나 보람있고 흐뭇한 일이겠는가?

마지막으로 이 책을, 사랑하는 아내에게 권하고자 하는 기쁜 생각, 그리고 그녀가 이 책을 얼마나 큰 감동으로 읽을 것인가에 대한 강렬한 기대감을 가지며 추천의 말을 맺는다.

광시(廣西) 삼자교회에서 일어난 분쟁

광시(廣西)의 한 삼자교회에서 일어난 분쟁

광시성에 있는 한 교회의 전도사(傳道人)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교회에 몇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며 소식을 전해왔다. 난징신학원(南京神學院)을 졸업한 한 여자 전도사가 있는데, 남자와 동거하면서도 그 부정한 행위에 대해 전혀 뉘우치거나 회개하지 않자, 이를 안 교회의 신도들이 개입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자 전도사와 동거하고 있던 남자가 오히려 교회 성도들을 마구 폭행했고, 나중에 공안국에서 그를 체포해 가긴 했으나 형은 언도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교인들은 이 여전도사가 강단에 올라 설교하는 것을 거절하였고, 성(省) 삼자교회를 향해 그를 해고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들의 건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교인들은 계속해서 여전도사가 설교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또 한 사람의 전도사는 해외 기독교인들과 교류했다는 이유로, 광시성 삼자양회(三自兩會)에 의해 면직 처분을 당하게 되자 어쩔 수 없이 장사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고 한다.

앞에 말한 여전도사는 자신의 범죄에 대해 전혀 회개할 기색을 보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기가 속한 교회의 형제자매들의 권면을 받아 들이려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에서 주는 월급을 받으면서 유유자적하고 있다. 반면 후자의 전도사는 단지 해외의 크리스천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것만으로 면직을 당해야 했다.

성도들이 정부에 등록된 교회를 떠나다

<天風>지에 실린 한 기사에 따르면, 최근 몇몇 지방, 특히 농촌교회에 심각한 분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어떤 진(鎭)에 있는 등록교회는 원래 총 4,5천명의 교인들이 있었는데 현재 그 중 2,3천명 가량의 신도들이 이미 교회를 떠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삼자 측에서 등록비와 규칙제도를 제정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농촌의 기층교회(基層教會-최하층의 서민들이 주로 다니는 교회) 한 교인의 말에 따르면, 각종 명목으로 떼어가는 등록비가 지나치게 많다고 한다. 예컨대 예배모임 등록비, 재등록비, 공동계약(公約)·규정(規定)의 광고비, 전도증명비, 세례증명비 등이 그러한 것이다. 이 모든 비용은 대부분 기독교 양회 명의로 수납되고 있다.

매년 평균 5,6백 원의 수입으로 살아가는 농촌 성도들로서, 목회자의 생활비 뿐 아니라 이 모든 잡비까지 부담한다는 것은 실로 힘겨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계속해서 등록된 교회를 떠나 등록비를 부담할 필요가 없는 교회로 옮기는 것이다.

성도들을 이끄는 지도자 체포되다

항저우(杭州)에 사는 의사 천첸잉(陳群英)과 상하이(上海)에 사는 리티엔언(李天恩) 형제가 4월 13일 북쪽 지역에서 집회(聚會)를 인도하다가 체포되었다. 그들이 체포된 후 성도들과 또 다른 한 명의 미국인은 석방되었다. 그러나 왕밍다오(王明道) 선생의 조카사위 시(施) 형제를 비롯한 6명의 사역자들은 아직 풀려나지 않았다. 그 중 세 명은 그 지역 가정교회의 책임자이다.

4월 20일 저녁 항저우에 있는 천첸잉 의사의 집은 모조리 차압당했다. 천 의사는 현재 당뇨병과 심장병을 앓고 있다고 한다. 오랜 감옥 생활을 견디기에 충분한 약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건강이 무척 위험한 상태이다.

광저우(廣州)의 한 사역자 폭행당하다.

본지의 한 소식에 따르면, 1995년 2월 18일 광저우의 화두(花都)에서 집회를 인도하던 리더시엔(李德賢) 전도사가 체포당하였고, 그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모두 벌금형을 받았다. 집회장소를 제공한 집 주인은 텔레비전을 빼앗겼고, 리 전도사의 동역자가 그에게 빌려준 모터 달린 자전거도 몰수당했다. 빼앗긴 물건을 되찾으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 것이다.

리 전도사는 공안당국에 의해 수사를 당하면서 번갈아 발로 채이고 주먹으로 맞았다. 또 전기 몽둥이로 맞아 내장이 파열되어 많은 피를 흘렸다. 그는 공안에게 왜 나를 이렇게 대하냐고 따졌지만, 공안은 그의 물음에 대답하는 대신 상부의 지시라고만 하였다. 8시간이 지나고 그는 석방되었으나, 머리와 목 부분의 큰 상처로 인해 며칠 동안 움직일 수 없었다.

3월 18일 같은 장소에서 리 전도사는 다시 공안국에 체포되었다. 이번에는 그와 함께 동역하던 야오지엔중(姚建中), 홍콩 교회에서 들어간 평신화(馮新華) 그리고 존 쇼트(John Short)도 그 중에 있었는데, 그들은 공안에 의해 불법집회자로 간주되었다. 리 전도사는 다시 매를 맞았고 나머지 세 사람도 심문을 당했다. 이들 네 사람은 나중에 석방되었다.

- 이상은 《中國興福音》(6期 1995年 5/6月)에 실린 「中國教會消息」을 번역한 글임-

베이징(北京)에 종교문화출판사 설립

중국 국무원 종교사무국은 금년 2월, 베이징에 <종교문화출판사(宗教文化出版社)>를 정식 설립했다. 이 출판사는 유일하게 정부에 의해 운영되는 종교관련 출판사이다. 종교정책, 종교학 이론, 종교역사 및 종교문화 연구 관련 서적과 더불어 각종 경서, 경전작품, 종교규칙, 교리 등을 펴내어 중국 내 각 종교단체에 배포함으로써 신자들의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그러나 한 종교인사는, 정부가 이 출판사를 통해 종교단체를 장악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등록하지 않은 교회들은 여전히 비공개적으로 출판물을 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公教報 1995. 5. 26>

티엔진(天津)의 천주교회, 정부의 비준을 얻어 호텔경영에 나서다

허베이성(河北省)의 천주교 신도들은 교회가 교회 재산으로 호텔을 경영하는 것에 대해 적극 반대하고 있다. 논란의 대상이 된 민족호텔(民族大飯店)의 원래 자리에는 수도원이 있었다. 문혁 기간 중 정부에 몰수당했다가 1985년 티엔진 교구로 반환되었는데, 1988년에 정부에 등록된 한 천주교 인사가 그곳의 수녀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수도원을 개조하여 의류를 파는 장사꾼에게 임대하여 세를 받아왔다.

4월 9일 삼자 측의 스홍천(石洪臣) 주교와 정부 관리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족호텔의 개막식이 열렸다. 정부는 호텔의 경영권과 매년 60만 원(인민폐)을 이윤으로 취하며, 종교사무국에서는 관리비를 챙긴다. 이 지역 천주교 신도들은 성당을 술집과 디스코 텍에 임대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公教報 1995. 6. 2>

기독교, 농촌에 뿌리내리다

“종교문화열기”가 최근 중국에 번져가고 있다. 기독교는 정부에서 정식으로 승인한 5개 종교(불교, 도교, 이슬람교, 천주교, 기독교) 가운데 가장 빠르게 발전해 나가고 있다.

도시보다 농촌에서 기독교가 더 빨리 퍼져나간다. 중국의 기독교인 중 65%는 가난한 농촌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가난한 지역일수록 기독교인의 숫자가 더 많다. 농촌 교회의 4대 특징은 노인, 부녀자, 병자, 문맹이 많다는 것이다. 개혁개방 이래로 사람들의 가치관이 바뀌면서 단순한 공산주의 사상만으로는 사회도덕을 유지해나갈 수 없게 되었다. 게다가 관료들의 부정부패와 빈부격차가 점점 커지므로 지식인들의 마음이 공허해지고, 농촌이 점점 살기 어려워짐에 따라 기독교가 사람들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것이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미덕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기독교인들은 점차 사회적 양심 회복에 있어 인정과 찬사를 받게 되었다. 「십계명」을 지키는 기독교인들은 가정윤리, 도덕과 사회적 윤리에 대한 책임이 강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모여 사는 마을은 치안에 있어 다른 곳보다 훨씬 안전하며 심지어 어떤 곳은 밤에 대문을 열어놓고 자도 무방하다고 한다.

<明報 1995. 6. 8>



중국 천주교, 복음전파를 위해 시청각 교재 사용

허베이성(河北省) 천주교 인사에 따르면 중국의 지하 천주교회의 한 젊은 신부가 올 5월 부터 천주교 영화제작팀을 구성하여 이 방면의 작업을 추진중이라고 한다. 그들은 이미 성 바울전파 성 베드로전을 비디오테이프를 제작하였으며 경비가 허락 된다면 더 많은 작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올 6월, 허베이의 한 농촌 지역에서 지하교회 신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영화 및 TV 문화의 가치에 대한 회의가 열렸는데, 이 회의에서는 복음전파의 어려움과 더불어 앞으로 시청각 교재를 효과적인 복음전파 사역에 사용할 것을 논의했다.

먼 지역에서 온 천주교 신도들은 비싼 가격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그 비디오 테이프를 구입해 갔다고 한다.

<公教報 1995. 7. 14>

중국 교회, 성경 1천만권 출간 기록

지난 1987년 세계성서공회연합회(UBS)와 중국기독교협회(CCC)의 협력으로 중국 난징(南京)에 세워진 성경출판기관인 애덕인쇄소(APP)가 성서출판을 시작한지 8년만인 지난 7월 25일 1천만부 출간을 기록하였다.

지난 1986년 11월 8일 기공식을 가진 동 인쇄소는, 1987년 10월 첫 성경책을 출판한 이래 지난 25일 1천만부를 기록, 이날 기념식을 가졌으며 이 자리엔 대한성서공회 김호용 총무가 아시아 태평양지역 본부의장 자격으로 참석, 축사를 하기도 했다.

동 인쇄소는 중국 정부가 1천 8백 평의 대지 위에 건물을 세웠으며 UBS가 8백만 달러를 투입, 최고급 인쇄시설을 제공하여 설립됐다.

중국에서는 지난 1982년 만주의 동포들에 의해 「개역한글판 성경전서」 1만부가 출간됐으나, 중국정부의 지원으로 성경이 제작된 것은 아시아뿐 아니라 세계 복음화에 큰 계기가 되었다. 애덕인쇄소에서는 1989년 대한성서공회의 지원으로 2만 권의 개역 한글판 관주성경을 출간하기도 했다.

<한국기독교공보, 국민일보 1995. 7. 25>

보도물에 나타난 최근 중국동향

종교

중(中), 한(韓), 일(日) 불교연합대회 베이징(北京)에서 개최

신화통신에 의하면, 지난 5월 베이징에서 “우호, 합작, 평화”를 주제로 중, 한, 일 불교연합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는 근래 불교계에서 가장 대규모의 대회였으며 각 나라 대표 및 임원 600명이 참석했다. 리펑(李鵬)총리는 대회의 성과를 기대한다는 축전을 보내왔다. (人民日報 5. 23)

중국인 근로자 교회 설립

젠라이트선교회(대표:배인수 목사)가 안양지역 내에 최초로 「중국인 근로자 교회」를 설립, 6월 10일 안양서교회(최영도 목사)에서 설립예배를 드렸다. (기독신보 6. 17)

한·중 목회자 「교회협력」 손잡아

광복 50주년을 기념해 한국과 중국 목회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한·중 교회협력 세미나」가 오는 8월12일 북경대학에서 열렸다.

북방선교문화원(원장 조송천 목사)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중국기독교 협회회장 정광훈 주교를 비롯, 강와시 교회 리국 목사, 아세아연합신학대학

원장 전호진 목사, 극동방송 유관지 목사 등이 강사로 참석했다.

「기독교의 본질과 미래적 사역」을 주제로 한 이번 세미나는 북경대학 조선 문화연구소가 후원한 행사로 중국교회의 현황과 조선총교회의 입장, 한국교회 상황 등이 활발히 논의되었다.

(국민일보 7. 13)

납북된 안승운 목사, '90년부터 연변서 선교활동

지난 7월 9일 납북된 것으로 밝혀진 안승운 목사는 '90년부터 연길을 중심으로 선교활동을 해왔으며, '92년 여의도 순복음교회로부터 목사안수를 받고, '93년 정식 선교사 파송을 받아 중국 처소 교회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선교활동을 해왔다. 지난 해 중국 연변 자치주 종교국에서는 안 목사에게 외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일반인에게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을 허락했었다.

이번 납북에 대해 순복음교회 측은 「안 목사가 북한탈출자나 중국을 드나드는 북한주민을 상대로 성경을 전달하고 도움을 주어왔기 때문에 북한 당국이 납치대상으로 지목한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7. 25 / 조선일보 7. 26)

정치·외교

강요된 평은

천안문사태 6주년인 4일, 북경에서는 정·사·북 경찰관이 천안문광장을 중심으로 감시활동을 했으며 소규모 시위 외에는 이렇다할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정부는 소요예방 차원에서 반체제 인사들을 예비검속, 현재 36명 남짓이 구금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홍콩에서는 이날 약 1만 5천 명이 천안문사태 당시 숨진 사람들을 위해 촛불집회를 열었다.

(국민일보 6. 5)

대만총통 첫 美방문

미국과 중국 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리덩후이(李登輝) 총통이 7일 오전 대만총통으로는 처음으로 미국에 도착, 지지자들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호텔 건너편에서는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는 30여 명의 군중들이 「대만은 대만이지 중국이 아니다», 「대만도 하나, 중국도 하나」라고 쓰인 깃발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국민일보 6. 5)

지린성(吉林省) 당위서기에 친북한 인사 임명

중국 공산당은 조선족이 많이 사는 지린성 당위원회 새 서기에, 지난 75년 연변대학 조선어문학과를 졸업한 후 평양에 유학해 김일성대학 경제학과에서 수학한 친북한 인사인 장더장(張德江)을 임명해 주목된다.

(동아일보 6. 6)

신장 위구르자치구서 독립시위·폭동, 88명 사망

중국 서북부 신장(新疆) 위구르자치구에서 지난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소수민족인 위구르인과 카자흐인 5만 명이 상이 중국으로부터의 독립과 공산당 통치 종식을 요구하는 시위와 폭동을 벌여 88명이 사망하고 3백여 명이 부상했다고 홍콩의 월간지 동향 최신호가 보도했다.

시위대들은 위구르자치구 독립과 카자흐국 창설, 종족적으로 유사한 인근 카자흐공화국으로의 편입 등을 요구하며 「공산당과 한족은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쳤다고 이 잡지는 전했다.

(중앙일보 6. 16)

대만, 독립 원하지 않아

대만은 15일 중국과의 군사적 갈등을 피하기 위해 독립을 원치 않고 있다는 대만의 입장을 중국에 확인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6. 16)

반부패운동 천억 원 절약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부패운동으로 울 들어 5개월동안 전국에서 7백79명의 중간관리들이 체포됐다고 신화통신이 보도.

중국 검찰에 의해 행해진 이번 반부패운동으로 1천만 원 이상 규모의 대형 경제사건 및 횡령 및 수뢰사건이 적발되어 11억 1천7백만원(약1천18억원)이 절약됐다고.

(국민일보 6. 26)

지방세력 약화 겨냥, 성(省) 지도자 순환제 확립

중국 지도부가 참가하는 베이더이허(北戴河) 회의가 다음 달 개최돼 제9차 경제5개년계획과 당조직 재건문제, 국

유기업 개혁문제 등 3대 문제를 논의한다고 홍콩 성도일보가 보도했다.

이번 공작회의에선 덩 사후를 겨냥, 장쩌민 국가주석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세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판단 아래, 각 성(省) 지도자들의 순환근무제 확립을 주요의제로 삼을 것이라고 이 신문은 밝혔다.

(중앙일보 7. 7)

천안문사태 재평가 건의

중국 정치국 직속의 당중앙 연구실은 덩샤오핑 사망후 장쩌민 체제의 정통성 제고를 위해 천안문사태 재평가, 반부패 드라이브 지속, 대만문제 해결 등 3가지 사항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고 홍콩 스탠더드지가 보도했다.

(조선일보 7. 8)

중, 반체제 인사 해리 우 구속

중국은 미 행정부 및 의회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국계 중국인 인권운동가 해리 우(58, 중국명 뮈희달)를 국가기밀을 불법취득한 혐의로 정식 구속함으로써 중미 관계가 더욱 긴장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중앙일보 7. 9)

장쩌민, 덩샤오핑 노선 견지 천명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지도부는 최고지도자 덩샤오핑이 제창한 개혁, 개방노선을 지지하며 앞으로도 덩샤오핑의 노선을 충실히 견지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중앙일보 7. 9)

3대 부패사건 조사 총력

중국 당국은 최근 전국 각지에서 3백 명의 정예 부패조사요원을 선발, 치안과 비밀공작까지 담당하는 당중앙직속기관의 중앙정법위원회에 배속시켜 3대 부패안건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홍콩 연합보가 보도했다.

(중앙일보 7. 9)

주룽지(朱鎔基), 총리 후보 급부상

주룽지 중국 부총리가 정치국 내에서 반부패운동을 주도함에 따라 오는 97년 말 당대회에서 리펑의 뒤를 이을 유력한 총리 후보로 부상하고 있다고 이스턴 익스프레스지가 보도했다.

(조선일보 7. 11)

미국 「하나의 중국」 정책 고수

미국은 10일 대만과의 수교 가능성을 배제하고 중국을 유일 합법정부로 인정하는 「하나의 중국정책」을 고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일보 7. 12)

북경 대학가 반부패운동, 토론·대자보 할기

중국 북경시 당위원회와 공안당국은 최근 북경대를 비롯한 시내 대학가에 반부패운동에 대한 토론과 대자보가 확산됨에 따라 대학생 및 지하 반체제 조직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여름방학 중 대학생들이 북경을 떠나도록 유도하고 있다.

(조선일보 7. 13)

생물무기 불법생산

중국은 80년대 말 생물학적 또는 독소무기를 불법적으로 생산했으며 현재도 조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미 정부관리의 말을 인용, 워싱턴포스트지가 보도했다.

(조선일보 7. 16)

강경파 득세, 대만 위협

중국군이 오는 21일부터 28일까지 대만 북부해역에서 미사일 발사실험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일부 분석가들은 미·중 관계악화를 계기로 중국 당·군내에 강경파가 득세하고 이에 따라 강-은 노선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한겨레신문 7. 20)

대만정책 전면수정

중국은 지난 6월 하순에 개최한 중앙군사위 회의에서 대만정책을 전면 조정했다. 중국 지도부는 당시 회의에서 리덩후이 대만 총통의 방미와 올 연말 총선 및 내년 3월 민선총통선거 등으로 대만 문제가 날로 복잡해지고 있다고 전제, 양안회담(兩岸會談) 중단과 군사훈련등을 통해 대만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조선일보 7. 21)

대중국 감시강화 법안 통과

미 하원은 20일 행정부로 하여금 중국의 인권상황과 무기수출 등의 동향을 감시해 보고하도록 하는 <대중국 감시강화 법안>을 4백16대 10이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하원은 중국에 대한 최혜국대우연장 취소 등의 경제제재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민일보 7. 21)

대만해협 무력시위 강화

대만해협 맞은 편에 있는 중국 인민해방군 푸지엔성 주둔군이 미사일 시험발사에 맞추어 전쟁준비 상태에 돌입했으며, 공군과 해군은 푸지엔성과 저장성 연안지역에서 <957>로 명명한 합동군사훈련을 곧 실시한다고 홍콩과 대만의 주요 신문들이 보도했다.

(동아일보 7. 24)

장개석 미망인 미 의회 방문, 중국 반발 예상

미·중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고(故) 장개석 총통의 미망인 송메이링(宋美齡) 여사(96)가 26일 미 의회를 방문, 간단히 연설할 계획이어서 또 한차례 중국의 반발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일보 7. 26)

만주서 미사일 발사

중국의 인민해방군은 24일 새벽 북한에서 가까운 지린성(吉林省) 통화(通和)에서 사정거리 750-2,200km에 이르는 동풍21호 미사일 2기를 대만 북부 공해상으로 시험발사했다고 홍콩연합보가 타이베이발로 보도했다.

(한국일보 7. 26)

폭격기 전진배치

중국 인민해방군 푸지엔성(福建省) 주둔 육해공 3군이 7월 25일부터 휴가를 취소하고 2급 경계태세에 돌입했으며, 49년 이후 처음으로 폭격기들이 성내 여러 공군기지에 배치됐다고 홍콩의 성도일보가 26일 1면 머리기사로 보도했다.

이 신문은 또, 중국이 25일 오전 훈련 시작 이래 7번째로 미사일 1기를 대만 북부 공해상에 발사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 7. 27)

미사일 훈련 돌연 중단

중국정부는 26일 관영 신화통신을 통해 지난 21일부터 시작된 동중국 해상의 유도미사일 훈련을 이날 오후 6시부터 중지한다고 발표했다.

(조선일보 7. 27)

경제

중국 대외교역 급신장세

올들어 지난 5월까지의 중국의 대외교역액이 전년동기비 32.3% 증가한 1천 15억달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 기간중 중국의 무역수지는 1백억달러 상당의 흑자를 기록했다.

(중앙일보 6. 16)

중국, 식량수입 급증

중국의 금년 1~5월 중 식량수입은 4백 68만톤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무려 70.4%나 증가했음이 중국세관의 집계로 밝혀졌다.

중국에서는 지난 해에 식량생산이 크게 감소, 식품가격 상승이 계속되고 있으며 중국정부는 최중요 과제인 인플레이션을 위해 가격이 안정되어 있는 국제시장으로부터 대량의 식량조달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시장 관계자들은 중국의 앞으로의 수입 움직임과 국제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중앙일보 6. 22)

중, 2010년 세계 3위 부국된다

중국사회과학원이 국무원과 국가계획위원회의 지시로 수개월간 연구끝에 최근 국무원에 제출한 「1995~2010년 중국경제발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부터 16년 간 경제발전의 황금기를 맞아 지난 해 세계 9위를 기록했던 경제규모가 급성장, 오는 2010년 세계 3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한다는 자체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앙일보 7. 9)

2000년엔 소강수평(小康水平) 실현

장저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8일 유럽순방 첫 기착지인 핀란드에서 밝힌 중국의 현대화 3단계 전략은, 중국이 2000년 이전에 덩샤오핑이 갈망하는 소강수평을 달성하고 30~50년 안에는 중등 선진국 수준까지 오른다는 것이어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소강수평이란 경제가 어느 정도 발전해 인민이 일상생활에서 이렇다할 걱정 없이 삶을 꾸려가는 것으로 개혁개방의 설계자인 덩이 79년 처음 사용한 뒤, 공산당 12차 전당대회에서 공식 채택된 목표다.

(중앙일보 7. 10)

대만, 금융업 중국진출 허용

대만은 중국과의 경제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올해 안에 증권 및 보험업체들의 중국본토 진출을 허용하는 등 3단계에 걸쳐 은행을 포함한 금융업의 대중국투자진출을 허용하기로 9일 확정했다.

(중앙일보 7. 11)

중국, 품질-서비스경쟁 나섰다

세계 저가품시장을 휩쓸고 있는 중국이 품질과 서비스 제고에 나서고 있다. 목표는 일본기업의 품질과 서비스수준의 달성. 날로 외국업체들에 뺏기는 국내 시장을 회복하기 위한 의도도 깃들여 있다.

(조선일보 7. 11)

중국, 자동차산업 10조 투입

중국은 국내자동차 제조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1천억 원(약 10조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동아일보 7. 12)

중국, WTO 옵서버 가입

세계무역기구(WTO)는 7월 11일 중국의 옵서버국 가입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그동안 세계무역기구의 정회원국 가입을 추진해왔으나, 미국 등 일부 나라들이 중국의 시장개방 미흡을 이유로 반대해 이뤄지지 못했었다.

(한겨레신문 7. 13)



중국경제 불안한 “졸타기”

2년 넘게 과열됐던 중국경제가 진정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정부는 올 상반기 기준 경제성장률은 약 10%로 지난해보다 1.8%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추정했다. 이제 중국은 고용문제에 신경을 써야 할 상황에 처했다. 높은 실업율은 곧 사회불안의 불씨가 되기 때문이다.

(중앙일보 7.15)

중국, 식량위기

중국이 심각한 식량위기에 직면했다. 지난 해 중국의 곡물수확량은 전년대비 2.5%가 줄어 4억 4천4백만에 그친데 이어, 올해도 흉수와 가뭄 등 극심한 자연재해로 수확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인구는 연간 1천7백여만 명이 증가, 지난 2월 이미 12억을

돌파하여 앞으로 자급자족조차 어렵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일보 7.25)

중국, 외자유치 추진

중국은 내년부터 시작되는 제9차 경제개발5개년계획(9·5)기간 중 석탄개발과 화력발전 가스층개발 등 에너지종합개발사업에 외국기업의 직접투자를 적극 유치키로 했다.

(매일경제신문 7.25)

사회

닝시(寧夏) 회족자치구 75만 인구가 동

중국은 2000년도까지 닝시아자치구의 약 75만 주민을 황하지역으로 이주시킬 예정인데, 이는 중국에서 2번 째로 큰 인구이동이다.

이곳은 중국 서북부 산간지방에 위치하며 기후가 건조하고 전 중국에서 최고로 빈곤한 지역이다. 중앙정부에 따르면 인구이동 작업에 별 어려움은 없으며, 이미 이주한 40% 농민의 생활수준은 현저히 개선됐다고 했다.

(明報 6.13)

중국, 사막화 방지운동 전개

중국은 6월을 사막화 방지운동의 달로 정해 사막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지

역 주민들과 기타 국민들에게 사막이 확대되는 것을 막도록 독려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해 중국환경보호에 따르면 해마다 최소한 2천1백km²의 토지가 사막으로 전환, 사태가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다른 1천3백만ha의 농토가 모래밭 확산의 위협을 받고 있어 곡물생산이 불안정한 상태라고 밝히고 있다.

(중앙일보 6.14)

중국, 홍수로 6백여 명 사망

중국에서 최근 홍수로 6백여 명이 사망한 가운데 장시성(江西省), 후난성(湖南省) 등 지역의 수몰위험이 높아지자 당국은 제방을 보강하기 위해 군인과 주민 수백만명을 동원했다고 관리들이 밝혔다.

또 저장성(浙江省)에서도 산간지역에까지 홍수로 불어난 물이 무서운 기세로 들어오고 있어 저장성에서만 지금까지 홍수로 1백60명이 죽고 전체 경작지의 10분의 1이 침수됐다고 전했다.

(국민일보 7.7)

중국진출 기업인 “몸조심”

중국에서 올 상반기중 납치된 홍콩, 대만의 기업인은 모두 70여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같은 기업인 납치문제는 갈수록 더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홍콩의 중국어 신문인 애플지가 보도했다.

납치사건의 대부분은 홍콩, 대만의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광둥, 푸저엔, 저장성 등지에서 발생한 것인데, 중국당국은 투자자들의 투자기피를 우려해 이를 비밀에 부치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7.8)

아이 안락사 부부 늘어

의도적으로 자녀를 갖지 않는 맞벌이 부부 ‘딩족족’ 증후군이 중국의 최대 상업도시 상하이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문화비>가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지난 85년 상하이에서 대학을 졸업한 학생 29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이들 중 27명이 결혼을 했지만 현재 7명만이 자녀를 갖고 있다고 한다.

(한겨레신문 7.13)

중국, 남서부에 강진

미얀마와의 접경지역인 중국 남서부 윈난성 맹운현에서 7월 10일에 이어, 12일 오전 5시46분(현지시각)에도 리히터규모 7.3의 강진이 엄습, 2명이 사망하고 27명이 부상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조선일보 7.13)

후난성 홍수 403명 사망

중국 남부 후난성을 휩쓴 40년 이래 최악의 홍수로 지금까지 이 지역에서만 4백3명이 사망하고 5백27명이 실종됐다고 정부관리들이 12일 밝혔다.

지난 달 하순부터 계속된 이번 폭우로 피해를 본 지역은 호남성을 비롯한 중국 10개 성으로 지난 4일까지 사망자는 총 1천1백79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한편 문화보는 양자강 유역을 휩쓴 이번 홍수로 60만 명의 이재민이 고향을 등진 채 후난성과 안후이성, 저장성의 경제지역에 위치한 구강시로 대거 몰려들었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 7.13)

청년 50% 이상이 미국 가장 싫어해

최근 악화된 중미 관계는 중국 젊은이들의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중국청년보(中國青年報)에서 “중국청년이 보는 외국”이라는 10만 명 청년독자를 대상으로 한 대형 앙케이트조사에 따르면, 57.2%가 미국을 제일 싫어한다고 했으며 87.1%는 미국이 가장 우호적이지 않은 나라라고 했다. 36.6%는 중국에 영향이 제일 큰 나라는 미국이라고 했다.

반면 36.6%가 싱가포르를 가장 좋아한다고 했으며 43.1%는 북한이 중국과 가장 우호적인 나라로 뽑았다.

(明報 7.15)

인질범-경찰 총격전

중국 난하이(南海)시에서 12일 오전 6시부터 13일 새벽 6시 사이 군용수류탄 및 권총을 소지한 인질범들과 경찰관들 간의 총격전으로 인질범 3명, 20대 여자 인질 1명, 경찰 1명이 총탄에 맞아 현장에서 사망했다고 홍콩언론들이 보도했다. 특히 총격전 과정에서 3천 발의 실탄이 발사되는 등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래 최악의 총격전」 이었다고 보도

했다.

(동아일보 7.15)

간수성(甘肅省) 강진

중국 북서부 간수성의 영등현에서 7월 22일 아침, 리히터 지진계로 진도 5.8의 강진이 발생, 13명이 사망하고 52명이 부상했으며 4천5백 채 이상의 가옥이 무너졌다고 중국관영 신화통신이 23일 보도했다.

(동아일보 7.24)

한·중관계

조선족 어린이 한국서 무료진료

난치병에 걸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 조선족 어린이가 아시아나항공과 삼성의료원의 도움으로 국내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다. 아시아나항공은 현재 연변에서 불치병인 척수공동증과 척수종양에 걸려 중국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조선족 이명(14)을 8일 오후 아시아나항공 322편으로 서울에 긴급수송, 삼성의료원에서 무료로 진료를 받게 했다.

(중앙일보 6.8)

중국 공산당 고위층 방북

중국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 부서기 쉬칭(徐青)을 단장으로 한 공산당 대표단과 외교부 부부장 탕자쉬엔(唐家璇)을 단장으로 한 외교부 대표단이 7일 별도로 북한을 방문했다고 중앙방송이 보도했다.

(조선일보 6.8)

신세계백화점 중국 진출

신세계백화점이 국내 유통업체로는 처음 중국에 진출한다. 중국 상하이에 건설 중인 복합 쇼핑몰 「넥스트에이지」에 1천 5백 평의 매장을 확보, 내년 1월 말 개점기로 중국측 파트너인 <상하이 피이아오한유한공사>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6.23)

삼성, 중국에 반도체공장

삼성전자는 중국 쑤저우(蘇州)에서 월 4천만 개의 비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대규모의 「삼성전자반도체유한공사(SESS)」 공장 기공식을 가졌다. 지난 해 말 양국 정부의 승인을 거쳤으며 총 1억 달러를 투자, 99년부터 본격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경향신문 7.8)

중국상인 보따리장사 성행

식량등 심각한 생필품 부족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 중국상인들이 대거 몰려들어와 상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파악된 중국인 점포 수는 1백 80여 개에 달하며 신의주, 회령, 청진, 나진 등 주로 접경지역과 동해안 등지에 산재해 있다고 한다.

(동아일보 7.9)

자금성(紫禁城) 페인트로 '세단장'

중국의 대표적 문화유산인 북경 시내의 자금성이 국산 페인트로 재단장하게 된다.

대한페인트링크(주)는 오는 10월 10일 자금성 개원 70주년 행사에 맞춰 4개 성문 주변 1만 2천 평방m²를 보수, 도장하기로 중국 고궁박물관과 12일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7.13)

대중(對中) 수출 급격 위축

올들어 활기를 되찾던 대중국 수출이 최근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업체에 의하면 지난 해 이후 대중수출이 증가하던 석유화학제품, 섬유원료, 섬유사, 종이 등 주요 품목들의 수출이 지난 5월부터 위축되기 시작, 최근에는 거래물량이 급격하게 줄고 수출가격까지 하락하고 있다.

(한국일보 7.15)

한·중 학생교환 합의

한국과 중국은 19일 매년 10명 이내의 정부 초청 장학생을 상호 교환하고 이들에게 장학금 및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주카이쉬엔(朱開軒) 중국 국가교위 주임 초청으로 18일부터 중국을 공식 방문한 박영식 교육부 장관은 이날 베이징에서 주주임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95~97년 기간 중 한·중 교육교류와 협력합의서」에 서명했다.

(경향신문 7.20)

중국지역 수출 상반기 "최대"

지난 1월에서 5월까지 중국·홍콩·대만 등을 포함하는 3개 중국지역에 대한 수출이 총 93억 달러를 기록, 미국을 제치고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부상했다.

(매일경제신문 7.25)

파리엔~인천 카페리 9월 개실

중국 동북삼성의 관문인 파리엔(大連)과 인천을 연결하는 한중 카페리 항로가 오는 9월 중 개설될 전망이다.

인천~파리엔 항로는 지난 93년 8월 한·중해운회담에서 개설키로 합의했으나, 선박 용선 등이 해결되지 않아 운항이 미뤄져 왔다.

(매일경제신문 7.25)

한국목사 연변(延邊)서 납북

중국 연변에서 선교활동 중이던 안승운 목사(50)가 7월 9일 연길 시내에서 북한 측에 납치되었다. 납치 사건을 수사중인 중국 지린성 공안당국 관계자는, 「안씨 납치범 3명 중 2명을 검거, 납치 경위등을 조사하고 있다. 안 목사는 두 만강을 거쳐 북한으로 끌려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7.26)

중 "납북 규명 대응책 마련"

베이징 한국대사관은 북한이 자진 망명했다고 발표한 안승운 목사가 납북됐음이 확인됨에 따라 중국 외교부에 안씨의 북한체류 및 안정상태를 확인해 줄 것과 안씨의 조속 송환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중국 당국은 안 목사의 납북사건이 중국 영토에서 발생한 점을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을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한국 정부에 다짐했다.

(중앙일보 7.27)

중국어문선교회 연구부

개혁개방 시대의 유행어

경제사회의 격변기엔 「말」이 홍수를 이룬다. 중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급속한 경제 개방과 개혁의 소용돌이에서 시대상황을 대변하는 새로운 유행어들이 속출하고 있다. 다음은 일본 이코노미스트誌가 소개한 중국의 최신 유행어이다.

나이퇴이(內退) — 정년 전에 조기 퇴직시키는 것. 남성은 50세, 여성은 45세에 퇴직시키는 기업도 있다.

런셔(人蛇) — 밀항자. 뱀이 물을 가로질러 건너편 기슭에 도달하는 것처럼 목적국에 선박을 이용, 상륙한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 미국까지 가는데는 2만8천 달러, 일본까지 가는데는 2백만 엔이 든다.

런판즈(人販子) — 여성이나 어린이를 유인하여 가난한 농촌의 장가못간 남자나 일손이 없는 노인에게 팔아버리는 인신매매행위. 지난해만도 약10만 명이 런판즈의 희생물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리우하이(六害) — 개혁 개방이후 중국에 만연하고 있는 마약, 매춘, 포르노, 인신매매, 미신, 도박 등 여섯 가지 해악을 지칭한 것.

미엔더(面的) — 북경명물인 노란색 미니왜건형 택시의 이름. 미엔빠오(面包·식빵)와 디쓰(的士·택시)의 합성어. 북경택시 5만8천 대 중 3만 대가 '미엔더'이다.

병자주(病假族) — 병가를 얻어 제2직업에서 돈벌이 하는 사람. 아예 결근을 하고 부업에 매달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에따라 출근율이 70%이하인 기업도 속출하고 있다.

산동산부동(三動三不動) — 기업의 인원 삭감정책에 대한 노동자의 불만을 표현한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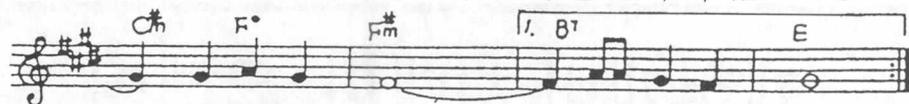
노동자는 움직이지만(해고되지만), 간부는 움직이지 않는다. 일선(생산노동자)은 움직이지만, 2, 3선(관리직)은 움직이지 않는다. 일반적인 문제는 움직이지만(해결하지만) 심층적인 문제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빗댔다.

산티에(三鐵) — 국유기업의 철통같은 제몫 지키기. 경직된 임금구조, 철벽같은 고용유지 등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에서 유래된 관행을 의미. 이와함께 해외 취업을 의미하는 양차웨이(洋插隊)나 큰 부자를 뜻하는 따관(大款) 등도 유행어로 등장했고 실업해고로 인한 노동쟁의를 뜻하는 공차오(工潮)라는 말도 중국인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린다. 휴대용 전화인 '따꺼따(大哥大)', 무선호출기 '비피지(BP機)'도 부유층과 젊은이들의 상징물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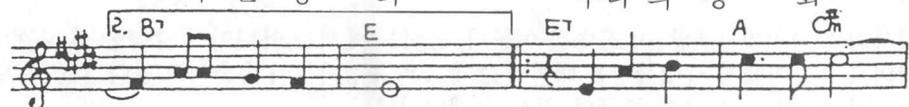
主是平安 주는 평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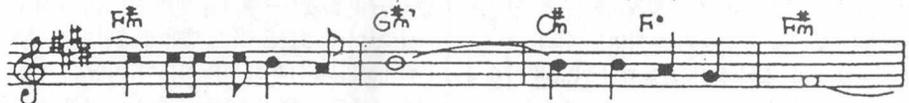
主是平安 他已拆毀中間隔斷的牆
Zhǔ shì píng ān tā yǐ chāi huǐ zhōng jiān gé duàn dì qiáng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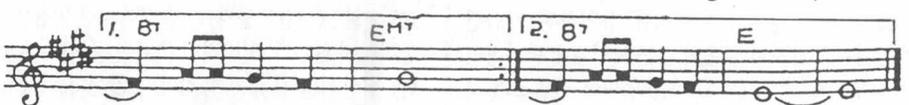
主是平安 主是平安
Zhǔ shì píng ān Zhǔ shì píng ān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主是平安 將憂慮卸給祂
Zhǔ shì píng ān jiāng yōu lǜ xiè gěi tā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말기라



因祂顧念一你 主是平安
Yīn tā gù niàn nǐ Zhǔ shì píng ān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主是平安 主是平安
Zhǔ shì píng ān Zhǔ shì píng ān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중국에는 한국인의 밥그릇이 없다

꺀수메이 지음
신국판 · 354쪽 · 5,800원
이가책

지금까지 중국에 관한 정보들은 한국인의 입장에서 중국과 중국인을 평가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 책은 그와 반대로 중국인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한국인과 한중 관계 관찰서이다.

작가인 꺀수메이는 한중수교를 전후하여 100여 명의 한국인 및 중국인과 인터뷰하여 이 책을 썼다. 종합상사의 고위층 간부, 유학생, 중소기업 사장, 기독교인들과의 격의없는 만남을 통해 중국인으로서 저자가 갖고 있던 한국인, 한국문화에 대한 선입견이 깨어지는 장면도 신선하게 다가온다.

또한 이 책에는 급한 성질 때문에 자초하는 합작사업의 실패담, 이곳저곳에 현지처를 두고 우쭐거리는 추한 모습, 중국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무턱대고 중국인을 무시하는 한국인들의 약점이 중국인의 눈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이 책의 결론은 '중국을 알아야 중국에서 성공한다'는 것이다. 어떤 교류나 어떠한 관계라도 피차에 존중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지 않는다면 성공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저자의 지적은 중국선교를 꿈꾸는 크리스천들이 꼭 기억해야 할 말이라고 생각한다.



재미있는 중국의 이색풍속

강명상 지음
신국판 · 393쪽 · 7,000원
을유문화사

최근 미전도종족선교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는 가운데, 중국 소수민족을 알고자 하는 이들이 많아졌으나 국내에서 그에 관련된 자료를 찾기란 너무나 어려웠다.

그러던 참에 경남대 중국관계연구소 소장으로 있는 강명상 교수가 쓴 이 책은 관심자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만족시켜 줄 것이다. 저자가 직접 소수민족 거주지를 밟으며 작성한 생생한 현장보고서이기 때문이다.

결혼, 장례, 축제, 신앙과 종교, 의식주 등으로 구분하여 소수민족의 생활상을 소개하고 있는 이 책을 보면 그들이 우리와 얼마나 다른 문화를 영위하며 살아가는지 알 수 있다. 문명의 영향을 비교적 받지 않은 이들이 갖고 있는 고유문화는 외부인인 우리에게겐 너무나 낯선 것으로 다가온다.

사체를 조각조각 내어 짐승에게 먹이는 장례법, 들쥐, 개미, 왕거미, 바퀴 등을 음식으로 먹는 것 등이 그러하다. 미전도종족과 함께 살면서 선교한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으리라는 것을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깨달을 것이다.

중국의 소수민족에 관심있는 이들이나, 미전도종족을 연구하고 있는 단체들에게 추천할 만한 책이다.



십분의 일 선교

팀 김슨 외 공저, 강운욱 옮김
신국판 · 299쪽 · 6,000원
예수전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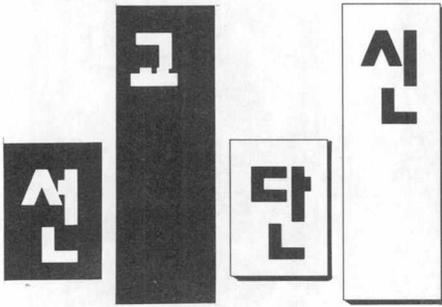
'단기선교의 새 소명'이란 부제가 달린 이 책은 교회를 능력있게 돕는 단기선교 활동에 대한 책이다.

세계선교회에서 연구과제로 시작하여 단기선교 지도자 협의회에서 추천한 책으로, 최근 젊은 기독교인들 사이에 국내외에 일고 있는 단기선교에 대한 열정과 부른 꿈을 실현시키는 데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단기선교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조명해 보았을 뿐 아니라 단기선교를 잘 해낼 수 있도록 자신에게 맞는 선교사역 찾는 법, 외국에 가기 위해 선교단체와 연계하는 법, 생소하게만 느껴지는 선교단체와의 사귀기 등 초보자들을 위한 기본적인 안내가 수록되어 있다.

또한 단기선교의 극대화를 위해 다각도로 분석한 귀중한 자료들이 있으며, 단기선교훈련에 임할 때의 자세에 도움이 되는 정서적, 생활적인 측면과 영적인 측면을 골고루 다루고 있다.

해의 단기선교를 계획하고 있는 개인이나 교회, 단체들에게 좋은 지침서가 될 것이다.



중국선교 10월 정기세미나

중국어문선교회에서는 중국선교에 있어서 바람직하고 효과적인 전략을 위해 정기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주제: 중국의 도시선교

강사: 이문식 목사

(남북나눔운동본부 기획실장)

일시: 1995년 10월 30일(월) 오후 7시~9시

장소: 이수성결교회(중국어문선교회 맞은편)

자세한 문의는 중국어문선교회로

TEL. 533-5497, 592-0132, 594-8038

중국어교회와선교연구소 정기세미나

중국복음선교회 부설 <중국어교회와선교연구소>는 9월·10월 정기세미나를 개최한다.

9월 정기세미나

주제: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의 신앙유형

강사: 천 웨이밍(대만 중국복음선교회

중국현지 사역자)

일시: 1995년 9월 14일(목) 오후 7시~9시

장소: 여한중화한성교회 (중구 정동 25번지)

참가비: 5천원

10월 정기세미나

주제: 개혁개방이후 중국사회의 계층변화

강사: 한윤숙(동 연구소 연구원)

일시: 1995년 10월 26일(목) 오후 7시~9시

장소: 여한중화한성교회 (중구 정동 25번지)

참가비: 5천원

자세한 문의는 <중국어교회와선교연구소>로

TEL. 318-3956

인타콥 '95 미전도종족선교세미나

인타콥(전문인국제협력단)에서는 온누리교회 해외선교위원회와 극동방송, 국민일보 후원으로 언어적, 문화적, 역사적으로 한국과 깊은 연관이 있는

유라시아 대륙의 미전도종족을 위한

'95 미전도종족선교세미나를 개최한다.

일시: 1995년 9월 1일(금) 오후 6:30~9:30

1995년 9월 2일(토) 오후 3:30~9:30

장소: 온누리교회 본당

등록비: 1만원

자세한 문의는 인타콥으로

TEL. 585-3541~2 (조금희 간사)

John D. Robb 초청 미전도종족선교세미나

미전도종족입양운동본부(AAP)에서는 21세기 운동본부 미전도종족위원회 위원장인 John Robb 목사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한다.

일시: 1995년 9월 14일(목)

장소: 햇불선교센터

강사: John Robb (MARC, World Vision)

대상: 미전도종족선교관심자, 목회자

자세한 문의는 미전도종족입양운동 본부로

TEL. 402-4967

모퉁이들선교회 선교훈련원 개강

모퉁이들선교회에서는 선교사 양성을 위한 선교훈련원을 국내 1년, 해외 3개월과정으로 개강한다.

대상: 선교헌신자, 지도자

기간: 1학기 95년 9월~12월,

2학기 96년 3월~6월,

해외과정 96년 7월~9월

원서마감: 9월 7일까지

자세한 문의는 <모퉁이들선교회>로

TEL. 796-8846

오픈도어선교회 성경전달자 모집

오픈도어선교회에서는 중국과 베트남에 성경과 기독교 서적을 가지고 갈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중국

기간: 1주일~3개월(본인이 희망하는 때)
비용: US 300\$(1주일간의 숙식 및 사역비)
홍콩까지의 도착비용은 본인이 부담
숙소: Opendoor 소유의 아파트 제공
(남여 각 1동)
사역: 중국 본토를 방문하면서 성경 및 기독교 서적을 보급함

베트남

기간: 1주일- 3개월(본인이 희망하는 때)
비용: US 800\$ (1주일 간의 숙식 및 사역비)
숙소: 시내 호텔 (호지민시, 구 사이공시)
사역: 성경전달 및 선교지 방문
자세한 문의는 <오픈도어선교회>로
TEL. 403-6797 Fax. 403-6798(유은정 간사)

선교정탐훈련원 3기 개강

한국 미전도종족입양운동본부에서는 미전도종족의 전략적 접근과 선교정탐의 이해 및 정탐리더자 양성을 위해 선교정탐훈련원 훈련생을 모집한다.

일시: 1995년 9월 16일(토)~12월 3일(토)
장소: 사랑의교회 믿음관
대상: 각 선교단체 간사,
미전도종족 연구·관심자

모집인원: 40명
훈련비: 12만원
등록마감: 1995년 8월 31일까지
자세한 문의는
한국 미전도종족입양운동본부로
TEL. 402-4967

OMF한국 제3회 선교 오리엔테이션

OMF에서는 동아시아지역에서 OMF와 연결되어 사역하기 원하는 장·단기 헌신자에게 필요한 선교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한다.

훈련기간: 95년 9월 4일~95년 11월 27일
매주 월요일 (13주 과정)19:00~21:20
회비: 3만원

OMF한국 선교지 연구 모임

OMF에서는 선교 헌신자 및 관심자를 위한 연구 모임을 갖습니다.

일본 연구

시간: 매월 첫째, 셋째 주 (화목)
오후 6:00~8:00

중국 연구

시간: 매주 (목) 오후7:00~9:00

태국 / 인도차이나 연구

시간: 매월 둘째, 넷째 주(목) 오후 7:30~9:00

자세한 문의는 한국OMF로
TEL. 563-7574 Fax. 563-6950
(강영숙 선교사)

예수전도단 선교전략부에서 도우미를 구합니다.

영문 선교자료나 책자, 자료를 정리 분석하는 작업에 은사가 있는 분 또는 이러한 사역에 소망이 있는 분

자세한 문의는 예수전도단 선교전략부로
TEL. 872-8057 FAX. 872-7735

중국어문선교회 교육부 간사모집

교재개발 및 판매, 각 대학중국어 성경반 지원 및 중국선교훈련원 지원

사역을 담당할 간사 및 자원봉사자 모집
자세한 문의는
중국어문선교회 김바울 간사에게로
TEL. 594-8038, 535-4255

중국을 주께로

기도캘린더

기도는 어떻게 보면 지루해 보이는 싸움입니다.

누가 보는 것도 아니며 알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기도만큼 강력하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도 드물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중국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으며, 기도한 만큼 중국은 변화할 것입니다.

두 달 동안 하나의 기도제목을 두 번 기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중보기도의 손길이 많아져서 중국 복음화가 앞당겨지기를 원합니다.

1일

6천만 권의 성경, 600만 권의 성경주석서가 공급되도록

지난 '87년 이후 난징(南京)의 에덕인쇄소에서 천만 권의 성경을 출판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러나 등록되지 않은 교회의 교인들은 공식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구할 수 없어, 극동방송 등에 성경을 보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에덕인쇄소가 성경을 출판하는 할당액을 더욱 늘여갈 수 있도록, 또한 말씀에 굽주려 있는 중국의 성도들에게 성경이 공급되는 통로가 더욱 넓게 열리도록.

2일

중국의 문맹퇴치운동을 위하여

15세 이상의 인구 중 1억 5천만 명이 문맹 또는 반문맹인데, 현재 중국의 문맹퇴치운동은 인식의 미흡, 경비의 부족 및 새로운 문맹의 빠른 증가로 어려움에 봉착하였다.

문맹자들을 공활히 여기셔서 그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시고, 각 부문에 효율적인 문맹퇴치의 결과가 생기도록.

3일

중국에 공인된 기독교서점이 세워지도록

제한된 수의 성경과 찬송가, 기독교 서적 등이 삼자교회에서 판매되고 있지만 중국 전역에 기독교 서점은 단 한 군데도 없다. 기독교 서적에 대한 제한이 풀려 중국인들이 쉽게 성경과 서적들을 접해 진리의 말씀에 마음을 열도록.

4일

성경을 전달받기 원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허베이성(河北省)에 약 5천 명의 한족 신도들이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문혁 당시부터 민던 사람들이다. 이들은 성경을 몹시 필요로 하고 있으나 성경을 구하기 어려울 뿐더러 외부에서 부쳐준 성경도 우체국의 감시 때문에 찾아가지 못하고 있다.

성경이 안전하게 이 지역의 성도들 손에 전달될 수 있도록.

5일

출판을 통한 복음사역을 위하여

“저는 종교이론과 당대 종교연구를 전공하는 석사과정

학생입니다. 작년 겨울 성경을 단숨에 읽었으며, 한 출판사의 의뢰를 받아 그 중 1,900여 구절의 말씀을 골라 잠언으로 엮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의 구구절절 모두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쓰촨성(四川省)에서 온 편지-

출판사들이 개방적인 태도를 갖게 하셔서 그들이 말씀 전파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또한 언론매체에 글을 실을 기회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통해 진리의 말씀을 지혜롭게 전달할 수 있도록.

6일

한국 교회의 중국 문서선교를 위해

대한성서공회는 중국 애덕인쇄소를 지원하여 조선족을 위한 개역한글판 관주성경을 공급해 왔다.

이제는 조선족뿐만 아니라 중국어 성경, 또한 소수민족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등 한국 교회가 구체적이고 계획적으로 중국을 위한 문서선교에 참여하여 말씀에 바로 서는 중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7일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현재 중국에는 심각한 지역간의 경제발전 격차가 존재한다. 1인당 평균 총생산액(GDP)을 비교하면, 상하이(上海)가 구이저우(貴州)의 7~8배나 되며, 광둥(廣東)의 가장 부유한 시와 가장 가난한 현은 무려 34배의 차이가 난다.

정부의 지도자들을 인도하셔서 지역들을 효과적으로 발전시키며, 중국의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을 지켜주시도록.

8일

돈에 유혹된 일부 의사들을 위하여

최근 상하이 근교의 도시에 사기성이 짙은 전문 진료소가 늘어나고 있다. 일부 환자들은 사기꾼 의사들에게 넘어가 1,170원(인민폐)이나 하는 가짜 간 치료제를 사서 복용했으나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고 한다. 이런 의사들의 수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전에 미혹된 의사들을 긍휼히 여기사 그들에게 생명을 존중하는 인간성을 회복시켜 주시도록.

9일

중국의 여론의 자유를 위하여

최근 중앙정부에 의해 TV 뉴스 검열조 및 중앙간행물

검열조가 구성되었다. 그들은 각종 매체가 방송하는 당일 뉴스를 검열하며, 각 지방 간행물 및 방송국의 헤드라인 뉴스도 정부의 심사와 등록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검열조는 홍콩, 대만 및 해외의 각종 주요 신문과 간행물의 대륙관련 보도에 대해서도 검열을 강화할 것이라고 한다.

이들이 개방적이고 객관적인 태도를 가지게 하시고 합리적인 여론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도록, 해외에서 들어가는 각종 문서의 전달사역에 지장이 없도록.

10일

변질되어가는 중국인들의 마음을 위하여

최근 한 신문에 실린 글에 의하면, 중국인들이 물질만능화, 저속화, 삭막화, 조급화, 무책임화, 허무화되어가고 있다고 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가운데 우왕좌왕하는 중국인들의 마음 속에서 사탄이 하는 일들을 막아주시고, 주의 영이 사람들 속에 진리와 선함과 아름다움을 표출시켜 주시도록.

11일

미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위하여

쓰촨성 우한(武漢)에 당국의 공식적 허가를 받은 점술소가 4군데나 생겼다. 24명의 점술가들이 있는데 사업이 무척 번창하고 있다고 한다.

공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미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그것이 거짓임을 깨닫고 빠져나올 수 있도록, 또한 점술소들이 모두 폐쇄되도록.

12일

깨어지는 가정의 회복을 위하여

중국의 이혼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작년 총 620만 명의 사람들이 이혼을 하였다. 경제개방과 함께 밀려온 서구 풍조, 성적개방과 도덕의 문란, 그리고 회박해가는 가족 개념 등이 그 원인이다.

사회의 기반이 되는 가정이 건실해짐으로 개인 및 사회가 안정될 수 있도록, 이혼 등으로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새로운 희망의 삶을 살아가도록.

13일

가정사역을 위하여

중국이 산업화 사회가 되면서, 과거 공산화로 인해 뿌리



뿔뿔히 단속들이 다시 번져가고 있다. 최근 상하이 농촌에서 나타나는 '혼외결혼', 즉 축첩현상은 가정문제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개의 경우 법률적 처벌도 받지 않는다고 한다.

경제개방과 산업화로 인해 흔들리는 중국의 가정을 보호하시며, 중국 교회와 지도자들이 가정사역에 관심을 갖고 그들을 참된 진리로 인도하도록.

14일

중국의 자폐아동을 위하여

중국에 약 50만 명의 어린이들이 자폐증에 시달리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는 이들을 위한 2년 간의 특수 교육을 계획하고 있다.

이 교육 프로그램이 중국의 자폐 어린이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15일

사회적 지위 때문에 신앙을 숨기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화동지역의 한 도시에 사는 노의사 부부는 의사라는 사회적 지위 때문에 기독교인임을 밝히지 못한 채 30여년을 보냈다. 몇 년 후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 의사는

용기를 내어 새벽예배에 참석하였고 결국 교회를 열심히 섬기게 되었다. 그의 아들 역시 정부의 요직에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한다고 한다.

사회적 지위 때문에 용감히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도록.

16일

극성을 부리고 있는 이단들의 소멸을 위해

2000년 종말론을 외치는 많은 이단들이 정부와 생활에 대해 불만스러운 민중들의 정서를 선동하며 조직적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중국정부는 이러한 조직들이 정부와 농민간의 약해진 연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주시하고 있다.

중국 대륙을 뒤덮고 있는 사악한 거짓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진리를 갈망하는 심령들을 긍휼히 여기사 그들이 하루속히 참 진리를 얻을 수 있도록.

17일

주를 위해 갇힌 자들을 위하여

최근 저장(浙江), 장쑤(江蘇), 후베이(湖北), 허난(河南), 산시(山西) 등지의 도시에서 많은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해의 선교사들에 의해 양육훈련을 받던 중 공안국에 발각되어 구금당하고 벌금을 물고, 심지어는 재산을 몰수당했다. 어떤 지도자들은 심한 구타와 심문을 견디다 못해 '해의 종교조직과 연결하고 있다'고 시인해 버리고 말았다.

옥중에 있는 지도자들을 지켜주셔서, 비록 육신은 잡혀 있지만 영혼의 자유를 허락하시고 또 감옥에 있는 간수들과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되도록.

18일

중국의 어린이 복음사역을 위하여

18세 미만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전도하는 것을 금하는 정책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복음화가 불길처럼 번져가고 있다.

어린이 사역에 헌신할 지도자들을 훈련하는 사역이 활성화되고 주일학교 교재 및 어린이 성경이 외부에서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19일

신앙 때문에 핍박받는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하여

중국의 많은 예수민은 학생들이 선생님들과 친구들의 온갖 조소와 핍박에 못이겨 끝내 신앙을 포기하고 있다고

한다. 낮은 사회적 지위와 생활고에 시달리는 교사들이 그 불만을 크리스천 학생들에게 분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수 믿는 학생들이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교내에서 신앙의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크리스천 교사들이 학생과 교사간의 중간역할을 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20일

중·남부 농민들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중·남부 지역의 농민들은 복음에 대해 열려있고 진리에 갈급한 상태라 전도를 받자마자 곧 예수를 영접한다. 그러나 초신자 가운데 문맹인이 많아서 성경을 읽을 수 없기에 영적 성장에 어려움이 많다.

초신자들을 양육할 수 있는 사역자를 외부에서 보내 주시며, 동시에 복음방송이나 성경 테이프를 통해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21일

이단에 미혹되는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지난 2월 상하이시 공안국은, 자칭 예수라 하는 우양밍(吳揚明)이 이끄는 사교집단을 소탕하였다. 많은 이들이 이 집단에 현혹되어 가출하고 가산을 다 팔고, 심지어는 택함을 입었다는 명목으로 백여 명의 부녀자들이 성희롱을 당하기도 했다.

이단에 미혹되어 주님을 떠난 성도들을 돌이켜 주시도록, 교회들이 이들에 의해 분열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성도들에게 적절한 문서선교와 양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22일

훈련받으자 하는 중국인 사역자를 위하여

“제가 있는 지역은 전체인구의 약 0.015%만이 크리스천입니다. 불신자들은 우상숭배할 것을 강요하고 교회 건축을 방해하는 등 갖은 핍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좋은 목자가 되고 싶어서 1년 정도의 훈련을 받고자 하나, 궁핍한 생활 때문에 책 한 권도 사 볼 수가 없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 그리고 필요한 신앙서적으로 도와주십시오.” -푸지엔성에서 온 편지-

이 사역자에게 훈련의 기회를 주시며 필요한 신앙서적들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그가 양육하는 13개 집회소의 지체들이 진리에 굳게 서서 불신의 환경에서 타협하지 않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23일

주께 헌신코자 하는 어린 자매를 위하여

“저는 홍콩에 있는 아버지와 소식이 끊어진 지 10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홍콩의 중국반환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80세의 어느 목사님이 제게 학비를 대주시며 늘 따뜻하게 격려해 주십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많은 빛을 졌기 때문에 생활형편이 몹시 어렵습니다. 지금 신학교에 입학 신청을 했는데 합격이 되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이 자매가 주님께 순종하고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굳건하게 주를 의지할 수 있도록, 또 그 사랑이 많은 신노복사의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24일

분열된 교회의 일치를 위하여

서북지역의 한 가난한 도시 성도들이 자신들의 헌금으로 교회를 세우는 데 재정이 부족하여 절반밖에 짓지 못하고 있다. 현재 8백 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새로 지을 건물은 약 1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이다. 그러던 중 교회건축을 반대하는 사역자 한 명으로 인해 교회가 분열되었고, 그는 삼자에 등록하기를 강요하고 있다.

이 교회의 분열을 막아 주시고 사탄에게 이용당한 그 사역자가 마음을 돌이켜서 교회가 하나되어 주의 복음을 부흥시키도록.

25일

조선족 선교를 위하여

최근 중국정부는 한국과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있는 조선족들이 분리주의 운동을 일으킬까봐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이로 인한 한·중 양국의 외교적 마찰은 중국신교에도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국인들의 무분별한 민족감정으로 인해 열려진 조선족 선교의 문이 닫혀지지 않도록, 조선족 성도들이 말씀으로 훈련되어 중국 복음화의 비전을 가지고 전 중국을 향해 나아가도록.

26일

선교사들의 안전을 위하여

한·중 수교 이후 중국에서 강도 피살되는 한국인이 늘고 있으며 7월에는 연변에서 선교사역을 하는 한국인 목사가 납북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치안 부재상태의 중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이 긴장된 상황 속에서 지혜롭게, 동시에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선교할 수 있도록.

27일

한국에 있는 중국인 유학생을 위하여

한·중 수교 이후 점점 많은 중국 유학생들이 들어오고 있다. 조선족을 비롯한 이들 유학생들은 철저한 공산주의 무신론 교육을 받은 이들이기에,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고 대사관의 감시도 만만치 않다.

이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이들과 우정관계를 맺고 복음을 전할 친구들을 만나게 하셔서 기독교에 대해 열려진 마음을 갖게 하시도록.

28일

추석에 열릴 중국인 근로자 수련회를 위하여

중국의 큰 명절인 중추절(仲秋節)에 고향에 가지 못하는 중국인 근로자를 초청, 복음을 전하고 교제를 나눌 「추석맞이 중국인 근로자 수련회」가 몇몇 단체에 의해 진행될 예정이다.

이 수련회에 많은 근로자들이 참가하여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필요한 재정과 자원봉사자들이 채워지도록.

29일

푸미족(普米族) 복음화를 위해

윈난성의 3만 푸미족(普米族) 가운데 오직 한 사람만이 기독교인이라고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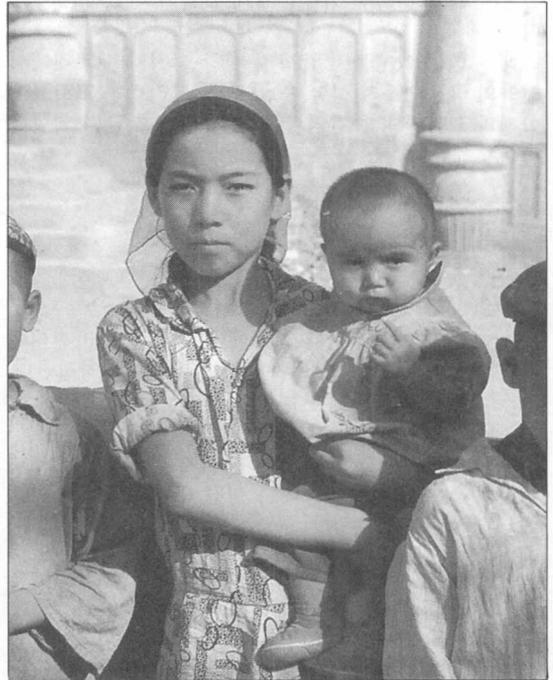
이 한 사람이 고독한 신앙환경 가운데서도 견고히 신앙을 지키며, 푸미족 가운데 복음을 전할 일꾼을 보내주시도록.

30일

신장(新疆)자치구 교회를 위해

“제가 사는 신장지역에는 위구르, 카자크 등 소수민족이 있는데, 이들은 늘 폭동을 일으키며 자신들의 종교로 세상을 뒤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에서는 외부로 편지를 부치는 일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부흥하고 있으나 늘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주시시오.”

신장의 그리스도인들이 핍박 중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믿고 전하도록, 필요한 성경(위구르어), 기독교 서적 등이 번역되도록.



신장 위구르자치구의 어린이

31일

분별의 은사를 구하는 묘족(苗族)교회를 위하여

한 사역자가 묘족 교회의 초청을 받아 그들이 사는 산골에 가서 집회를 인도했는데 먼 곳에서부터 많은 형제자매들이 모였다. 그러나 중국어를 못 알아듣는 노인들과는 말이 잘 통하지 않아 아쉬웠다고 한다. 그들은 성령과 악령을 구분하는 것에 관한 서적들을 원하고 있다.

주께서 묘족어에 능통한 사역자를 세우사 깊은 산골에 있는 그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또한 묘족 성도들이 성령에 힘입어 선악을 분별하고 악령을 이길 수 있도록.

위의 기도제목은 아시아 기도(OMF), Pray for China(CCRC), Chinese around the World(CAW), China News Church Report(CMI) 亞洲週刊 및 국내 일간지 등의 소식을 참고하여 작성한 것이다.

중국어문선교회 연구부

C.C.L. 중국복음사역부에서 발간하는 문서목록

다음 자료는 문서사역 단체인 복음증주협회(福音證主協會)의 중국복음사역부에서 발간하는 문서목록이다. 이 도서들의 대부분은 소책자로서 중국(대륙)으로 전달하기 위해 발간된 것이다. 이번 호의 특집인 **중국과 문서선교**에 발맞추어 게재하는 이 자료는, 간체자로 출판된 문서를 갖고 중국에 들어가기 원하는 분들이 문서를 필요로 하는 대상과 목적에 따라 적합한 내용의 책을 전달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중국어문선교회는 이 목록에 있는 도서들의 일부를 소장하고 있으며, 문서를 전달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하려는 분들은 이 목록을 참조하여 필요한 책들을 본 선교회를 통해 갖고 갈 수 있다. 문서전달 사역에 관심있는 독자들에게 도움되기를 바란다.

- 편집자 주 -

소책자

코드번호	책 제목	내 용
301 G	你當知道的事實	신의 창조물과 인간이 만든 것을 비교하여 전자의 우수성을 드러냄
302 G	徹底了解人	신의 창조를 통한 인간 이해
309 G	公元前與公元後	기원을 통해 예수그리스도의 탄생을 얘기함
310 G	一星期有七天	일주일일 7일로 이루어진 것을 통해 주 예수의 부활을 소개
311 G	死海不死	사해 부근에서 발견된 사해사본으로 성경의 진실성을 설명함
906 G	永生之路(好消息)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에 관한 설명함
940 G	平安何處尋	번뇌많은 세상에서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만 참평안을 얻을 수 있음을 설명함
965 G	耶穌為何降世受死	예수가 왜 세상에 오셨고 죽임을 당하셨는지를 설명함
966 G	你往哪裏去?	오로지 주예수를 통해서야만 천당에 들어갈 수 있음을 설명함
967 G	你選哪條路?	천당과 지옥의 차이점에 대하여 설명함
968 G	不是我的鴿子	인간의 죄를 인식하고 죄에 대한 사전방지를 설명함
1014 G	忙中安息之秘訣	바쁜 가운데서도 쉬를 얻는 비결

전도 소책자

코드번호	책 제목	내 용
105 G	最偉大的人生	예수의 생애에 대한 삽화
208 G	復活的耶穌	예수의 부활과 그 의의에 대해 논증
305 G	信仰的原委	문답과 비유방식으로 사람에게 왜 구원이 필요한가를 설명함
907 G	福音橋	그림으로 구원의 기본 진리와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에 대해 설명함
933 G	幸福人生	기적이나 죄, 은혜 및 교회 등과 같은 20편의 기본적인 신학설교
937 G	來信基督	구원의 기본진리와 구원얻는 방법을 설명함
*949 G	信耶穌有什麼好處?	예수를 믿고 얻는 평안은 물질, 문화와 돈이 가져다 줄 수 있는 평안을 훨씬 능가한다는 내용
963 G	基督教真義	기독교의 기본진리에 대한 이해
974 G	到天堂的路	그림으로 구원의 기본진리에 대해 설명
988 G	蒙福的孝道	부모에게 전도하는 것이 복받는 효도임을 설명함
989 G	光明人生	밝은 인생으로 안내하는 20강좌
1015 G	五大奧秘	하나님, 사람, 예수 그리스도, 구원, 구원얻는 것에 대해 서술함
1022 G	真的可信	하나님의 계획 및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서술하여 사람들에게 현명한 선택을 하게 함

*공히 OMF가 판권을 가지고 출판하여 C.C.L이 발행한 책이다.

지식인을 위한 전도 소책자

코드번호	책 제목	내용
315 IG	進化論是不易的真理嗎?	진화론의 일반이론과 성경진리에 대해 토론함
*317 IG	基督教是什麼?	기독교 신앙에 대해 논하고 아울러 중국인의 관점에서 기독교에 대한 오해를 해명함
*318 IG	世界名人宗教觀	세계의 저명한 과학자, 사학자, 정치가 등 인물의 기독교 신앙에 대한 관점을 열거하여 설명함
*319 IG	基督教與科學	중국 크리스천 과학자의 관점으로 기독교와 과학과의 관계에 대해 토론함
*888 IG	千載懸疑	예수, 그의 부활, 성경의 신실성 및 십자가 구속에 대해 토론함
*901 IG	書中之書	성경의 주제, 유래, 계시, 권위 및 성경을 읽는 방법 등을 소개
917 IG	生物奧秘	생물 생태학의 기묘한 발견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를 증명함
*922 IG	孫中山先生的信仰	손문의 신앙과 사상 및 학설의 기초에 대해 논함
*923 IG	生之追尋	사람의 완벽추구와 행복추구의 한계를 설명하고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무한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에 대해 설명
*924 IG	進化論質疑	기독교와 진화론간의 문제에 대해 토론함
*929 IG	歷史抑神話?	예수가 실제로 역사상에 존재하였는가 하는 예수의 사실성을 증명함
*931 IG	歷史家筆下的基督	현대 역사가 웰스가 비기독교도의 관점으로 논한 글에서도 예수에 대해 극히 높게 평가함
*941 IG	新人?!	한 사회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는 크리스천의 간증
943 IG	真的沒有神嗎?	대화방식으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설명함
*944 IG	哲學與基督教信仰	실존주의와 맑스레닌주의 및 중국 지식인이 흥미를 갖고 있는 철학사상을 간단히 소개하고 그것을 기독교적 관점으로 토론함
*945 IG	人文主義批判	인문주의 및 삶의 의미는 오늘날 중국지식인이 흥미있어하는 철학사상이데 그것을 기독교적 관점으로 토론함
*946 IG	好人還要信耶穌嗎?	예수 그리스도만이 '좋다'는 것의 유일한 표준임
*947 IG	人生與財富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 진정한 부가 무엇인가를 보여줌
*956 IG	信仰的探究	유물론에 대해 객관적인 분석을 가하고 동시에 이러한 관점으로 정확한 진리를 도출해 냄
986 IG	認識眞神	참 하나님의 존재를 여러 각도로 증명함
990 IG	創造或進化	과학적인 방법으로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증명함
*991 IG	迷信? 信迷?	참 신앙의 가치와 하나님을 아는 방법에 대해 설명함
*992 IG	聖經所載可信嗎?	성경의 자체와 외부의 증거들로 성경의 권위에 대해 토론함
*993 IG	基督徒的藝術觀	크리스천의 삶에서 예술을 어떤 관점으로 보아야 하는지를 제시함
*995 IG	一個無神論者的改變	사회주의 사상 교육을 받고 성장한 한 청년이 주를 믿고 변화된 간증
*996 IG	基督教傳教士與中國禁煙運動	청나라 말, 열강이 중국에서 아편을 판매하여 중국 민생에 해악을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해 한 기독교 선교사가 책을 쓰고 각지로 분주히 다니면서 금연운동에 공헌을 한 이야기
*997 IG	如此基督教	C. S. Lewis 가 쓴 기독교 개관서적
*1000 IG	民主, 道德與美國憲法	기독교와 민주, 미국혁명, 헌법제정의 관계를 논한 책
*1001 IG	騙局還是事實?	맥도웰의 『鐵證待判』제10장에서 발췌한 것으로 부활의 신실성과 중요성에 대해 논함
*1002 IG	絕對眞理, 絕對愛	중국의 한 고급 지식인이 이성적인 측면에서 절대적 진리와 절대적 사랑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분석함
*1003 IG	科學家也信上帝	과학의 기초에 대해 토론하고 아울러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밝혀서 양자를 비교하여 그 중에 상충되지 않음을 밝힘
*1004 IG	生命之旅 — 信仰疑難的突破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의 초보자가 직면하는 장애물들을 생각해 보고 함께 극복하도록 함
*1005 IG	中國大陸知識份子的見證	무신론 교육을 받은 중국지식인들이 진리추구 과정에 대해 나누는 이야기
*1006 IG	扎根於永恒	초신자를 위해 편찬한 소그룹 성경공부 교재

코드번호	책 제목	내 용
*1007 IG	科學基督教信仰	크리스천 원자력 물리기가 과학의 목적, 이론, 신념 및 과학의 한계에 대해 언급함
*1008 IG	科學家的見證	10명의 과학자가 그들이 과학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기묘하심과 위대하심에 대해 나눔
*1009 IG	今日經濟	가장 걸출한 경제학자가 기독교적 관점으로 오늘날의 경제에 대해 엄밀하게 평가함
*1010 IG	科學與信仰問題	레이저 물리학자가 독자들이 현대과학과 기독교 신앙간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순을 꿰뚫어 보도록 도움
1011 IG	人生的真義	인생의 참 의미에 대한 체계적인 서술
*1023 IG	生命的起源	여러가지 과학이론을 갖고 생명의 기원에 대해 토론하고 증명함
*1025 IG	人生的選擇	크리스천의 각도에서 인생의 선택과 신앙의 실천 및 사회에 대한 관심 등을 살펴봄
*1026(1) IG	一針見血的福音(一)(組員本)	8과로 이루어진 복음적인 성경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사람의 가치, 허무에서 만족으로 등의 주제로 토론하여 복음을 증거함
*1026(2) IG	一針見血的福音(一)(組長本)	사용법과 참고자료를 제시하여 조장이 복음적인 성경공부를 인도하도록 도움
*1026(3) IG	一針見血的福音(二)(組員本)	8과로 이루어진 복음적인 성경공부를 통해서 사람의 죄성, 인간관계, 말세 및 주 예수의 구속에 대해 설명함
*1026(4) IG	一針見血的福音(二)(組長本)	사용법과 참고자료를 제시하여 조장이 성경공부를 인도하도록 도움
*1028 IG	扭轉乾坤的主	요한복음에 나오는 8단락의 성경구절을 연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알
*1029 IG	科技文化與基督教	무엇을 과학기술 문화라고 하는지를 설명하고 과학기술 문화가 기독교에 끼친 영향에 대해 토론함
*1030 IG	心靈之旅	중국의 지식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을 찾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과정에 대해 나눔
*1033 IG	氣功之我見	기공에 대한 소개와 기공을 닦았던 두 크리스천의 간증을 소개함
*1034 IG	家爲神所繫	가정의 그리스도화와 남편, 부인, 자녀, 부모 및 고부 간에 서로가 지켜야 할 역할을 가르침

*공히 OMF가 판권을 가지고 출판하여 C.C.L이 발행한 책이다.

훈련 소책자

코드번호	책 제목	내 용
104 T	每日天糧	매일 한 편의 목상이 실린 큐티(QT)교재.
106 GT	小天路客	한 소년이 하나님을 믿게 된 우화 형식의 간증
114 T	教會歷史名人錄	역대 기독교 명사들의 기독교 역사상에 남긴 공헌
201 T	眞理與異端	진리와 이단의 차이를 밝힌 책. 신신학, 천주교, 여호와증인, 몰몬교, 제칠일안식교 및 기독교과학회 등의 이단에 대한 논설
204 T	信心	성경 속에 나오는 믿음에 대한 가르침
205 T	靈程	크리스천의 구원, 승리, 영광에 이르는 3단계
211 T	奇妙的誕生	성탄의 의미를 서술한 책
501 T	詩歌三百首	중국내 성도들이 즐겨부르는 삼백곡의 찬송가를 모은 찬송집
703 T	生活指南	구원의 기준과 구원받은 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설명한 책
900 T	聖靈的工作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인격과 사역
902 GT	答覆你的問題	초신자가 갖기 쉬운 삼백여 가지의 문제와 답안
905 T	有效的禱告與讀經方法	기도와 성경을 읽는 원칙과 방법에 대해 서술한 책
911.1 T	門徒訓練	성경에 기재된 주 예수와 바울의 제자훈련 방법을 알게 함
911.2 PT	教牧學(1)	교회생활에 대한 가르침
911.14 PT	教牧學(2)	교회생활에 대한 가르침

코드번호	책 제목	내 용
911.3 PT	神蹟奇事	이적과 기사에 대한 정확한 이해
911.4 PT	佈道與栽培	전도와 양육의 방법
911.5 PT	講道學	설교방법
911.6 PT	教牧書信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에 대한 개략과 해석
911.7 PT	基督教教育	기독교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안내한 책자
911.8 PT	約翰福音	요한복음에 대한 개략과 해석
911.9 PT	保羅書信	바울서신에 대한 개략과 해석
911.16 PT	舊約歷史(1)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에 대한 개략과 해석
911.15 PT	舊約歷史(2)	레위기, 신명기에 대한 개략과 해석
911.18 PT	舊約歷史(3)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에 대한 개략과 해석
911.17 PT	舊約歷史(4)	사무엘상하에 대한 개략과 해석
911.19 PT	舊約歷史(5)	열왕기상하와 역대기상하에 대한 개략과 해석
911.20 PT	舊約歷史(6)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터에 대한 개략과 해석
911.21 PT	哥林多前書研讀	고린도전후서에 대한 개략과 해석
911.24 PT	羅馬書講義	로마서에 대한 개략과 해석
911.25 PT	異端與極端	이단과 극단의 착오에 대해 살펴봄
911.26 PT	智慧書	지혜서에 대한 개략과 해석
913 GT	生活之趣	성경구절을 이야기와 비유의 형식으로 해석함
918 T	天路歷程(圖解)	크리스천이 종종 부딪히는 신앙경험을 그림과 비유형식으로 표현
935 T	主和救主	그리스도의 전 생애에 대한 이해
938 T	怎樣禱告	기도의 의미와 기도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
939 T	怎樣讀聖經	성경연구와 이해방법에 대한 지도
952 T	聖經真理與信息	성경 각 권의 기본진리와 중심 메시지
*955 T	中國文化與基督教思想	유불도를 비롯한 각종 사상을 기독교 사상과 비교연구한 책
964 T	回教信徒的難處	이슬람교와 기독교의 신앙차이를 설명
969 T	豐盛的恩典	존 번연의 생애를 서술한 책
975 T	聖經詞彙	성경에 나오는 특수한 용어를 주제화 방식으로 설명한 책
976 T	基督教信仰綱要	기독교의 기본 신앙에 대한 이해
977 T	解經與研經(合訂本)	성경해석과 연구에 대한 원칙과 방법
982 T	解經原理	성경해석의 정확한 방법
983 T	信仰要道(合訂本)	성경의 기본진리
984 T	聖經光亮中的靈恩運動	크리스천의 성령운동에 대한 정확한 태도
985 T	靈命操練	기독교 영적훈련의 지침
987 T	初信造就	초신자가 진리를 이해하고 영적성장을 하도록 돕는 책
*994 T	兩性之間	성경, 심리, 의학의 관점에서 본 성(性)에 대한 정확한 태도
997 T	人際要則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알아야 할 원칙
998 T	金蘋果在銀網子裏	성경의 언어에 대한 가르침
999 T	終身大事	혼인에 관련된 가르침
1013 T	救恩三部曲	구원의 세 과정, 즉 믿음으로 의롭다하심을 얻고 사랑으로 거룩하여지며 소망으로 영화롭게 되는 진리를 설명함
1018 T	神的工人	고린도후서에 나타난 모범적인 하나님의 종
1019 T	領受從上頭來的能力	성령충만으로 얻는 능력
1021 T	新生命	「大使門徒訓練」시리즈 중 첫 단계인 전도용 성경공부교재
1024 T	新生活	「大使門徒訓練」시리즈 중 두 번째 단계인 양육용 성경공부교재
1027 T	真理十二課	12과로 된 성경 기본 진리로 제자훈련하는 교재

*공히 OMF가 판권을 가지고 출판하여 C.C.L.이 발행한 책이다.

아동서적

코드번호	책 제목	내 용
925 C	約瑟和他的夢	요셉의 일생을 그린 그림 이야기책
926 CG	耶穌與東方博士	Surprise Picture Book Series-동전이나 연필로 긁으면 숨겨진 그림이 드러나는 이야기 책
927 CG	快樂的小矮人	위와 같음
928 CG	第一個復活節	위와 같음
929 CG	挪亞的大船	위와 같음
930 CG	牧童大衛	위와 같음
931 CG	伯利恒的聖誕	위와 같음
932 CG	五餅二魚的故事	위와 같음
*1031 CG	兒童閱讀材料 — 阿財的故事	우상숭배하는 가정에서 성장한 한 소년이 결신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과정과 예수께서 그로 하여금 온 가족을 주께로 인도하도록 도우신 것을 설명한 책
*1032(1) CG	兒童天地詩歌(一)	24곡의 아동찬송 및 간단한 전도메시지(녹음테이프도 있음)

*공히 OMF가 판권을 가지고 출판하여 C.C.L이 발행한 책이다.

출판 예정된 신간

코드번호	책 제목	내 용
미정	驚天動地的大事件	지금 세상의 징조는 예수님이 속히 오시리라는 것을 예고함
미정	恩賜與生命	은사는 필히 삶으로서 증거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덕이 됨
미정	培養敬虔的下一代	부목가 성경말씀대로 솔선수범 행함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방법

선교일꾼을 찾습니다

두●란●노●해●외●선●교●회●(TIM)

두란노 해외선교회(TIM)에서는
12억의 영혼이 추수를 기다리는 넓은 들판에서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함께 이루어 갈
전문인 사역자를 찾습니다.

사역내용 : 피아노 교사, 국어교사, 치과위생사
커피숍 봉사자, 농업, 원예전공자
기 간 : 1년 또는 장기

문의: Tel. 796-1300(교 603) Fax.749-5498

주소: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95번지 박림빌딩 6층 601호

중국어문선교회는 이렇게 일합니다

중국어문선교회는 중국선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깨닫고 섬김의 도와 지체의식으로 중국선교의 여러 사역 중 특히 중국어문(中國語文)과 관련된 선교사역을 초교파적으로 수행하는 단체입니다.

주요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훈련사역

중국선교에 헌신하고자 하는 선교지망자들을 위해 중국선교훈련원을 통해 중국어와 현지적응 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교중국어 교재개발 및 각 대학 중국어성경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연구사역

정기적으로 중국선교세미나를 개최하며, 국내외 선교정보의 수립 및 자료화, 중국교회 동향분석, 중국소수민족 및 각 성별 연구, 최근중국동향에 대한 정보 수집, 중국선교 전략 연구 등의 연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문서사역

중국선교의 필요성과 전략이 한국 교회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격월간 “**중국을 주께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선교책자를 번역, 출판하고 있으며, 나아가 중국 교회가 필요로 하는 신앙 및 신학서적을 중역(中譯)하는 일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방한중국인 전도사역

국내에 연수생으로 들어와 있는 중국인 노동자들과 중국유학생을 대상으로 전도 및 제자화 양육 사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승선전도사역:

한국에 들어온 중국배에 매주 올라가 중국인 선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소 및 연락처

서울 서초구 방배본동 756-7(신우빌딩 301호/402호)
전화 / 594-8038, 535-4255, 533-5497, 592-0132
팩스 / 599-2786

섬기는 사람들

고문/방지일 목사, 김지일 장로, 대표/박성주 장로, 총무/이요한, 행정실 실 장/김만섭, 재정간사/강영옥, **교육부** 운영위원/김성곤, 간사/김바울, **연구부** 운영위원/석은혜, 간 사/권수영, **출판부** 운영위원/석은혜, 간 사/차이나정광숙·이민선, **훈련원** 운영위원/장희락, 간 사/김바울, **선교국** 운영위원/박애린·정선영, 간 사/임화평·안성자, **인천지부** 책임봉사자/임현경, 파송연구원/주안도, 파견간사/김광석·주미애·최동신, 파송선교사/박애린(국내)·정선영(국내)·이성은(해외)·윤승일(해외), 협력선교사/주성지·고대위·이샤론·강성광·김상화에보람·주애화·주은파



중국을 주께로 기도합주회

오늘처럼 기도가 요구되는 시대가 있을까요?

그러나 요즘처럼 기도가 잠들어 있는 때도 드문 것 같습니다.

기도를 모든 문을 열어 짓하는 열쇠입니다.

우리를 엮매는 대적의 진영을 산산히 깨뜨려 버립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 한마음으로 부르짖을 때 불가능이란 더이상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어떤 일보다도 우선적으로 하기를 명하시는 일이 기도요,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중국이 변하길 원하십니까?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지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모이십시오.

중국을 위해, 중국의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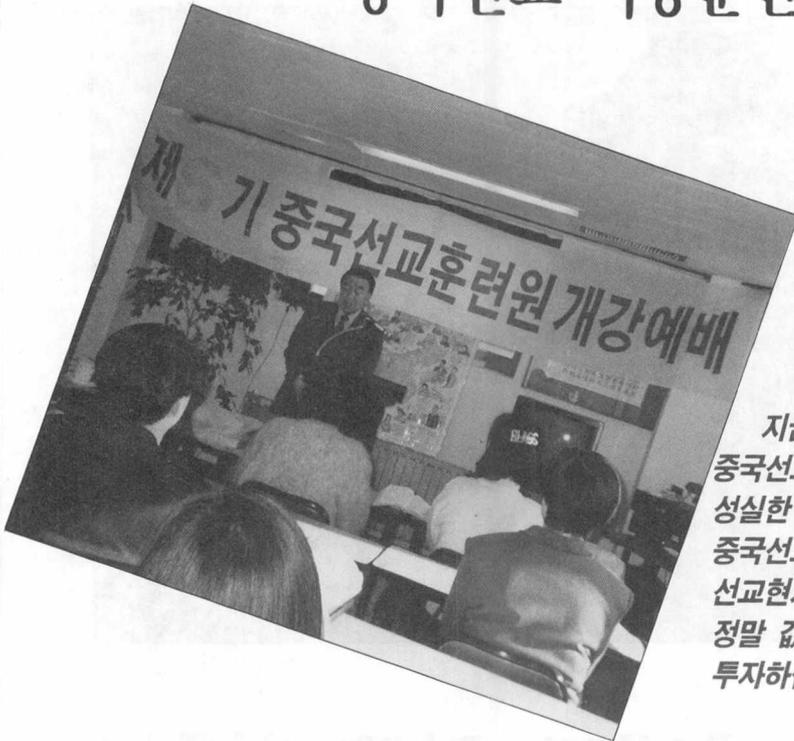
그들을 위해 생명을 바칠 각오로 수고하는 선교사들의 필요를 위해 함께 무릎꿇읍시다.

‘중국을 주께로 기도합주회’는

기도의 광장을 마련해 놓고 기도의 헌신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일시** : 매주 월요일 오후 7시~9시
- **장소** : 중국어문선교회 부설 중국선교훈련원
- **문의** : 중국어문선교회 (Tel : 594-8038, 533-5497)

“중국선교 적응훈련을 아십니까?”



지금
중국선교훈련원의
성실한 준비 프로그램
중국선교 적응훈련을 만나십시오.
선교현지에 무리없이 정착하기 위해
정말 값지고 귀한 6개월을
투자하십시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6개월 -----

급한 건 사실이지만
조급하게 서둘러서는 안됩니다.
열정은 이해하지만
무모함은 혼란을 불러올 뿐입니다.
먼길을 가려면 차근차근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중국선교훈련원의
성실한 준비 프로그램
중국선교 적응훈련을 만나십시오.

교육목표

첫째, 중국에 대한 바른 이해로 현지 적응능력 배양
둘째, 생활중국어와 선교중국어를 자신있게 구사
셋째, 중국선교사역에 대한 비전의 구체화

교육기간

6개월(매년 3월·9월 개강, 주 5일)

교육내용

선교중국어 집중훈련, 중국문화 및 선교연구 세미나,
중국어 공동체훈련, 현지 언어연수 및 답사

교육대상

중국선교 헌신자 및 관심자
훈련 후 선교지에 곧 나가려는 사람에게 우선권이 있음

참가인원 및 선발기준

본 훈련원의 선발기준에 의함

중국어문선교회 부설 중국선교훈련원

문의/ 중국선교훈련원 담당간사: 장희락 총무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본동 756-7 신우빌딩 402호 ☎137-069
TEL: 02-594-8038, 535-4255
FAX: 02-599-2786

중국선교훈련원은 선교언어 훈련과 중국문화 적응훈련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선교훈련원은 초교파적·복음적 단체로 1989년 10월 30일에 창립된 중국어문선교회(대표 박성주 장로)의 부설기관입니다.

중국의 도시선교

열려진 개방화의 길을 따라 급속한 도시의 팽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아, 농촌과 벽촌에서 무작정 도시로
도시로 밀려들고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황금어장입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의 그물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그들의 삶과 함께 하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도시의 사역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주제: 중국의 도시 선교

일시: 1995년 10월 30일(월) 오후 7시-9시

강사: 이문식 목사 (남북나눔운동본부 기획실장)

장소: 이수성결교회(중국어문선교회 맞은편)

참석대상: 선교에 관심있는 모든 사람

참가비: 없음

문의: Tel. 594-8038, 533-5497, 592-0132

Fax. 599-2786

주최: 중국어문선교회

중국을 주께로

중국을 사랑하는 이들의 동반잡지

1995년 9·10월호(통권35호)

발행처/ 시님(중국어문선교회 출판부)

대표/ 박성주

발행·편집인/ 이동화

편집장/ 석은혜

편집 기자/ 한영혜

차이나

권수영

이민선

편집디자인/ 정광숙

광고·홍보/ 김정하

이준석

중국을 주께로

등록일자/ 1994년 2월 14일

등록번호/ 바 - 2078

발행일자/ 1995년 8월 10일

인쇄인/ 김수민(신성기획사)

값/ 3,500원

중국어문선교회

본부, 훈련원

서울시 서초구 방배본동 756-7

신우빌딩 402호

전화: 594-8038, 535-4255

팩스: 599-2786

출판, 연구부

서울시 서초구 방배본동 756-7

신우빌딩 301호

전화: 533-5497, 592-0132

팩스: 599-2786

인천지부

인천시 남구 용현4동 89 9/1

성광교회 세계선교센터 309호

전화: 032)872-07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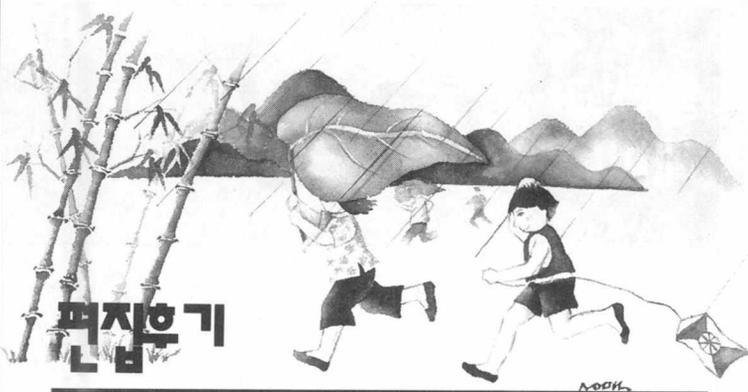
선교회(사랑의 집)

서울시 관악구 신림10동 306-67

전화: 873-2570, 889-1585

스마트폰으로 번호

7602362



편지하기

밭원의 씨는 듯한 더위 속에서, 바람과 태양이 누가 더 강하냐 하며 사슴의 옷 벗기는 내기를 하고 있다는 아직도 계속되는 옛 이야기가 떠오른다.

인간 생존의 본성은 날씨에 따라 옷을 벗게도, 옷을 더 여미게도 하지만 예수를 덧입고 사는 우리에게는 더 나은 인간 신령의 모습을 드러내도록 하는 하나님의 추구가 있다.

이 더위에 우리가 익용하는 음식들이 쉬이 무르고 그 신선미를 잃어가며 부패할 때, 문득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적정 온도 그 신선도를 잘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진다.

이번호에서 다룬 특집 「중국과 문서선교」는 중국을 향한 뜨거운 가슴을 가진 주의 일꾼들에게 냉철한 도구가 되리라 생각한다. 밭씨의 꿈을 간절히 원하는 중국의 지체들에게, 우리들이 전하는 영적 양식들로 배복이 먹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국외 정기구독료(1년)

항공우편	
1지역	일본, 대만, 마카오 책값 21,000원, 우편료 9,720원, 합계 30,720원
2지역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네시아 책값 21,000원, 우편료 13,320원, 합계 34,320원
3지역	미국, 호주, 캐나다, 인도, 스리랑카, 뉴질랜드, 네팔, 파키스탄 책값 21,000원, 우편료 19,320원, 합계 40,320원
4지역	유럽, 중남미, 아메리카, 아프리카, 중동아시아 책값 21,000원, 우편료 21,720원, 합계 42,720원

총판/ 크리스천 매거진

서울시 관악구 봉천6동 산 67-32 전화: 877-6046



중국을 주께로는 중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동반잡지입니다.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소개하며 특히 중국선교에 초점을 맞추어 중국의 교회소식, 선교상황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여 국내외 교회와 관심자들에게 중국을 알려주는 중국선교 전문정보지입니다.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전화

〒



받는 사람

중국을 주께로 편집부 앞

서울 서초구 방배본동756-7

(신우빌딩 301호)

137-069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전화

〒



받는 사람

중국을 주께로 편집부 앞

서울 서초구 방배본동756-7

(신우빌딩 301호)

137-069

성광 전문인 선교훈련원

9월 개강 예정

지원자격

타문화선교사로서의 사명을 느끼고 이에 따라 선교지로 떠나기 전에 최종적으로 선교훈련을 받고자 하는 분.

훈련기간

A코스(정규합숙훈련) : 11개월
국내 8개월(1학기: 9월~12월, 2학기: 3월~6월)
현지 3개월(단기 수습사역)
B코스(비합숙훈련: 학생 및 직장인 대상) : 2년
국내 2년(1학기: 9월~12월, 2학기: 3월~6월)
화·금(19:00~21:00)·토(14:00~19:00)

훈련비용(국내)

A코스: 훈련비 - 미혼자 1학기당 280,000원
기혼자(부부) 1학기당 500,000원
생활비(매월) - 미혼자 15만원, 기혼자(부부) 27만원
* 자녀가 있을 경우 추가비 있음
* 현지 답사 및 단기 사역비는 별도
B코스: 학기당 20만원

구비서류

지원서 양식(원서-소정양식), 간증문, 지도자 평가서, 담임목사 추천서(또는 단체장),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호적등본, 건강진단서

원서교부 및 접수

기간: 95년 8월 1일~8월 27일까지
면접: 95년 8월 28일~9월 1일까지(09:00~18:00/12:00~13:00는 중식)
개원: 95년 9월 18일
신청금: 10,000원

훈련생 혜택사항

- ① 자녀교육혜택: 유아원(4, 5세), 유치원(6, 7세) 특별장학금지급
- ② 전 가족 무료진료 혜택: 치과, 내과, 외과, 소아과, 신경외과
- ③ 선교 정보실: 문서 및 비디오 선교자료 향시 이용 가능
- ④ 선교 도서관: 향시 사용
- ⑤ 현대식 LAB시설: 수시 사용(30석)

훈련장소 성광선교센터(TEL: (032) 872-2336~8, FAX: (032) 862-6942)

교통편/

주안역에서 시내버스 5번
41번, 마을버스 1번
인하대 후문 한 정거장
전에 하차(20분 소요)

성광선교센터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4동 89번지
양치호 목사
TEL: (032) 872-2336~8
FAX: (032) 862-6942





**극동방송
아세아방송**

아직도 선교사 파송과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북방지역에

극동방송과 아세아방송은 전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기도와 헌금으로 동역할
전파선교사가 되어 주십시오.



**방 송 의
메 아 리**

**별목장에서
귀순한
북한주민**

"시베리아 별목장에서 남몰래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자유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한 끝에 목숨을 걸고 남조선으로 귀순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시골주부**

"주부인 저는 사는 것이 고달퍼서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귀 방송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지요 지금은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쁨으로 살고 있습니다."



**중국교회
지도자**

"지금 중국에 처소교회가 약 3만 군데 있는데, 그들은 극동방송과 아세아방송을 들으며 믿음 생활을 합니다. 어느 한 집에 라디오가 있으면 밤중에, 시간에 맞춰, 그 집에 모여 설교를 듣습니다."



**북한지역
주민**

"하루는 새벽에 방송을 들으니까 합창(찬송)이 끝난 후에 어느 사람이 연설(설교)을 하는데 참 좋더군요. 그후 하루라도 그 방송을 듣지 않고 출장을 간다든지 하면 불안했습니다. 이제 저는 공산주의자도 민족주의자도 아닙니다. 저는 이제부터 예수주의자입니다."

**전파선교사
신·청·방·법**

1] 저희 방송사에 전화(또는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 전용 전화 번호 / (서울 02) 322-0·6·9·1
영 육 구 원
(서울 320-0283, 0290)

2] 어느 은행이든 99번 창구에 가서서 지로 용지를 요청,
아래 번호를 적어 작성 금액을 송금해 주시면 됩니다.

전용 지로구좌번호

1 · 1 · 2 · 0 · 6 · 9 · 1
일 일 이 - 영 육 구 원



주님! 기도와 헌금으로 북방선교 사역에 동역할
전파선교사 100,000명을 주옵소서!